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9 791195 509300
ISBN 979-11-955093-0-0

비매품
93340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1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4

정은미·김병로·박명규·송영훈 저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집필진

정은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사회학과 교수

송영훈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주민 통일외식 2014



목차

제1장 서장

1. 서론	10
2.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12
3.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13
4.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17

제2장 통일인식

1. 서론	32
2. 통일의 필요성과 기대감	34
3. 통일의 이유	36
4. 통일의 방식과 예상 시기	37
5. 통일에 대한 기대감	40
6.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도	45
7. 통일 후 사회통합	47
8. 소결	50

제3장 대남인식

1. 서론	56
2. 남한의 존재 인식	58
3. 대남 인지도	67
4. 남한의 대북지원	70
5. 소결	78

제4장 북한실태인식

1. 서론	82
2.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85
3. 전반적 사회통제	92
4. 문화의식	99
5. 정치사상의식	102
6. 소결	112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1. 서론	116
2. 가장 친밀한 국가	117
3. 가장 위협적인 국가	121
4.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희망과 협조의 필요성	126
5. 소결	135

제6장 남한적응실태

1. 서론	140
2.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사회의 포용성	141
3. 자기정체성, 남한사회의 만족도, 취업형태	145
4. 소결	151

제7장 결장

결장	156
----	-----

부록) 집계표 2014	165
설문지 2014	230

표목차

〈표 1-1〉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15	〈표 4-1〉 공식 소득수준	86
〈표 1-2〉 성별 및 연령별 분포	17	〈표 4-2〉 비공식 소득수준	87
〈표 1-3〉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19	〈표 4-3〉 장사경험의 유무 (2008~2014)	89
〈표 1-4〉 탈북 전 최종 거주지	20	〈표 4-4〉 장사 및 개인사업 인구	90
〈표 1-5〉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21	〈표 4-5〉 탈북 후 북한소식 경험의 정도 (2008~2014)	100
〈표 1-6〉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22	〈표 5-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가	118
〈표 1-7〉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23	〈표 5-2〉 성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119
〈표 1-8〉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과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24	〈표 5-3〉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20
〈표 1-9〉 장사활동 경험 유무	25	〈표 5-4〉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120
〈표 1-10〉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27	〈표 5-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22
〈표 1-11〉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28	〈표 5-6〉 성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123
〈표 1-12〉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29	〈표 5-7〉 친밀감과 위협인식 교차표	124
〈표 1-13〉 자녀의 수 분포	29	〈표 5-8〉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125
〈표 2-1〉 통일의 필요성	34	〈표 5-9〉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125
〈표 2-2〉 통일에 대한 염원	35	〈표 5-10〉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127
〈표 2-3〉 통일의 이유 (2014)	37	〈표 5-11〉 미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129
〈표 2-4〉 통일의 방식 (2014)	38	〈표 5-12〉 중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130
〈표 2-5〉 통일 예상시기	40	〈표 5-13〉 일본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131
〈표 2-6〉 통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	41	〈표 5-14〉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협조에 대한 인식	132
〈표 2-7〉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	42	〈표 5-15〉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협조에 대한 인식: 인구학적 특성	133
〈표 2-8〉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의 기대감	44	〈표 5-16〉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협조가 가장 필요한 국가 (2014)	134
〈표 2-9〉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도	47	〈표 5-17〉 북중경협 강화에 대한 인식 (2014)	134
〈표 2-10〉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유대감	48	〈표 6-1〉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142
〈표 2-11〉 통일 후 거주 희망지역	50	〈표 6-2〉 남한사회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	143
〈표 3-1〉 남북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2014)	70	〈표 6-3〉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 교차표 (2014)	144
		〈표 6-4〉 탈북자들의 자기정체성	146
		〈표 6-5〉 남한사회에서의 생활 만족도	148
		〈표 6-6〉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148
		〈표 6-7〉 남한사회에서의 취업형태	150

그림목차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2008~2014)	59
〈그림 3-2〉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2008~2014)	61
〈그림 3-3〉 남북한의 상호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08~2014)	65
〈그림 3-4〉 북핵위협인식 (남북한비교)	66
〈그림 3-5〉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2011~2014)	68
〈그림 3-6〉 대북지원 인지도	71
〈그림 3-7〉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73
〈그림 3-8〉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75
〈그림 3-9〉 대북경제투자에 대한 인식	77
〈그림 4-1〉 타지역 이동경험	93
〈그림 4-2〉 직장 내 생산규율 (2008~2014)	94
〈그림 4-3〉 생활총화 출석률 (2012~2014)	95
〈그림 4-4〉 사회통제 실태	96
〈그림 4-5〉 정부비판행위 (낙서, 삐라 등 / 2008~2014)	97
〈그림 4-6〉 한류접촉경험 (2008~2014)	99
〈그림 4-7〉 개인/집단 우선 가치 (2008~2014)	101
〈그림 4-8〉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2008~2014)	103
〈그림 4-9〉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2008~2014)	106
〈그림 4-10〉 경제침체의 원인	107
〈그림 4-11〉 북한 사회주의 정권 지속 여부 (2012~2014)	109
〈그림 4-12〉 경제체제 선호도 (2008~2014)	110



제1장 서장



1. 서론

2015년은 세계사적으로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전세계는 ‘파시즘의 패퇴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념하고 세계평화를 표방한 유엔체제의 성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준비 중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고 오늘과 같은 평화헌법 하의 일본이 출현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일제의 침략과 수탈 하에 고통을 받던 식민지들이 독립하여 현재와 같은 국제질서가 형성된 지 70년이 되었다는 뜻이다. 동시에 한반도로서는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임을 망각할 수가 없다. 한반도가 해방의 감격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38도선을 기점으로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2015년은 한국민족에게 훨씬 더 복잡하고 당면한 한반도의 현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해로 다가온다.

해방은 1945년의 시점에 겪었던 일회적인 과거의 사건인 반면, 분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장기지속’의 현실이다. 또한 해방과는 달리 분단은 ‘기념’할 일도 아니고 ‘축하’할 일도 아니다. 분단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한반도의 남과 북이 원치 않게 나뉘어져 살아왔고 통일을 염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최근 ‘통일’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논의들이 국내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분단의 역사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새삼스런 자각의 결과인 셈이다. 분단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간주하면서 더 이상 통일한반도의 미래를 꿈꾸지 않는 것은, 불과 70년의 현대사가 남긴 상처로 인해 천년 이상 이어져온 민족적 자부심이 부서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방과 분단의 역사인식은 반드시 통일과 평화의 미래목표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각과 기대, 내면의 희망과 바람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렇다고 시장의 통합이 가져다주는 선물도 아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려는 단합된 의지, 집합적 결단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건설작업이다.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은 너무 다른 환경과 조건 하에서 살아오면서 접촉과 교류가 단절되어서 문화의 이질감 및 가치체계의 불일치가 상당하다. 이 연구는 북한주민들이 통일에 대하여, 남한에 대하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꿈과 열망은 무엇인지, 남한국민들의 통일외식에 비해 어떤 특징과 색깔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려는 작업이다. 현재와 같이 경색된 남북관계 하에서 이런 작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살아오다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존재는 간접적이거나 이런 조사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 연구가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을 밝혀냄으로써 통일의 동력을 키우고 통일의 마음을 열며 통일의 씨앗을 가꾸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조사 배경 및 조사 목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하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통일외식조사』를 수행하여 남한주민의 통일 및 북한 인식, 대북 정책 평가, 주변국 관계 인식, 한국사회의 변화 인식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연구원, 민주평통, KBS 등 국내의 다른 기관에서도 국민들의 통일외식이나 태도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여론조사기관들 역시 단편적이거나 관련 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비해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주민이 정작 통일과 남한 사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나 조사들은 대개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삶과 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을 확인하려는 문제외식 하에 기획된 조사는 아예 부재하다.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수행하는 북한주민 통일외식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하기 직전 북한사회에서의 생각과 판단, 그들이 보고 겪었던 바를 대답하게 함으로써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을 경험적으로 파악하려는 작업이다. 정책적으로도 유용하고 방법론적으로도 의의가 큰 연구라고 자임한다.

북한주민 통일외식조사는 북한지역의 현장조사 형태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방법론 상 여러 가지의 한계점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미 남한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결과가 과연 실제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외식을 대변할 수 있는가라

는 문제제기는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모든 조사방법이 갖는 일정한 한계, 방법상의 특징, 활용 가능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조사는 방법론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제약과 환경 속에서 가능한 방법론적 엄밀성을 최대한 확보하며 남북한 주민 모두의 통일외식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고, 그에 근거하여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은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물론 모든 통계자료가 그렇듯이 얻어진 수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자의적인 과잉해석의 근거로 삼지 않으려는 엄격한 연구윤리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조사의 설문의 내용은 크게 6개의 범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설문 범주는 통일외식이다. 통일외식에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염원도, 통일의 이유, 통일 가능시기 예상, 통일의 집합적·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 대북정책의 통일 기여도, 통일 방식,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유대감, 통일 후 거주지역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는 대남외식이다. 여기에는 남북한 관계외식,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 남한문화의 접촉 여부, 남한문화에 대한 친숙성,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남한의 핵무기 위협수준, 남한의 대북지원 인지 여부, 남한의 대북지원의 효과성,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 남한

의 대북 경제투자 효과성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범주는 북한실태 변화이다. 이 범주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지지도,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 수준, 정치적 비판 행위, 북한체제의 지속가능성,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 장사 인구의 규모, 직장 내 생산규율의 실효성, 생활총화, 경제체제의 선호도, 거주 이동의 자유,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생활비 등의 설문 문항들이 포함된다. 네 번째 범주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으로 2012년 설문조사부터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주변국의 친밀감, 주변국에 대한 위협감, 주변국의 통일 희망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범주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로서 이 설문범주는 2011년 설문조사부터 포함되었다. 이 범주에는 남한출신 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포용성,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생활 만족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현 취업상태, 월평균 수입, 월 평균 근로일수와 일일 평균 근로시간이 포함된다. 마지막 범주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설문이다.

이 설문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현재의 의식이나 태도를 파악하기보다 그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자신 혹은 다른 북한주민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어땠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¹⁾ 따라서 질문의 형식은 다섯 번째 설문 범주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설문 문항은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 …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 …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1) 2014년 설문지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표 1-1〉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단위: 명

조사연도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조사기간	7월	10월	4/15 ~ 6/4	4/6 ~ 6/2	6/13 ~ 7/16	5/20 ~ 7/7
입국연도	응답자	응답자				
2000년 이전	54	78				
2001-2004	87	94				
2005-2008	142	—				
2005-2009	—	175				
무응답	13	23				
탈북연도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2010			103	—	—	—
2011			2	127	—	—
2012			—	—	133	—
2013			—	—	—	149
총계	296	370	105	127	133	149
조사방법	하나원 방문조사		면대면 설문조사			
조사내용						
통일외식	Y	Y	Y	Y	Y	Y
대남외식	Y	Y	Y	Y	Y	Y
북한실태변화	Y	Y	Y	Y	Y	Y
남한적응실태	—	—	Y	Y	Y	Y
주변국인식	—	—	—	Y	Y	Y

〈표1-1〉에 나타나듯이 연도별 표본 구성에 차이가 있다.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경우에는 표집의 기준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시기에 맞춰졌기 때문에 표본의 탈북시기에는 개인차가 상당했다. 이와 같은 표집방법은 표본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용이하지만 탈북시기가 동

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실태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따라서 2011년 조사부터는 표본의 탈북시기를 특정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직전 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표집하였다. 이 경우 연도별 실태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모집단의 규모가 크게 줄면서 표본의 접근성이 매우 낮아져 표집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2011년 이후 조사의 표집방법은 1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원을 돕고 있는 전국의 하나센터와 탈북자단체 및 탈북자지원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표본을 모집하였고, 1차로 모집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눈덩이표집(snowballing) 방법으로 2차 표집을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되었다. 2011년부터 면대면(face-to-face)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연구참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평화연구원을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조사 연구원이 연구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표1-1>에 나타나듯이, 2014년 설문조사의 유효 표본 수는 149명이다.

4. 인구학적 배경변수의 특징

(1) 성별·연령별 분포

<표1-2>는 최근 4년 조사 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여준다. 2014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33.6%, 여성 66.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남성의 비율은 약 10%가 감소했고, 반면에 여성의 비율은 약 10%가 증가했다.²⁾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10대 2.0%, 20대 30.2%, 30대 18.8%, 40대 26.2%, 50대 12.8%, 60대 이상 10.1%를 나타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과 거의 비슷한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2> 성별 및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2011		2012		2013		2014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0대	0(0.0)	0(0.0)	0(0.0)	0(0.0)	1(33.3)	2(66.7)	2(66.7)	1(33.3)
20대	14(38.9)	22(61.1)	23(51.1)	22(48.9)	24(52.2)	22(47.8)	15(33.3)	30(66.7)
30대	11(40.7)	16(59.3)	11(47.8)	12(52.2)	17(58.6)	12(41.4)	13(46.4)	15(53.6)
40대	6(35.3)	11(64.7)	11(32.4)	23(67.7)	11(29.0)	27(71.1)	12(30.8)	27(69.2)
50대	1(7.7)	12(92.3)	5(38.5)	8(61.5)	7(43.8)	9(56.3)	6(31.6)	13(68.4)
60대 이상	4(33.3)	8(66.7)	6(50.0)	6(50.0)	0(0.0)	4(100.0)	2(13.3)	13(86.7)
합계	36(34.3)	69(65.7)	56(44.1)	71(55.9)	59(44.4)	74(55.6)	50(33.6)	99(66.4)

2)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3년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중은 76%이다.

(2)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 및 재북 거주지

응답자들의 탈북년도와 입국년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1-1>에 나타나듯 2011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05명 중 104명은 2010년에 탈북했고, 1명은 2011년에 탈북했다. 이들 중 89명이 2010년에 입국했으며, 14명이 2011년에 입국했다. 2012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27명은 모두 2011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다. 2013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33명의 경우에는 131명이 2012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고, 2명은 2012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3년에 입국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 149명 중 141명이 2013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에 입국했고, 8명은 2013년에 탈북하여 이듬해인 2014년에 입국했다.

각 조사의 응답자들이 탈북하여 입국하기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표1-3>에서 볼 수 있듯, 2011년 평균 3.63개월, 2012년 평균 3.57개월, 2013년 평균 3.37개월, 2014년 평균 2.26개월로 나타나 탈북하여 입국까지의 소요 기간은 해마다 점점 짧아지고 있다. 2014년 조사의 경우에는 탈북과 입국까지의 소요 기간이 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78.5%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탈북 후 바로 남한으로 입국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이러한 탈북 패턴을 반영하여 이들을 ‘직행탈북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 1-3>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단위: %

소요기간 \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1개월 미만	0.0	0.0	0.0	3.4
1개월	2.9	1.6	0.0	26.8
2개월	25.7	18.1	29.3	48.3
3개월	38.1	48.8	47.4	8.1
4개월	14.3	14.2	8.3	2.0
5개월	1.0	6.3	5.3	4.7
6개월	2.9	4.7	1.5	2.7
7개월	5.7	0.8	3.8	2.0
8개월	1.9	2.4	1.5	1.3
9개월	0.0	0.8	0.8	0.7
10개월	2.9	1.6	2.3	0.0
11개월	1.9	0.8	0.0	0.0
무응답	2.9	0.0	0.0	0.0
평균(개월)	3.63	3.57	3.37	2.26
합계(N)	105	127	133	149

응답자의 탈북하기 전 최종 거주지 분포에서는 지역적 편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1-4>에 나타나듯, 응답자 중 다수가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인데, 각 조사에서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0.5%, 2012년 81.9%, 2013년 82.5%, 2014년 83.9%이다.³⁾ 이러한 응답자의 지역적 편중현상은 탈북 현상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5월말 입국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지 중에서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비중은 각각 64.1%, 11.8%를 차지한다.

〈표 1-4〉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명(%)

	2011	2012	2013	2014
평양	0(0.0)	0(0.0)	1(0.8)	3(2.0)
개성	0(0.0)	0(0.0)	0(0.0)	0(0.0)
남포	0(0.0)	1(0.8)	0(0.0)	2(1.3)
평안남도	5(4.8)	0(0.0)	2(1.5)	4(2.7)
평안북도	0(0.0)	1(0.8)	6(4.5)	0(0.0)
함경남도	4(3.8)	14(11.0)	11(8.3)	9(6.0)
함경북도	55(52.4)	65(51.2)	51(38.6)	53(35.6)
자강도	0(0.0)	0(0.0)	0(0.0)	1(0.7)
양강도	40(38.1)	39(30.7)	58(43.9)	72(48.3)
황해남도	0(0.0)	3(2.4)	0(0.0)	1(0.7)
황해북도	1(1.0)	3(2.4)	1(0.8)	2(1.3)
강원도	0(0.0)	1(0.8)	2(1.5)	2(1.3)
무응답	0(0.0)	0(0.0)	1(0.8)	0(0.0)
합계(N)	105	127	133	149

〈표 1-5〉 북한에서의 교육수준별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대학교	11.4	10.2	16.5	13.6
전문학교	21.0	18.1	11.3	18.0
고등중학교	66.7	65.4	71.4	66.7
인민학교	1.0	3.2	0.0	1.6
무학	0.0	1.6	0.8	0.6
무응답	-	1.6	-	-
합계(N)	105	125	133	147

(3) 교육수준 · 직업 분포

네 차례의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 분포를 보면, 고등중학교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각 조사에서 고등중학교 학력의 응답자 비중은 2011년 66.7%, 2012년 65.4%, 2013년 71.4%, 2014년 66.7%로 나타났다. 남한의 전문대학교에 상응하는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비중은 2011년 32.4%, 2012년 28.3%, 2013년 28.8%, 2014년 31.6%로 나타나 고학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도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북한에서의 직업 분포를 보면, <표1-6>에 나타나듯 노동자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다. 2011년 27.6%, 2012년 37%, 2013년 31.6%, 2014년 30.6%로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의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 범주는 각 조사에서 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사무원(12.4%)이, 2012년에는 장사(11.1%)와 주부(11.1%)가, 2013년에는 주부(16.5%)가, 2014년에도 주부(19.1%)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업이었다. 특히 주부가 3년 연속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무직부양의 비중이 높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⁴⁾ 반면 전문가, 군인, 농민과 같은 직업 종사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눈에 띄는 변화는 2011년 조사 이후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 비중이 많이 감소했던 사무원이 2014년에 다시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5월말 입국자를 기준으로 하여 남한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북한이탈주민들의 재직 직업분포 현황을 보면 무직부양에 해당하는 비중이 48.4%이다.

<표 1-6> 북한에서의 직업별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노동자	27.6	37.0	31.6	30.6
농민	8.6	8.7	3.8	7.5
사무원	12.4	4.7	9.8	12.2
전문가(교원, 의사, 기술자 등)	7.6	7.1	8.3	3.4
학생	6.7	6.3	6.0	7.5
군인	5.7	3.9	4.5	4.8
외화벌이일군	1.0	2.4	2.3	0.0
장사	10.5	11.1	13.5	4.8
주부	10.5	11.1	16.5	19.1
무직 및 기타	3.8	6.3	3.8	10.2
무응답	5.7	1.6	-	-
합계(N)	105	127	133	147

(4) 당원 가입 여부

<표1-7>에 나타나듯 북한에서 당원이었던 응답자의 비중은 2014년 조사에서 13.5%에 불과하고, 반면에 비당원의 비중은 85.8%를 차지한다. 연도별 당원과 비당원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조사에 당원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직업 분포를 보면, 노동자 35.0%, 사무원 20.0%, 군인 15.0% 순서로 비중이 나타났다. 네 차례의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을 모두 합한 경우에서도 직업별 당원 비중을 보면, 노동자>사무원>군인 순서로 비중이 많이 나타났다. 반면 농민, 장사, 외화벌이 직업의 경우 당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표 1-7>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당원	9.5	14.4	14.3	13.5
후보당원	1.0	0.0	0.0	0.7
비당원	85.7	84.3	85.7	85.8
무응답	3.8	1.6	-	-
합계(N)	105	127	133	147

(5) 북한에서의 경제활동

북한주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원적인 수입 경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조사 역시 북한주민의 경제활동 및 생활수준을 이해하기 위하여 ‘공식 월수입’과 ‘비공식 월수입’을 나누어 조사했다. 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 수준은 4년 연속 500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1-8>에 나타나듯이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월수입이 5000원 이하라는 응답률은 2011년 45.1%, 2012년 43.4%, 2013년 37.4%, 2014년 26.2%로 4년 사이에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에 공식 월수입이 0원이라는 응답률은 2011년 32.9%, 2012년 30.2%, 2013년 52.7%, 2014년 61.1%로 최근 2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이 결과는 직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공식 월수입은 고소득의 응답비율의 비중과 소득이 없는 응답비율의 비중이 동시에 많은, 다소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1-8>에서 볼 수 있듯 비공식 월수입의 경우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50만원 이하로 2011년 23.2%, 2012년 40.4%, 2013년 40.6%, 2014년 30.3%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비공식 월수입 중 0원이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다. 2011년 22.0%, 2012년 19.3%, 2013년 25.0%, 2014년 23.2%가 비공식 월수입이 0원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식 소득 부분에서보다 비공식 소득 부분에서 훨씬 더 불평등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주민의 경제활동에서 시장의 역할이 커지면서 비공식적 월수입의 편차도 커지고, 이에 따라 북한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8〉 북한에서의 공식 월수입과 비공식 월수입의 분포

단위: 명(%)

공식 월수입	조사년도				비공식 월수입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0원	27 (32.9)	32 (30.2)	69 (52.7)	91 (61.1)	0원	18 (22.0)	21 (19.3)	32 (25.0)	33 (23.2)
1000원 이하	7 (8.5)	10 (9.4)	2 (1.5)	13 (8.7)	1000원 이하	6 (7.3)	0 (0.0)	3 (2.3)	4 (2.8)
5000원 이하	37 (45.1)	46 (43.4)	49 (37.4)	39 (26.2)	5000원 이하	7 (8.5)	2 (1.8)	0 (0.0)	2 (1.4)
1만원 이하	2 (2.4)	4 (3.8)	5 (3.8)	2 (1.3)	1만원 이하	2 (2.4)	2 (1.8)	3 (2.3)	2 (1.4)
10만원 이하	6 (7.3)	9 (8.5)	0 (0.0)	3 (2.0)	10만원 이하	18 (22.0)	25 (22.9)	9 (7.0)	26 (18.3)
50만원 이하	2 (2.4)	5 (4.7)	4 (3.1)	0 (0.0)	50만원 이하	19 (23.2)	44 (40.4)	52 (40.6)	43 (30.3)
100만원 이하	1 (1.2)	0 (0.0)	2 (1.5)	0 (0.0)	100만원 이하	6 (7.3)	8 (7.3)	10 (7.8)	17 (12.0)
100만원 초과	0 (0.0)	0 (0.0)	0 (0.0)	1 (0.7)	100만원 초과	6 (7.3)	7 (6.4)	19 (14.8)	15 (10.6)
무응답	23 (21.9)	21 (16.5)	2 (1.5)	0 (0.0)	무응답	23 (21.9)	18 (14.2)	2 (1.5)	2 (1.4)
합계(N)	105	127	133	149	합계(N)	105	127	133	144

북한주민들이 비공식 수입을 획득하는 주요 경제활동은 장사이다. <표 1-9>를 보면 응답자들의 10명 중 7명이 북한에서 장사 경험이 있다. 장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8.6%, 2012년 69.3%, 2013년 74.4%, 2014년 69.8%로 조사 연도별로 약간씩의 응답률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 수준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별 장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4년간 통합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직업별 장사 경험의 응답률을 보면, 노동자 68.9%, 농민 50.0%, 사무원 67.3%, 전문가 62.5%, 학생 44.1%, 군인 50.0%, 외화벌이 85.7%, 가정부인 93.3%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주민들 중 장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직업군은 가정부인으로, 가정부인의 10명 중 9명이 이상이 장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생, 농민, 군인은 장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9〉 장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

장사 경험	2011	2012	2013	2014
있다	68.6	69.3	74.4	69.8
없다	27.6	29.9	25.6	30.2
무응답	3.8	0.8	-	-
합계(N)	105	127	135	149

(6) 탈북 후 정보접근성 및 남한 친척의 유무

이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 내부의 정보나 소식을 얼마나 자주 접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표1-10>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후에도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내부 소식을 ‘조금씩’ 또는 ‘거의 대부분’ 접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2011년 68.5%, 2012년 78.8%, 2013년 79.7%, 2014년 82.6%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한 간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남한의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사이의 정보교류에서 휴대폰은 중요한 매개체이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집트 이동통신사인 오라스콤(Orascom)과 북한 조선체신회사의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고려링크를 이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200만 명에 이르며, 평양을 포함한 15개 주요 도시와 86개의 작은 도시까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⁵ 북한사회에서 정보통신 매체가 빠르게 보급되는 현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내부의 구성원 간의 정보교류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직행탈북자’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이 된다. 북한 내부 구성원은 이미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탈북 방법 및 탈북 경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탈북 후 입국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였다.

5] 미국의소리,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 (2014).

<표 1-10>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2011	2012	2013	2014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3.3	19.7	22.6	24.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5.2	59.1	57.1	57.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8.6	21.3	20.3	17.5
무응답	2.9	-	-	-
합계(N)	105	127	133	149

탈북 전 남한 거주 친척의 유무는 위에서 언급한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과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시간 등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년간의 조사결과에서, 탈북 후 북한 소식에 대한 접근성은 점차 높아지고 또한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 시간이 점차 단축되는 것과 동시에, 탈북 전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있었다는 응답률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1-11>에서 나타나듯이 탈북하기 전에 남한에 친척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8.1%, 2012년 62.2%, 2013년 65.4%, 2014년 69.1%로 4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남한에 친척 유무와 탈북 후 입국까지의 기간을 교차분석해 본 결과,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는 탈북 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이 친척이 없는 경우보다 더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는 남한에 먼저 거주한 가족이나 혹은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새로이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의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1〉 탈북 전 남한 친척의 유무

단위: %

	2011	2012	2013	2014
없다	39.1	37.8	34.6	30.9
있다	58.1	62.2	65.4	69.1
무응답	2.9	-	-	-
합계(N)	105	127	133	149

(7) 가족생활

응답자들의 현재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표1-12>에서 보듯이 4년 동안 미혼자가 크게 감소했다. 현재 미혼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52.4%, 2012년 45.7%, 2013년 37.6%, 2014년 30.9%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결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여, 2011년 41.9%, 2012년 44.1%, 2013년 53.4%, 2014년 55.0%로 나타났다. 결혼상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또한 결혼 상태의 응답비율이 증가한 데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정책이 가족 단위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의 비중도 4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이혼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0.0%, 2012년 9.5%, 2013년 9.0%, 2014년 14.9%로 나타났다. 이혼 응답비율은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연령대에서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또는 가족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 접근 및 정책 수립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항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12〉 혼인 상태에 따른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미혼	52.4	45.7	37.6	30.9
결혼 (동거포함)	41.9	44.1	53.4	55.0
이혼	0.0	9.5	9.0	14.9
무응답	5.7	0.8	-	-
합계 (N)	105	127	133	149

응답자의 자녀수를 파악한 결과, <표1-13>에서 나타나듯 0명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많다. 2014년 조사에서 1명이라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3순위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2명이라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혼 상태에 있는 응답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사례가 2012년 및 2013년 조사에서는 각각 12명이었던 것이 2014년 2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혼 상태에 있지만 자녀가 있는 응답자들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13〉 자녀의 수 분포

단위: %

	2011	2012	2013	2014
0명	22.9	24.4	38.4	34.2
1명	27.6	27.6	32.3	27.5
2명	17.1	19.7	24.1	29.5
3명	5.7	7.1	4.5	6.7
4명	3.8	1.6	0.8	1.3
5명	-	-	-	0.7
무응답	22.9	19.7	-	-
합계 (N)	105	127	133	149



제2장 통일외식



1. 서론

남북관계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통일에 대한 남한주민의 열망은 해가 갈수록 점점 약화되고 있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언급하면서 사회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7월에 실시한 전국 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8%로 전체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은 어떤 수준일까. 통일이 남북한 주민이 함께 달성해야 하는 민족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남한주민의 통일외식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을 파악하려거나 이해하려고는 노력하지 않았다. 물론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을 조사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최근에 북한을 떠나 온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북한주민의 통일외식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11년부터 매해 통일연도에 탈북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통일외식을 조사하고 있다.

흔히 통일 이후 제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을 들곤 한다. 사회통합은 사회의 공통적 가치를 사회체계의 구조적 요소 안에 제도화되고, 공통의 가치모범과 행동지향을 내면화할 때 성취가능하다. 따라서 통일 이후 사회통합 역시 남북한 주민이 의사소통적 상호 이해를 통해 사회의 공통 가치에 대한 동의 또는 합의를 성취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⁶⁾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간의 의사소통적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상대방의 외식 구조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 이전 북한주민이 생각하는 통일관, 통일 이후의 사회상,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국가의 정치사회 체제에 대한 예상 등을 파악하는 것은 통일의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을 대비하고 완화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에 생각했던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에 대한 염원, 통일의 이유, 통일 방식과 통일 예상 시기, 통일 편익에 대한 집합적·개인적 기대감,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대북정책별 통일에 대한 기여도, 통일 후 남북한 주민 간 사회통합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⁷⁾

6) 정은미, "남남갈등 극복을 위한 대북정책 합의기반 강화방안",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136-137.

7) 통일의 이유와 통일 방식에 관한 설문 문항은 올해 조사에서 추가된 것이다.

2. 통일의 필요성과 기대감

(1)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

북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절대적이다.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98%, 2012년 93.7%, 2013년 93.3%, 2014년 100%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체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같은 해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동일 질문의 응답 결과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8%로 나타나 남북한 주민의 통일외식의 격차를 뚜렷하게 보여준다.⁸⁾

〈표 2-1〉 통일의 필요성

단위: %

	2011	2012	2013	2014
필요함	95.2	93.7	93.2	100
그저 그렇다	3.9	5.5	6.0	0.0
필요하지 않음	1.0	0.8	0.8	0.0
합계 (N)	104	127	133	149

하지만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통일을 원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드시 통일을 원한다고 할 수는 없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응답자가 처한 상황이

8)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외식조사의 결과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4년 10월 1일에 발표한 “통일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2014년 통일외식조사 발표” 보고서를 참조함.

나 처지에 따라 통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에서도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문항은 응답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질문한 반면에, 통일의 염원에 대한 문항은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적었다. 즉 통일의 염원에 관해서는 ‘북한주민’이는 일반화된 타자의 생각을 질문한 것이다.

응답 결과, 통일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인식과 제3자의 인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북한주민 중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율은 2011년 99%, 2012년 99.2%, 2013년 97.8%, 2014년 97.4%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증가세에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격차는 필요성과 염원의 차이에서 온 점도 있지만, 질문이 초점을 맞춘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통일의 필요성은 직접적으로 응답자 자신의 인식을 묻은 것이지만 통일의 염원은 북한주민이라는 일반화된 타자의 인식을 묻는 것이었다. 따라서 후자에 비해 전자의 경우 좀 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응답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 후자의 질문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범적 압박이 덜 하기 때문에 보다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다.

〈표 2-2〉 통일에 대한 염원

단위: %

	2011	2012	2013	2014
원함	99.0	99.2	97.8	97.4
원하지 않음	1.0	0.8	2.3	2.6
합계 (N)	105	127	133	149

3. 통일의 이유

통일의 이유에 대한 문항은 올해 설문조사에서 처음 추가된 질문이다. 설문참가자에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응답한 결과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 47.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같은 민족이니까’(24.1%)이고,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하여’가 11.7%로 세 번째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인식을 비교해보면 남한주민에 비해 북한주민의 통일인식이 훨씬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동일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같은 민족이니까’(42.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하여’(26.9%)이고,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7.6%)로 나타나 남북한 주민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한주민에게 통일의 동인(動因)이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면, 북한주민은 자신이 잘 살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도구주의적(instrumentalist)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남북한 주민 모두 통일의 이유로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는 북한주민 7.6%, 남한주민 8.8%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대화에서 이산가족의 문제가 주요 의제로 제기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산가족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집단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이산가족의 문제가 통일의 강한 동인(動因)이 되지 못함을 시사한다.

〈표 2-3〉 통일의 이유 (2014)

단위: %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남북간 전쟁 위험 해소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북한의 선진국 도약	합계(N)
24.1	7.6	11.7	47.6	8.3	145

4. 통일의 방식과 예상 시기

앞서 살펴본 통일의 이유 문항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방식에 대한 질문 역시 올해 설문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설문참가자에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여 응답한 결과,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의 응답률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일이 이뤄지지만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31.8%)는 통일지상주의적 입장이 두 번째로 많았고, 뒤를 이어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21.6%)는 절충형 통일을 선호하는 응답이 세 번째로 많았다. 반면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응답비율은 2.0%에 불과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을 나타냈다. 또한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는 응답비율은 4.7%로 나타나 북한당국이 공식적

으로 주장하고 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에 대해 북한주민이 그다지 공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해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동일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통일한국의 체제가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률이 44.9%로 가장 높아 통일 방식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인식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반면에 남한주민의 경우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통일지상주의적인 입장이 4.1%로 매우 낮는데 반해 북한주민에게는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은 대조적이다. 이 차이는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더욱 통일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4〉 통일의 방식 (2014)

단위: %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	남북한의 체제 절충	남북한 두 체제 공존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음	합계(N)
2.0	21.6	4.7	39.9	31.8	148

다음으로 북한주민에게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통일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응답자가 북한체제의 안정성 또는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결과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일단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5.3%로 가장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된 응답결과를 통해 우리는 북한주민이 얼마나 통일을 필요로 하고 염원하는가를 확인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의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

들이 예상하는 통일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은 그만큼 현 북한체제에서 통일의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북한주민의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북한의 세습적인 권력 승계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다는 점이다.

통일에 대한 회의적 생각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 된 이후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표2-5>를 보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이 2011년 26.9%에서 2012년 43.3%로 크게 증가했고, 또 김정은으로 권력이 승계된 이후에도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나타내는 응답은 ‘5년 이내’(18.9%),이고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응답의 비율은 18.2%로 세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이 두 응답 역시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일 가능시기에 대한 북한주민의 응답 패턴은 양극화되어 있다. 즉, 통일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10년 이내 짧은 시기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같은 해 실시된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동일 질문의 응답 패턴은 대체로 분산적이어서 특정 항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9%로 가장 높다는 점에서는 통일의 가능시기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인식이 공통적이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20년 이내’ 22.5%, ‘30년 이상’ 19.8%, ‘30년 이내’ 17.7%로 나타나 남한주민은 통일을 비교적 시간이 많이 드는 과제로 전망하고 있었다. ‘5년 이내’(2.3%)나 ‘10년 이내’(13.8%)와 같이 단기 전망의 비율은 매우 낮다.

〈표 2-5〉 통일 예상시기

단위: %

	2011	2012	2013	2014
5년 이내	20.2	11.8	12.0	18.9
10년 이내	30.8	29.1	22.6	18.2
20년 이내	12.5	8.7	8.3	9.5
30년 이내	2.9	1.6	4.5	3.4
30년 이상	6.7	5.5	8.3	4.7
불가능하다	26.9	43.3	44.4	45.3
합계 (N)	104	127	133	148

5. 통일에 대한 기대감

(1)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통일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 후의 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경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북한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이 가져올 이익(통일 편익)을 북한 사회 전체 측면과 개인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통일이 북한 사회 전체에 가져오는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연도별 응답 결과를 보면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률이 2011년 100%, 2012년 96.9%, 2013년 99.3%, 2014년 98.0%로 나타나 응답자 거의 대부분이 통일이 북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동일 질문에 대해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5.9%인 점을 감안하면, 통일 편익에 대한 남북한 주민간의 기대감은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주민은 대개 통일이 현재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한주민은 통일 편익은 물론 통일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비용(또는 부담)을 동시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남북한 주민간의 격차가 발생한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6〉 통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

단위: %

	2011	2012	2013	2014
이익이 됨	100.0	96.9	99.3	98.0
이익이 안됨	0.0	3.2	0.8	2.0
합계 (N)	105	127	133	149

다음으로, 통일이 가져다 줄 개인적 이익의 기대감을 살펴보기로 한다. 통일 편익에 대한 집합적 이익의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의 기대감은 다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통일을 당위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 후자의 경우는 통일을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로 인한 개인적 이익의 기대감이 높을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통일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북한사회에

가져다 줄 이익의 기대감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95.2%, 2012년 94.5%, 2013년 95.5%, 2014년 98.0%로 4년 연속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흥미로운 점은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통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의 기대감 사이의 응답률 격차가 2011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 주민의 경우에는 양자 간의 응답률 격차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 대조적이다. 특히 2014년의 경우에는 통일이 가져다 줄 집합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의 기대감이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일 편익에 대한 북한주민의 높은 기대감은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나 국면이 전개되었을 때, 즉, 통일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북한주민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할 것이다.

〈표 2-7〉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

단위: %

	2011	2012	2013	2014
이익이 됨	95.2	94.5	95.5	98.0
이익이 안됨	4.8	5.5	4.5	2.0
합계 (N)	105	127	133	149

(2)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 이전에 제기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들(빈부격차, 실업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이 통일 이후에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하는가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위에서 분석했던 통일 편익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격차를 나타냈다. 흥미로운 것은 빈부격차나 실업문제와 같이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된 경우에는 개선 기대감이 높은 반면에, 지역갈등이나 이념갈등과 같이 사회통합적인 문제에 관련된 경우에는 개선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빈부격차가 통일 이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률이 2011년 82.7%, 2012년 79.9%, 2013년 86.5%, 2014년 85.3%로 나타나 4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83.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 역시 2011년 87.7%, 2012년 80.5%, 2013년 90.1%, 2014년 90.0%로 나타나 4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87.1%로 매우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집권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두 차례의 조사(2013년과 2014년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김정일의 집권 시기에 살았던 북한주민들의 기대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이다.

다음으로 지역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은 2011년 53.7%, 2012년 49.6%, 2013년 54.5%, 2014년 49.0%로 나타나 4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51.7%로 앞서 살펴본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개선 기대감에 비해 현격히 기대수준이 낮아졌다. 여기서 북한주민이 예상하는 지역갈등은 남한사회의 영호남 갈등이라기보다는 남한지역과 북한지역 사이의 갈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 간 갈등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념갈등 개선

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은 2011년 63.9%, 2012년 53.3%, 2013년 60.6%, 2014년 56.0%로 나타나 4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58.5%이다. 이념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 수준이 바로 앞서 살펴본 지역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경제 분야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비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기대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 이후의 이념갈등은 통일 이전에 보였던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와 같은 체제대결로부터 기인하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짧지 않은 분단 기간 동안 남북한 주민이 각각 내재화한 문화와 규범 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갈등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해에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와 비교해보면 빈부격차나 실업문제 등 경제분야와 관련된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에, 지역갈등이나 이념갈등과 같이 사회통합과 관련된 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점은 남한주민도 북한주민의 응답결과와 유사한 응답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표 2-8〉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의 기대감

단위: %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빈부격차	2011	58.2	24.5	5.1	5.1	7.1
	2012	55.7	24.2	7.3	7.3	5.7
	2013	62.4	24.1	3.8	2.3	7.5
	2014	61.1	24.2	4.7	2.7	7.4
실업문제	2011	66.3	21.4	1.0	7.1	4.1
	2012	61.8	18.7	9.8	4.1	5.7
	2013	72.5	17.6	2.3	3.8	3.8
	2014	70.5	19.5	2.0	4.0	4.0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지역갈등	2011	28.4	25.3	12.6	20.0	13.7
	2012	26.5	23.1	14.9	19.0	16.5
	2013	30.3	24.2	10.6	26.5	8.3
	2014	28.9	20.1	13.4	25.5	12.1
이념갈등	2011	41.2	22.7	10.3	10.3	15.5
	2012	36.1	17.2	14.8	18.9	13.1
	2013	43.9	16.7	10.6	20.5	8.3
	2014	41.2	14.8	8.7	20.1	13.4

6.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도

남한사회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통일에 기여하는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와 관점들이 충돌하기도 한다. 남한사회 안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남남갈등’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주민들은 대북정책과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까?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한간 회담)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응답률을 비교해보면, 인도적 지원의 기여도가 가장 낮고, 정상회담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이와 같은 응답패턴은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9) 이와 같은 응답결과에 대한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질문에 “북한에 살고 계실 때”라는 문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북한주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응답했다기보다 북한 이탈주민, 즉 남한주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와도 유사하다. 같은 해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동일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인도적 지원의 기여도가 가장 낮았고, 정기적인 남북한간 회담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먼저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8.6%, 2012년 65.3%, 2013년 64.7%, 2014년 67.1%로 4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66.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83.8%, 2012년 80.3%, 2013년 82.6%, 2014년 81.2%로 4년간 평균 응답률이 82.0%로 나타났다.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79.2%, 2012년 82.5%, 2013년 80.5%, 2014년 82.6%로 4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81.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남북한간 회담이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78%, 2012년 79.8%, 2013년 88.0%, 2014년 86.6%로 4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83.1%로 나타났다.

4년간의 평균 응답률을 기준으로 높은 응답률 순서로 나열하면 정기적인 남북한간 회담,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인도적 대북지원 순이다.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협력이 오히려 북한 체제를 공고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에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질문이 “북한에 살고 있을 때”로 한정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사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한다.

〈표 2-9〉 대북정책별 통일 기여도

단위: %

		매우 도움 (A)	다소 도움 (B)	A+B	별로 도움안됨 (C)	전혀 도움안됨 (D)	C+D
인도적 지원	2011	58.1	10.5	68.6	22.9	8.6	31.4
	2012	44.4	21.0	65.3	19.4	15.3	34.7
	2013	48.9	15.8	64.7	17.3	18.1	35.3
	2014	55.0	12.1	67.1	20.1	12.8	32.9
사회문화교류	2011	52.5	31.3	83.8	13.1	3.0	16.2
	2012	44.3	36.1	80.3	13.9	5.7	19.7
	2013	46.2	36.4	82.6	13.6	3.8	17.4
	2014	37.6	43.6	81.2	16.1	2.7	18.8
경제협력	2011	54.5	24.8	79.2	13.9	6.9	20.8
	2012	49.2	33.3	82.5	15.1	2.4	17.5
	2013	55.6	24.8	80.5	12.8	6.8	19.6
	2014	53.7	28.9	82.6	12.8	4.7	17.5
정기적인 남북한간 회담	2011	52.0	26.0	78.0	18.0	4.0	22.0
	2012	53.2	26.6	79.8	16.1	4.0	20.2
	2013	57.9	30.1	88.0	6.8	5.3	12.0
	2014	61.1	25.5	86.6	11.4	2.0	13.4

7. 통일 후 사회통합

(1)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유대감

일반적으로 통일 논의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통합의 주체로서 북한주민의 인식은 그동안 사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북한주민은 통일 후 남북

한 주민들이 서로 어떻게 어우러져 생활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조사했다. “귀하는 통일이 되면 남한출신 주민과 북한출신 주민이 어떻게 지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 또는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4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각각 35.5%와 44.8%로 나타났다. 반면에 ‘별로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또는 ‘전혀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4년간의 평균 응답률이 각각 18.6%, 1.1%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처럼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유대감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이 부정적인 기대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라는 적극적인 긍정의 응답보다는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것이다’라는 소극적인 긍정의 응답이 더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남한사회에 거주하기 시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에서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착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라면 질문에 대한 응답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다.

〈표 2-10〉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유대감

단위: %

	2011	2012	2013	2014	평균 응답률
매우 잘 어울려 지냄	36.9	34.7	36.8	33.6	35.5
그럭저럭 어울려 지냄	43.7	39.4	50.4	45.6	44.8
별로 어울려 지내지 못함	19.4	25.2	10.5	19.5	18.6
전혀 어울려 지내지 못함	0.0	0.8	2.3	1.3	1.1
합계 (N)	103	127	133	149	

(2) 통일 후 거주 희망 지역

북한이탈주민이 통일 이후 거주지의 선택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다. 특히 북한지역을 택할 경우, 그것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남한사회로의 통합 실패로 볼 것인가? 또한 북한도 남한도 아닌 외국에 나가 살 것이라는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연구참여자들에게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6%가 북한을, 40.1%가 남한을 선택했다. 북한을 떠나 남한사회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 이내의 응답자들이라는 특징을 감안했을 때, 북한을 선택한 응답률이 상당히 높게 느껴진다. 또한 ‘남쪽이든 북쪽이든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라며 최종 거주지 선택을 유보한 응답률 역시 28.6%에 이른다. 반면에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라는 선택을 한 응답률은 0.7%에 불과하다.

통일 후 남한지역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에, 선택을 보류하고 있는 응답은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한편으로는 통일 이후 대규모 북한인구가 남한사회에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통일 이후 남한사회가 북한주민에게 유일한 정착지가 아닌 다양한 거주지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일깨운다.

〈표 2-11〉 통일 후 거주 희망지역

단위: %

	2011	2012	2013	2014
북한	28.9	32.3	27.8	30.6
남한	45.2	45.7	46.6	40.1
상황에 따라 선택	25.0	20.5	23.3	28.6
외국	1.0	1.6	2.3	0.7
합계 (N)	104	127	133	147

8. 소결

4년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주민의 통일인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에게 통일은 절박하지만 통일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의 열망은 압도적인 수준으로 응답자 거의 모두가 통일이 필요하며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는 김정은으로 권력이 승계된 이후에 더욱 증가하였다.

둘째, 규범적 통일인식은 약화되고 현실주의적 또는 도구주의적 통일인식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 통일의 이유에 대한 설문 문항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는데, 응답 결과를 보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서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이유는 '같은 민족이니까'였다. 그러나 전자의 응답률이 후자의 응답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두 항목

의 응답률 격차는 북한주민에게 통일은 '같은 민족'이라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이유보다는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 절실함을 보여준다.

셋째, 통일 후 사회에 대한 이상주의적 기대감이 높다. 통일 편익에 대한 북한주민의 기대감은 압도적인 수준으로 높다. 응답 결과만을 놓고 보면 그야말로 통일은 북한사회와 북한주민 개인에게 '대박'을 의미한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은 통일 후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등이 통일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8명 가까이는 통일 후에 남북한 주민들이 잘 어울려 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통일 후 지역갈등이나 이념갈등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정도만이 기대해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북정책에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의 효과보다 남북한 당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의 효과가 더 크다고 인식한다. 대북정책별 통일기여도를 4년간의 평균 응답률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정기적인 남북한 간 회담>사회문화 교류>경제협력>인도적 대북지원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다. 하지만 이 응답결과가 반드시 북한주민이 남한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설문 문항의 경우 다른 질문들과 달리 직접적으로 '북한에 살고 있을 때'라는 공간적·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통일 후 남한사회에 대한 북한주민의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조사에 통일 방식에 대한 질문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는데, 남

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응답의 비중은 응답자 10명 중 3명 정도에 그쳤다. 나머지의 응답자들은 남북한의 체제를 절충하거나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항목을 선택했다. 또한 통일 후에도 남한지역에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응답자 1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의 응답자들은 북한지역을 선택하거나 특정 지역의 선택을 유보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통일의 과정이나 통일의 결과로서 남한사회가 반드시 북한주민의 유일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남한사회가 갖는 통일의 유인력(誘因力)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제3장 대남인식¹⁰



1. 서론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을 파악하는 작업은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무척 중요하다. 통일이란 궁극적으로 북한주민이 남한의 체제를 선택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체제를 동경하여 서독과의 통일을 열망했듯이 한반도 통일도 북한주민들이 남한과의 통일을 열망함으로써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 북한 주민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특히 남한을 통일의 미래대안으로 여기고 있는가는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남한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무력충돌에 대한 위협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남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과 교류 및 지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가늠해 보면 통일이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0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주민의 대남인식변화" 『통일평화』 6집 2호(2014), pp. 38~65.를 수정, 보완함.

그러나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북한에서 산출하는 공식 통계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그러한 자료들이 증언 자료로 간혹 입수되기는 하지만 대표성 및 객관성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로동신문』이나 저널의 논문, 소설도 유익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을 온당히 파악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데일리NK나 임진강 등의 기관에서 북한 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통화하며 확보하는 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정세분석 자료는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과 같은 권위 있는 북한 연구기관에서는 탈북자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북한실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많은 자료들은 여러 유익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종합화가 어렵고 비교분석의 근거도 취약하다.

문제와 한계를 고려하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북한주민통일외식조사」는 북한연구의 과학화와 자료의 종합화라는 측면에서 그 위상은 독보적이다. 2008년과 2009년에는 하나원 교육생들을 표본으로 하였지만, 2011년부터 북한의 실상을 가장 최근에 경험한 탈북자, 즉 북한을 탈출한지 1년~1년 4개월 미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탈북자 의식조사 자료에 대해서 그들이 북한체제를 이탈했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법적으로 적대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지역으로 입국했다는 점 때문에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5년 이상 축적되어 일정한 경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해석과 활용에 신중을 기한다면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흐름을 추적하는 데서 매우 유익

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최근 북한거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언론사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도, 극히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탈북자를 통한 북한주민 의식조사의 유용성은 매우 크다.

2. 남한의 존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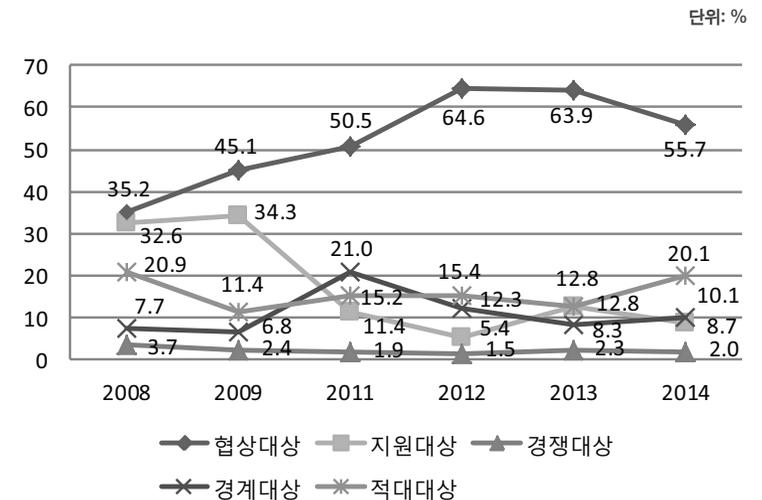
(1) 북한주민의 남북관계 인식

북한주민들에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지원대상),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협력대상),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경쟁대상), ‘경계해야 할 대상’(경계대상),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적대대상)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결과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작년에 비해 ‘협력대상’이라는 생각이 줄고 ‘적대대상’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을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3.9%→55.7%로 8.2%p 감소한 반면,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은 12.8%→20.1%로 7.3%p 증가하였다.

북한주민의 대남 협력대상 인식이 줄고 적대대상 인식이 늘어난 것은 지난 1년 동안 초긴장 국면에서 대결적 관계를 지속했던 남북관계의 현실과 북한당국의 대남비난 선전활동이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3년 3월 5일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최후 결전의 시각이 왔다”며 긴장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8일 ‘남북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와 함께 군통신선 차단과 개성공단 반입 차단을 실행에 옮기고 영변의 핵원자로 재가동과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은 B-52와 F-22, 해상 레이더 기지 파견 등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동원된 위협적 무기들에 대한 대응으로 이처럼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당국은 2013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포함하여 대남 적개심을 고취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주민들의 대남 ‘적대의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긴장된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남비난을 전개한 북한당국의 선전활동이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2008~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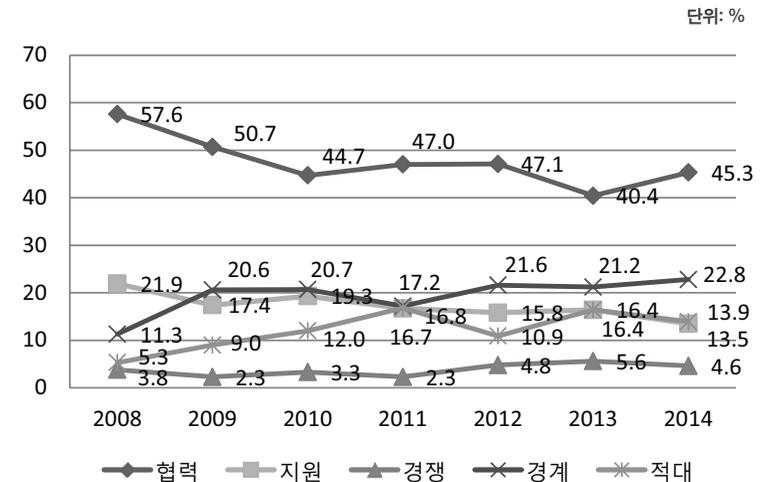
북한주민의 남한을 보는 시각이 변화된 데에는 재입북 탈북자의 영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당국은 북한으로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기자회견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북한주민들이 탈북과 남한사회에 대한 환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2012년 7월 박정숙 씨로부터 2013년 1월 김광호씨 부부 등 기자회견을 열어 남한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을 전개하였다. 북한매체에 공개된 재입북 탈북자는 13명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탈북자가 북한으로 재입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재입북 탈북자를 통한 북한당국의 활동은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두려움과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남한을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북한주민들의 대남 적대인식이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한당국의 대남비난 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55.7%는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또한 현실이다. 주민들의 이러한 협력적 남북관계 인식은 현재의 위태로운 남북관계가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남북관계의 안정과 협력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지난 1년 동안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변화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3-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은 지난 1년 동안 ‘협력대상’ 인식이 40.4%→45.3%로 증가한 반면, ‘적대대상’ 인식은 16.4%→13.5%로 감소하였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남한주민들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간주한 것은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희망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2>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2008~201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인식을 살펴보면 북한주민의 협력적 대남인식(55.7%)이 남한주민의 협력적 대북인식(45.3%)보다 높게 나타난다.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의 주민들보다 더 상대를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상은 지난 수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남한발 안보불안도 남한주민들의 북한발 안보불안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북한은 남한이 북한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한을 덜 위협적이며 덜 불안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주민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보다 북한주민이 남한을 더 협력적이며 덜 위협적으로 바라보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 조사대상이 탈북자라는 점에서 오는 한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4년 7월 『조선일보』가 친인척 방문 혹은 사업상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2.0%였고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은 41.0%,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대상이라는 응답은 56.0%였다.¹¹⁾ 선택문항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는 달리 구성되어 있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탈북자들보다 남한을 더 협력적이며 친근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있다’는 응답은 21.0%에 불과한 반면, ‘없다’는 응답이 78.0%로 남한발 안보불안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사대상이 탈북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남한을 더 우호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선일보』의 북한주민 샘플에 근거하면 북한 내의 주민들은 남한이 북한을 우려와 불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남한을 협력과 안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는 남한의 대북인식은 ‘북한’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 북한의 대남인식은 ‘남조선’과 ‘미제’로 다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까 생각된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 갖는 감정은 오롯이 북한으로 귀결되는데 반해 북한의 대남의식은 ‘미제’와 ‘남조선’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타도해야 할 대상은 ‘남조선’이 아닌 ‘미제’이며 때로 정치적으로 남조선 당국을 비난하지만, 남조선은 동포와 민족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자국에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주민은 미국(71.8%)을 지목한 반면 남한을 위협적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2.0%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남한주민은 북한(49.7%)을 제일의 ‘위협 국가’로 꼽을 정도로 북한에 대해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요인은 한류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다. 한류에 대한 접촉이 8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한류의 북한 내 한류의 유입 속도가 2011년 76.7%, 2012년 90.0%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고 85%-90%의 북한주민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접하고 있어서 과거보다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남한주민들이 접하는 북한문화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남한주민들에게 그다지 호감을 주지 못하는 반면, 북한주민들은 남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접촉 기회도 많아 남한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을 갖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남한의 대북인식에 비해 더 협력적이며 호의적인 현상은 탈북자 샘플에서 오는 편향성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인식의 특질이라 할 수 있다.

11) 『프리미엄조선(Premium Chosun)』, 2014.7.7;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7/2014070700194.html?cont01 (검색일: 2014.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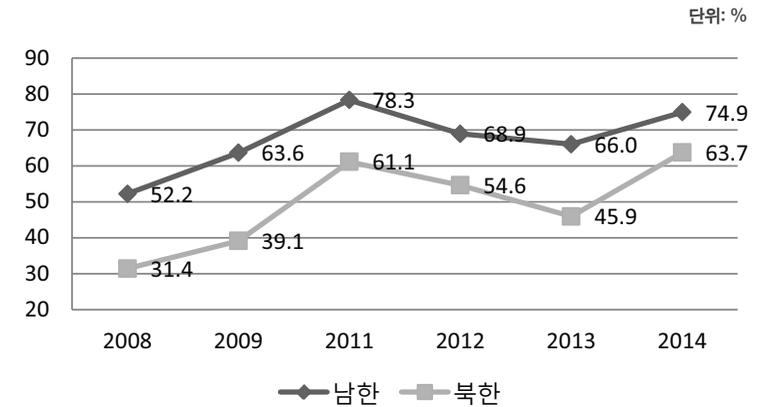
(2)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많이 있다'(32.2%), '약간 있다'(31.5%)를 합하여 63.7%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본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북한주민들의 안보불안도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31.4%에서 2009년 39.1%로 증가했고 2011년에 61.1%로 급증한 이후 2012년에 54.6%, 2013년에 45.9%로 낮아졌으나, 올해 63.7%로 17.9%p 상승하였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누그러지던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이 다시 상승한 것이다. 이는 2014년 상반기에 북한당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바짝 고조시켰으로써 이러한 안보위기가 북한주민들에게 안보불안으로 감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이 남한주민의 의식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무척 흥미롭다. 아래의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가 무력으로 도발해 올 것이라는 안보불안 의식유형이 남북한 사이에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 북한주민의 남한발 안보불안 의식이 2008년 이후 고조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누그러졌고 2014년에 다시 고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주민의 북한발 안보불안 의식도 2008년 52.2%→2009년 63.6%→2011년 78.3%로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누그러져 2013년에는 66.0%까지 완화되었다가 2014년에 다시 고조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시 상대에 의한 무력도발 불안감이 남북한 사이에 비슷한 양상으로 고조되고, 반대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남북한에서 동일하게 안보불안 의식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 3-3> 남북한의 상호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08~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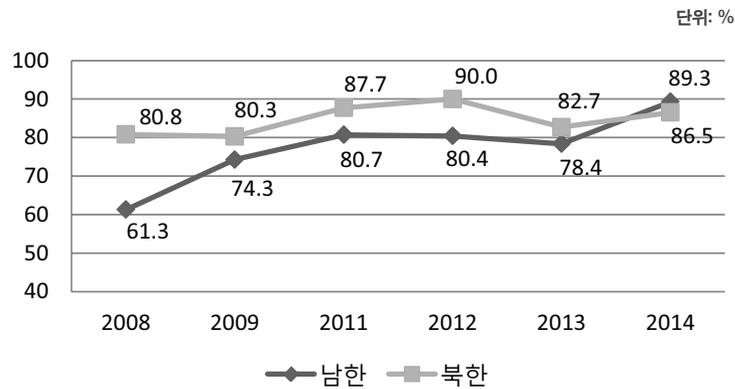
(3) 북핵위협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1.1%가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15.4%는 ‘다소 위협적일 것’이라고 답하여 86.5%가 ‘위협적일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이는 작년의 82.7%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북한 핵무기의 위력에 대해 여전히 높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남 및 대미 방어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인식하도록 하는 대주민 학습효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핵 위협에 대한 남북주민간 인식의 차이도 흥미롭다. 2014년을 예외로 하면 지난 수년 동안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핵의 위력과 파괴력을 높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매우 위협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주민들은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도가 좀 약하지만 70% 내지 80%의 주민들이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2014년에는 남한주민의 북핵위협 의식이 89.3%로 본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90%에 가까운 남한주민들이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남한주민들의 안보불안 의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그림 3-4〉 북핵위협외식 (남북한비교)



2014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협력대상’에서 ‘적대대상’으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경계심리나 적개심은 높아진 반면, 지원대상 의식이나 협력대상 인식에서는 하락하였다. 남한발 안보불안감도 높아졌으며 북핵위협도 조금 높아졌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는 2014년 초 북한이 중대제안 형식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

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바짝 고조시킨 결과에 기인한다.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에 핵보유국 선언을 공식화하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남, 대미 군사대응을 공세적으로 펴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으로 북한주민들의 안보불안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남한주민들도 심각한 안보불안에 휩싸였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나 북핵 위협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불안이 200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도 남한주민이 겪고 있는 안보불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말해준다.

3. 대남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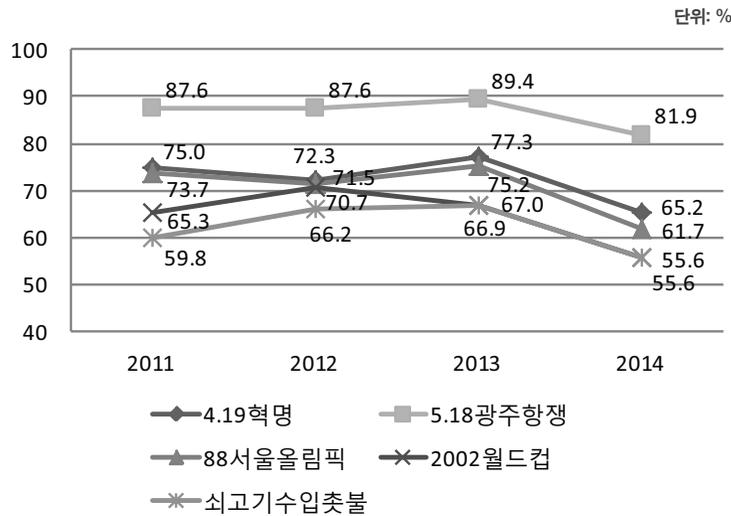
(1) 남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그림 3-5〉는 2011-2014년 시기 북한주민의 남한 인지도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에 대해 시기별로 남한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은 1980년 ‘5.18광주항쟁’(81.9%)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4.19혁명’(65.2%)과 88서울올림픽(61.7%), 2002 월드컵(55.6%), 쇄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55.6%) 등의 순으로 알고 있었다. 5.18 광주민주화 사건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광주항쟁’, ‘5.18정신’ 등의 담론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 4.19혁명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축구에 관한

12] 김병로·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외식 비교 분석,” 『통일과평화』, 4집 1호(2012년 상반기), pp. 125~126.

소식은 공식채널로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며 사적 관계를 통해 습득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5〉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2011~2014)



2014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평균은 64.0%였다. 이는 작년의 75.2%보다 11.2%p 낮아진 것이며, 2011년의 72.3%, 2012년의 70.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5.18광주항쟁’의 인지도는 89.4%→81.9%로 7.5%p 하락했고 ‘4.19혁명’은 77.3%→65.2%로 12.1%p가 하락했다. 88서울올림픽에 대한 인지도도 75.2%→61.7%로 13.5%p가 떨어졌고 2002월드컵이나 쇠고기수입축볼시위에 대해서도 10%p~11%p 하락하였다. 대남인지도가 2014년에 갑자기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남북교류의 단절이 장기화되고 한류유입도 최근 정체됨으로써 남한소식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를 남한주민의 대북인지도와 절대수치로 비교할 근거는 마땅치 않지만, 남한주민의 대북인지도와 비교하면 어떨까? 남한주민들에게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2014년 62.6%로 북한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지도가 상당 부분 북한당국의 대남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에 대한 사실을 각각 61.7%, 55.6%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주민들이 공식매체 이외의 다양한 방식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남한의 소식을 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88서울올림픽이나 2002월드컵 소식은 정부의 공식매체가 전달해주지 않았을 것이며 한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66.7%, 55.6%라는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정부가 정보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정보유입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결과적으로 정보전달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남북간 차이, 이질성 인식

북한주민들은 남한과 북한 간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2014년의 경우, 선거방식(97.3%), 생활수준(98.7%), 역사인식(95.3%), 언어사용(97.3%), 생활풍습(91.9%), 가치관(93.3%) 등 모든 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한과의 이질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심각한 차이 인식은 2008년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남

북 간의 이질성은 남한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 남한주민들의 경우는 선거방식(91.0%), 생활수준(93.6%), 역사인식(83.4%), 언어사용(83.6%), 생활풍습(83.3%), 가치관(91.8%)로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이질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주민들이 모두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 간 차이를 굳이 따져보면 남한주민들은 역사인식과 언어, 생활풍습에서 북한주민들보다 동질감을 조금 더 느끼고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표 3-1〉 남북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2014)

단위: %

	남한	북한
선거방식	91.0	97.3
생활수준	93.6	98.7
역사인식	83.4	95.3
언어사용	83.6	97.3
생활풍습	83.3	91.9
가치관	91.8	93.3

4. 남한의 대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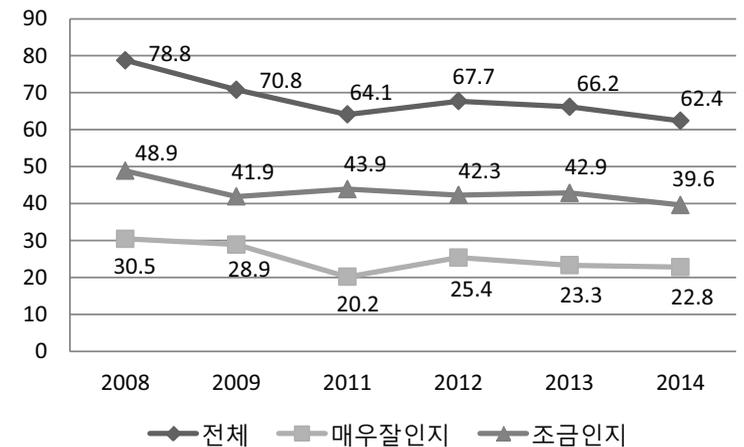
(1) 대북지원 인지도

남한사회에서 남남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22.8%), ‘조금 알고 있다’(39.6%)를 합하여 총 62.4%가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22.1%),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15.4%)를 포함하여 총 37.5%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 중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15.4%로 많은 수는 아니었으나 작년의 8.3%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와 ‘모르고 있다’의 비율은 62:37로 약 2:1, 즉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2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6〉 대북지원 인지도

단위: %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는 작년과 비교할 때 66.2%→62.4%로 약간 낮아졌다. 시기별로 보면, 2008년의 78.8%에서 2009년 70.8%로 낮아졌고, 2011년 이후 64.1%→67.7%→66.2%→62.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1년부터 대북지원 인지도가 60% 중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남북관계의 단절로 대북지원 관련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대북지원 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교류와 거래가 단절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대북지원 관련 소식이나 소문을 들을 기회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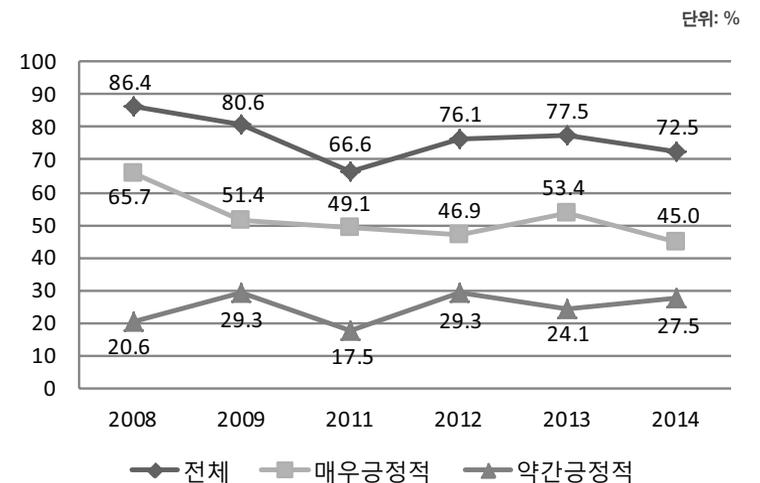
(2) 대북지원 효용성

북한주민들에 대해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은 72.5%로 높았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10.1%로 적었다.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8%로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이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45.0%로 많았으며, ‘약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27.5%로 북한주민들의 눈으로 보기에 남한의 대북지원은 북한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일부의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대북지원 무용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사결과다. 일부 탈북자들은 대북지원이 북한당국에게만 이익이 되고 북한주민들에

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논리로 대북지원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대북지원은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고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감안하여 대북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기별로 보면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보다 약간 낮아졌으며 ‘매우 긍정’에서 ‘약한 긍정’으로 중심이 옮겨졌다. 남북교류가 단절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대북지원의 효용성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림 3-7>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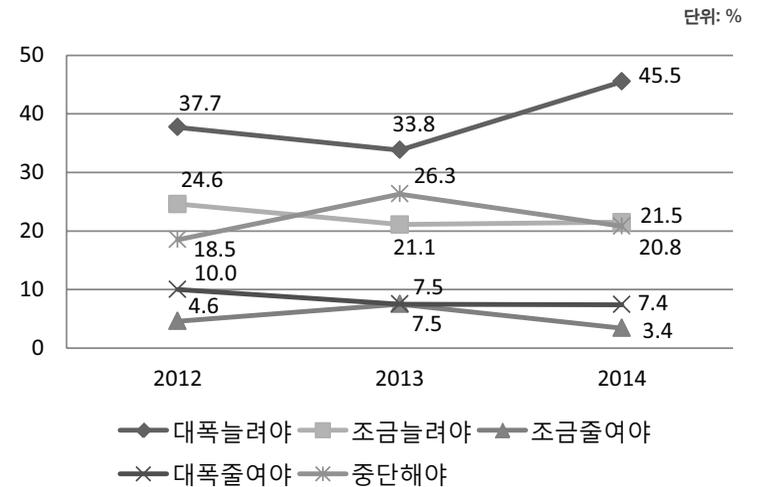


(3) 대북지원 정책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하는 응답의 비율은 67.0%로 나타났고,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은 10.8%,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응답은 20.8%로 나타나 북한주민들 가운데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난 1년 동안 대북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33.8%→45.5%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조금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1.1%→21.5%로 유지되어 전반적으로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2.1%p 상승하였다. 작년 1년 동안의 이러한 변화는 201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12.2%→19.7%→26.3%로 상승하던 경향을 반전한 것으로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11년-2013년 시기에 남한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북한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진 것은 북한내부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시기 대북지원에 대한 국내 정치적 논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대북지원 문제가 이미 남한에서 정치적 논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북한정권의 분배투명성을 비판하면서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수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8〉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2014년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북한주민의 여론이 높아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탈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빈의 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하층민들의 생활은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 내 하층민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남한의 대북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2014년 들어 남한정부가 ‘통일대박’ 담론으로 통일준비를 강조한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선언’, ‘통일준비위원회’ 등을 앞세우며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반발로 박근혜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

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변화된 정치적 공간을 활용하여 남한 대북지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기대를 높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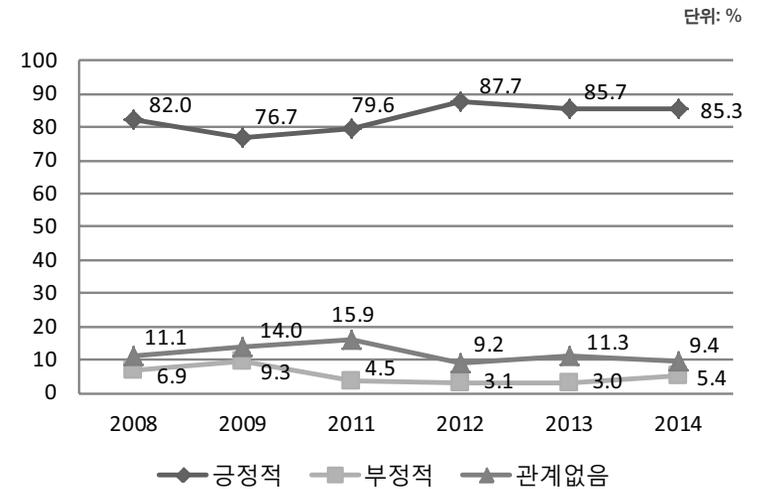
남한주민의 여론과 비교하면 북한주민들이 대북지원을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남한주민들은 2014년 대북지원의 효용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48.3%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51.7%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조금 많았다. 대북지원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 많은 것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대북지원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며 더 많은 대북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4) 경제투자 인식

대북지원과 비슷한 맥락에서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귀하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투자를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68.5%)와 '약간 긍정적'(16.8%)를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85.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의견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각각 2.7%로 매우 적었고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도 9.4%로 많지 않았다.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경제투자를 대체로 긍정적

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북 경제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간 큰 변화 없이 75-85%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3-9> 대북경제투자에 대한 인식



2014년 대북지원인지도는 62.4%로 여전히 높지만 최근 몇 년간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이 단절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대북지원 인지도도 낮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대북지원의 효용성에 대한 여론도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6.3%→20.8%로 줄었고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2.1%p로 크게 늘어났다.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의견 가운데는 '줄여야 한다'(10.8%)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줄여야 하지만 지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하면 남한의 대북지원에 찬성하는 사람은 73.2%

나 된다. 대북지원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주민의 여론(72.5%)과 거의 일치한다. 북한주민들의 약 70%는 남한의 대북지원을 기대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5. 소결

탈북자들을 통해 본 2014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협력대상’에서 ‘적대대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사이에 대남 협력대상 인식이 8.2%p 감소한 반면, 적대대상 인식은 7.3%p나 높아졌다. ‘남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은 17.9%p가 상승하여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누그러지던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이 다시 상승하였고,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는 의식도 약간 높아졌다. 이처럼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1년 사이에 악화된 것은 최근 1년 동안 초긴장 국면에서 대결적 관계를 지속했던 남북관계의 현실과 북한당국의 대남비난 선전활동이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대의식의 상승과 안보불안 고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대남 협력의 식도 지난 1년 사이에 8.2%p 줄어들었다. 북한의 대남인지도도 11.2%p 하락했고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대북지원 효용성도 각각 3.8%, 5.0%p씩 감소하였다. 남북관계의 단절과 대북지원 활동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북한주민들에게 대북지원 관련 소식이나 소문을 들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차이와 이질성에 대한 북한주민의 의식은 매우 크며 정치, 역사, 언어, 생활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절대수치로 보면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긍정적 부분이 더 넓게 형성되어 있다. 남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북한주민 의식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협력의식’은 55.7%로 여전이 높으며 남한에 대한 지식(대남인지도)도 평균 64%로 높다. 북한주민 절반 이상이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한 간 정치군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고 동포라는 의식이 아직은 더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주민의 62.4%가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고 72.5%의 주민은 남한의 대북지원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67%의 주민은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경제생활이 더 어려워짐으로써 남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주민들의 긍정적 대남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다.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남한주민과 비교하면, 남북간 이질성 인식이나 상호인식, 안보불안 등의 여러 영역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으나, 남한주민에 비해 북한주민들이 상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인식에서 북한주민은 남한주민보다 상대를 더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자 샘플의 편향 때문이 아니라 주변국 관계와 인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장 북한실태인식



제4장 북한실태인식¹³



1. 서론

2014년 조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북한을 떠난 북한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자 149명 전원이 2013년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2013년에 북한에 거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13년의 북한상황과 최근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탈북자의 경험을 분석한 자료들이 대개는 탈북연도와 상관없이 연구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수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상 최근 흐름과 변화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탈북자 조사자료는 탈북한지 18개월 미만의 북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최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북한에서 2013년은 3차 핵실험이 단행(2월 12일)되고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 핵 병진노선’을 선포(3월 31일)하며 경제개발과 핵무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강경한 정책을 채택한 시기다. 한편으로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공장과 기업소에

13) 김병로,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2호 (2014년 겨울), pp. 147~172.를 수정, 보완함.

자율적 경영권을 부여하는 ‘5.30조치’를 발표하고, 1,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갖추어진 ‘은하과학자거리’ 조성(9월 11일)과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아파트 완공(10월) 등 주택건설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가하면, 11월 21일에는 각 도에 외자유치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개발구를 발표하는 등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령’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모부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을 전격적으로 처형하는 사건(12월 12일)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금년도 조사는 김정은 집권 2년차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2014년의 북한은 식량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생존을 위한 변화의 요구가 잠재해 있으며 휴대폰 사용자가 증가하여 20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정보문화 환경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시장화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일은 그 의미가 크다. 또 직장에서의 생산규율에 대한 의식과 사회통제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다.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공식화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고 북한주민들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북한체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변화를 진단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탈냉전 이후 북한연구는 탈북자를 활용한 경험조사에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많은 연구는 탈북자의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증언을 자료로 활용하는 경향이 컸다. 북한당국이 공개하는 통계나 경험자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북한연구의 중요한 방법론을 형성하고 있다.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북한연구가 시작되면서 기존의 정보중심, 원전중심의 연구관행에서 벗어나 구술방법과 면접조사를 접목한 객관적, 과학적 방법이 시도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보와 자료를 체계화하지 않고 특정한 정보와 자료를 근거로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다른 학문분과의 방법론과 비교하여 그 신뢰도에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탈북자 샘플에 관한 편향성이다. 북한체제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라서 북한에 대해 정확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2014년 7월 중국을 방문한 북한내부 거주민들의 의식과 비교했을 때 탈북자 샘플이 '지도자'나 '남한의 무력도발' 등 몇 문항을 제외하고 통일이식과 북한실태, 주변국 인식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탈북자 샘플의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역시 그 타당성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북한연구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방법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8년부터 탈북자 면접을 통해 북한실태 자료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축적해 왔다. 이 장에서는 2014년 조사에 나타난 변화 내용에 집중하면서 지난 5년 간의 북한내부 실태 변화를 분석,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1) 적정소득과 실제소득

2014년 조사에서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월생활비(월소득)가 얼마 정도여야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북한돈 100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1.5%로 가장 많았고, 50만원(19.5%), 30만원(7.4%), 10만원(7.4%) 순이었다. 200만원, 300만원이라는 응답도 각각 5.4%, 3.4%였고, 1천만원이라는 응답도 3.4%나 되었다. 한달 생활비로 적정하다는 북한돈 100만원은 달러로 환산하면 2014년 시세가 달러당 6천원-8천원이므로 약 130달러-160달러가 된다. 남한의 화폐가격으로 환산하면 15만원 정도로 많지 않은 돈이다.

시계열로 비교하면 적정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가 매년 급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에는 한 달 생활비로 적정한 소득으로는 30만원 정도(15.7%)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나, 2013년에는 50만원(30.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014년에는 100만원(21.5%)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 2년 사이에 적정 생활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꺾어지며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인 탈북자들 가운데 공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25.7%, 25.2%였는데, 2013년에는 51.9%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61.1%로 10%p가 더 늘어났다. 탈북자를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난 2년 사이에 36%p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북한의 공식 월급체계가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심각하게 와해되었거나 빈곤층의 복지체계가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그 뿐 아니라 월급으로 전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1천원(8.7%), 5천원(26.2%)의 생활비를 받는다는 34.9%까지 포함하면 96.0%의 탈북자가 공식월급 수준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표 4-1〉 공식 소득수준

단위: 명(%)

소득수준	2014
0원	91(61.1)
천원 이하	13(8.7)
5천원 이하	39(26.2)
1만원 이하	2(1.3)
10만원 이하	3(2.0)
100만원 초과	1(0.7)
합계	149(100.0)

공식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장사나 부업활동을 통해 비공식 소득을 올리고 있다. 장사활동에 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논의하겠지만, 장사나 개인 사업을 통해 버는 비공식 소득도 전혀 없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의 경험을 기준으로 할 때 비공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3년 24.1%, 2014년 22.9%로, 2011년과 2012년의 17.1%와 16.5%에 비해 늘어났다. 이는 지난 2년 사이에 빈곤층의 생활이 더 열악해졌음을 의미한다. 비록 탈북자의 실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직장에서 받는 월급도 없고 장사나 부업, 사업으로 버는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이 23.0%에 이른다는 사실은 북한 하층민의 생활수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월소득이 조금 있지만 그것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많다. 월소득 5천원-10만원 이하로 응답한 23.7%의 사람들이 그들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 달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작년에는 50만원, 올해는 100만원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한 달 생활비로 이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면 10만원은 턱없이 모자라는 돈이다. 여기에 소득이 없거나 10만원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면 46.6%가 되는데 탈북상황에 놓인 북한주민을 중하층민이라고 볼 때, 절반에 가까운 북한의 중하층민이 생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는 셈이다. 한 달에 필요한 적정 소득을 100만원으로 잡으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10.4%의 사람들만이 북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적정 소득을 50만원으로 낮게 잡아도 76.4%의 탈북자는 북한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표 4-2〉 비공식 소득수준

단위: 명(%)

소득수준	2014
무응답	2(1.4)
0원	33(22.9)
천원 이하	4(2.8)
5천원 이하	2(1.4)
1만원 이하	2(1.4)
10만원 이하	26(18.1)
50만원 이하	43(29.9)
100만원 이하	17(11.8)
100만원 초과	15(10.4)
합계	144(100.0)

탈북자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북한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는 이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2013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최근 몇 년간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은 호전되었다. 응답자들에게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200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생활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2011년-2013년 사이에 50.5%→61.5%→66.9%로 늘어난 반면, 생활수준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은 48.2%→38.5%→33.0%로 감소하였다.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빠졌다’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주민의 생활이 최근 개선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2) 사적 경제활동

공식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이나 장사를 통해 시장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위에서 잠깐 살펴보았듯이 비공식 소득조차 없는 사람들이 최근 2년 사이에 더 늘어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에서의 장사활동은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장사를 하는 것도 밑천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탈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장사활동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비공식 소득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탈북자들에게 장사의 경험이 있는가를 물었다. 그 결과 장사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011년

69.3%→2012년 69.2%→2013년 75.9%→2014년 69.8%로 2013년에 증가했다가 2014년에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 직업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사는 이들의 제2의 직업으로서 비공식 수입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4-3>에서 최근 5년간 장사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70%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북한사회에 장사를 비롯한 사적 경제활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장사경험의 유무 (2008-2014)

단위: 명(%)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있다	168(56.8)	206(66.7)	79(69.3)	90(69.2)	101(75.9)	104(69.8)
없다	112(37.8)	154(41.6)	31((27.2)	39(30.0)	32(24.1)	45(30.2)
무응답	16(5.4)	10(2.7)	4(3.5)	1(0.8)	0(0.0)	0(0.0)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130(100.0)	133(100.0)	149(100.0)

탈북자들 가운데 장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70.0%로 조사되었는데, 북한주민 전체를 놓고 보면 장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일까? “북한주민들 가운데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왔다. 가장 많은 응답은 ‘80.0%’로 조사대상자의 38.3%가 북한주민들 가운데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80% 정도라고 평가한 것이다. 작년에는 ‘80.0%’로 평가한 응답자가 9.8%로 현저히 줄었고 대신 ‘60.0%’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38.3%로 가장 많았다. 작년의 경우에는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의 장사활동에 대한 단속이 일시적으로 강화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올해는 다시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여 주민들이 시장이나 장마당의 장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장사 및 개인사업 인구

단위: 명(%)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10% 미만	0(0.0)	7(1.9)	2(1.8)	2(1.5)	1(0.8)	5(3.4)
20%	3(1.0)	7(1.9)	2(1.8)	2(2.3)	4(3.0)	5(3.4)
30%	13(4.4)	15(4.1)	9(8.0)	7(5.4)	10(7.5)	4(2.7)
40%	11(3.7)	19(5.1)	5(4.5)	5(3.8)	6(4.5)	14(9.4)
50%	18(6.1)	42(11.4)	7(6.3)	6(4.6)	23(17.3)	12(8.1)
60%	26(8.8)	42(11.4)	13(8.9)	19(14.6)	51(38.3)	14(9.4)
70%	47(15.9)	46(12.4)	14(13.4)	15(11.5)	14(10.5)	19(12.8)
80%	91(30.7)	108(29.2)	24(21.4)	39(30.0)	13(9.8)	57(38.3)
90% 이상	82(27.7)	75(20.3)	36(32.1)	34(26.2)	11(8.3)	19(12.8)
무응답	5(1.7)	9(2.4)	2(1.8)	-	-	-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130(100.0)	133(100.0)	149(100.0)

2013년 조사시점에서 장사활동이 크게 줄어든 것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북한당국이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조사에서 직장 내 생산 활동이나 사회통제 수준이 현저히 회복된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한 것이 바로 그러한 변화를 반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4년에는 사회 내 여러 영역에서 다시 예년의 흐름을 되찾고 있고 장사활동도 정상화되었다. 농업분야 및 일반 기업소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당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2년 4월 연설에서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는 언급을 한후 경제개발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이른바 ‘6.28방침’으로 알려진 조치로 경제관리에서의 자율성을 허용했는가 하면 2014년에는 ‘5.30’조치로 모든 공장 과 기업소에 자율적 경영권을 부여하였다. 북한은 지난 5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내각 명의로 전국 각 기관과 기업소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시장 요소를 상당 부분 허용하는 지침을 전달하였다.¹⁴ 그동안 일부 기업소나 공장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공식적으로 모든 기업소와 공장에 적용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북한 전역 모든 공장 과 기업, 회사, 상점 등에 자율경영권을 부여하고 생산권, 분배권에 이어 무역권까지 원래 국가 몫이던 권력이 이관되어 공장, 기업의 독자적인 자주경영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⁵

이번 북한주민의식조사는 북한의 경제정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단속과 통제의 강화로 작년엔 60%에 머물렀던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올해 다시 80%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이 이를 증명한다.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은 북한의 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월 소득이 30만원→50만원→100만원으로 급등하고 있는 현실은 경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때

14] 「세계일보」, 2014.9.22.

15]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대학 교수), “북한의 조용한 변화와 남북관계,” 「한겨레신문」, 2014.9.22.

문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탈북자 경험을 근거로 할 때 90.0%가 공식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가운데 23.0%는 장사를 통해 버는 돈도 전혀 없어서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최소 생계비를 10만원으로 보면 탈북자 경험을 기준으로 중하층민의 46.6%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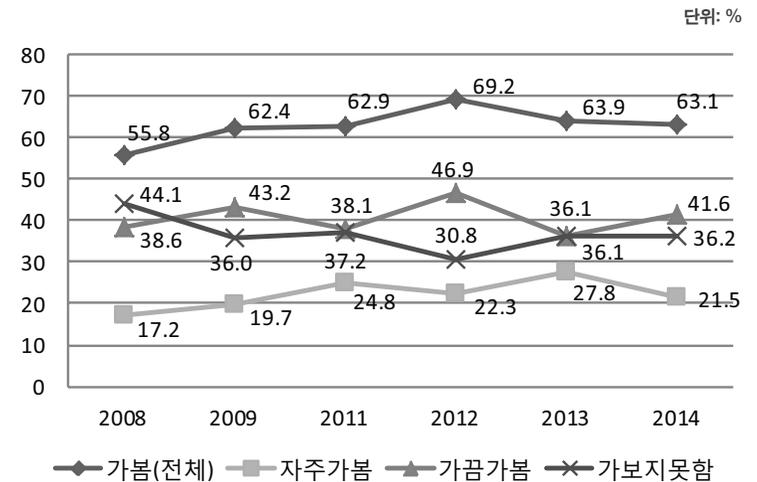
3. 전반적 사회통제

(1) 지리적 이동

북한은 시, 군, 구역 단위로 지리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이동성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력한 기준이 된다.¹⁶ 주민들의 지리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사회에서 주민 이동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폐쇄체제를 그만큼 와해시키고 있다는 단초가 될 것이다. 아래의 <그림 4-1>은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가보았다’는 응답이 2011년 62.9%→2012년 69.2%→2013년 63.9%→2014년 63.1%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전반적인 이동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자주 가보았다’는 사람들은 27.8%→21.5%로 감소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주민들의 지리적 이동이 최근 연간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전반적인 사회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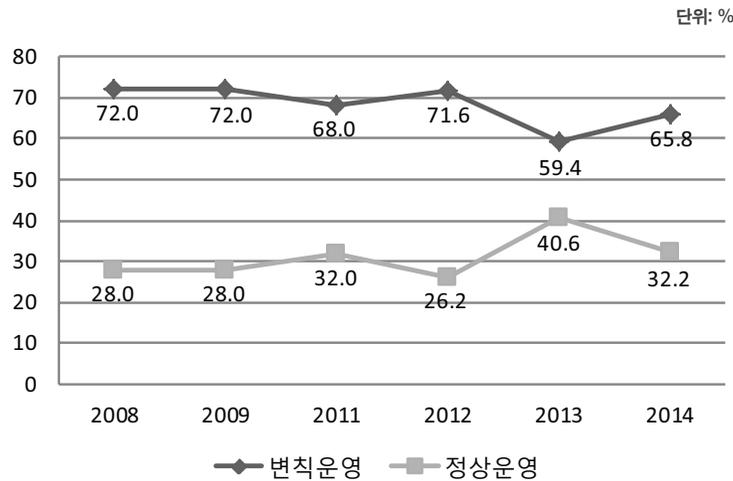
<그림 4-1> 타지역 이동경험



(2) 직장 내 생산규율

<그림 4-2>는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생산규율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약 32.2%인데 반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65.8%를 기록하여 직장의 생산활동이 대체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년에 정상운영의 수준이 14.4%p가 상승하여 직장의 생산활동이 정상화되는 듯하였으나, 올해 다시 8.4%p 하락하여 변칙운영의 비율이 높아졌다.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이후 단속과 통제의 강화로 직장 내의 생산 활동이 단기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올해 들어 변칙적 생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림 4-2〉 직장 내 생산규율 (2008~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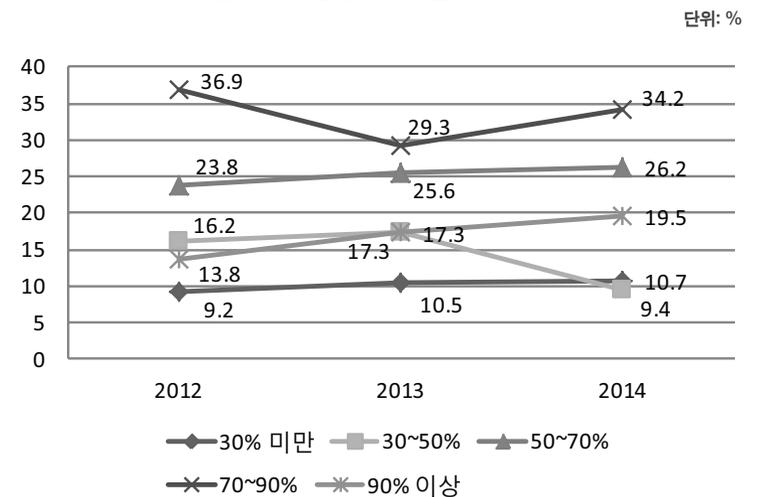
작년에 일시적으로 강화되었던 직장 내 생산규율이 이완된 것은 개인사업과 장사에 대한 활동이 다시 증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조사에 나타난 현상은 김정은 정권 출범 2년 차인 2013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첫 1년차에는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때여서 장사 활동도 80%대에서 60%대로 대폭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직장 내 생산 활동이 조금 회복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집권 2년차에 들어 장사 활동이 다시 80%대로 증가하였고 시장이나 장마당의 사적 경제활동 공간이 넓어져 직장 내 생산 활동은 상대적으로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직장 내 생산 활동에서 정상운영의 비율이 줄고 변칙운영의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17] 통일연구원 자료는 2010년 8월말부터 9월초에 걸쳐 탈북자 6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이다.

(3) 생활총화 출석

북한의 사회통제 실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중 하나는 주간 생활총화의 참가실태일 것이다.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과 비교하여 생활총화 참여율이 소폭 개선되었다. 생활총화 참여율 70~90%라는 응답이 29.3%→34.2%로 늘었고, 90% 이상이라는 응답도 17.3%→19.5%로 증가했다. 이 문항은 2011년에 처음 조사하기 시작한 항목으로 과거 통일연구원의 자료¹⁷에서 '90% 이상'이라는 응답이 2008년 26.0%, 2009년 16.2%, 2010년 19.5%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2011년 17.5%, 2012년 13.8%, 2013년 17.3%, 2014년 19.5%로 2010년대 들어 조금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소폭 증가하기 시작하여 올해 다시 높아져 생활총화가 조금씩 정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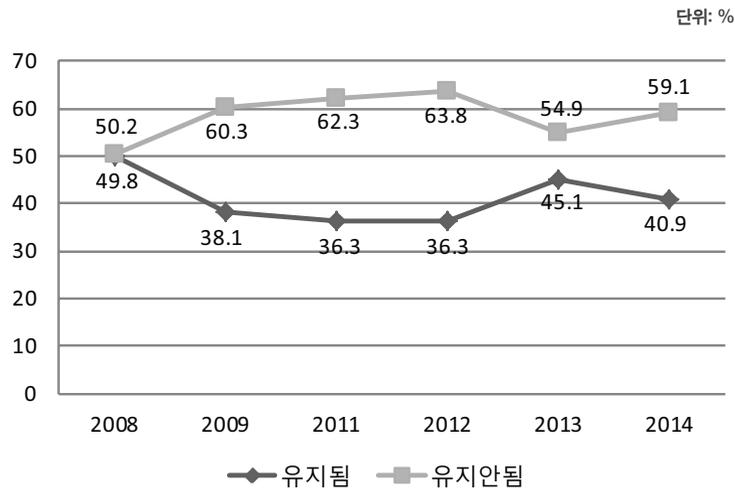
〈그림 4-3〉 생활총화 출석률 (2012~2014)



(4) 사회통제 실태

“북한에 거주할 당시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는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은 40.9%,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1%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그림 4-4>에서 볼 수 있듯이 작년에 특이하게도 사회통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의견이 9.0%p 상승하였으나 올해 다시 4.2%p 하락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강화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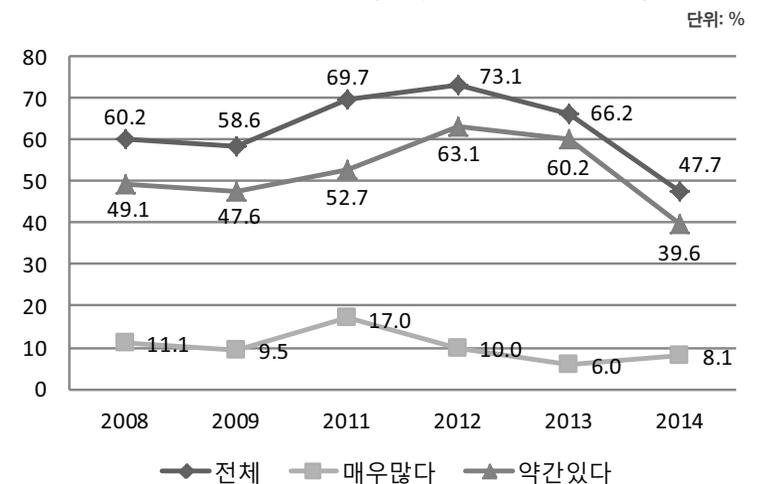
<그림 4-4> 사회통제 실태



(5) 정치적 비판행위

<그림 4-5>는 북한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가 2014년에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체로 없다’(28.9%)와 ‘전혀 없다’(23.5%)를 합하여 ‘없다’는 의견이 52.3%로 많았다. ‘있다’는 의견은 ‘매우 많다’(8.1%)와 ‘약간 있다’(39.6%)를 합하여 47.7%로 ‘없다’는 의견보다 적었다. 최근 몇 년간 증가일로에 있던 정치적 비판행위의 추세는 작년에 7.0%p가 감소한데 이어 올해 다시 21.6%p가 감소함으로써 ‘없다’는 의견이 ‘있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반전이 이루어졌다.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서나 삐라 등 정치적 비판행위가 ‘있다’는 응답은 2008년 60.2%→2009년 58.6%→2011년 69.7%→2012년 73.1%로 고조되다 작년과 올해 각각 66.2%, 47.7%로 낮아졌다.

<그림 4-5> 정부비판행위 (낙서, 삐라 등 / 2008~2014)



최근 2년 사이에 북한 내에서 정치적 비판행위가 급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의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주민통제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대주민 사회통제를 강화한데 따른 결과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9년 4월 28일 형법을 개정하고 7월 21일과 10월 19일 추가 개정을 단행하였다. 2010년 7월 8일에는 주민행정법을 제정하였으며 행정검열법도 2010년에 제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¹⁸ 2011년 10월 16일에는 행정처벌법도 개정하여 경제관리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조항을 신설하였다. 제정된 법규를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부터 적극 집행함으로써 사회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북한 내 비판행위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인은 북한 내부보다 외부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이명박 정부 시기 미국과 한국의 재정적, 인적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민주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대북 빼라와 낙서 등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2013년부터 이러한 운동이 소강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의한 재정지원이 중단된 데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중국 내 한국인들의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대북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 결과 북한주민들이 보기에 낙서와 빼라와 같은 정부비판행위가 급감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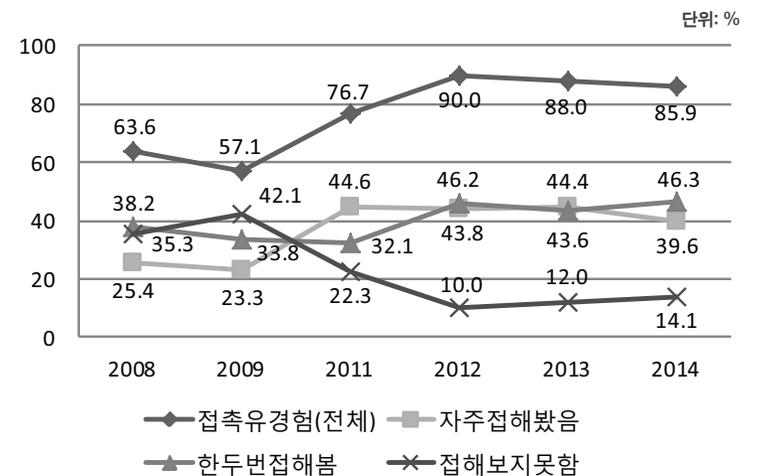
18] 이규창, "북한의 주민통제 법제 정비와 체제유지,"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2012-45(2012.12).

4. 문화외식

(1) 한류 접촉 정제

<그림 4-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류'의 확산과 정보유통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2008년 63.6%→2009년 57.1%→2011년 76.7%→2012년 90.0%→2013년 88.0%→2014년 85.9%로 8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급증하던 한류의 접촉빈도는 2012년 90%를 정점으로 작년부터는 주춤하는 추이로 돌아섰고 올해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소폭 하락한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몇 년간 북중간 교역과 인적 왕래의 증가와 함께 남한 및 외부의 문화유입이 크게 늘었으나,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이후 조직생활의 통제와 전반적 사회통제가 강화됨으로써 문화접촉의 속도도 늦춰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림 4-6> 한류접촉경험 (2008~2014)



북한의 정보유통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이 탈북 후 북한소식을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표 4-5>는 약 80% 정도의 응답자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소식을 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과 2009년에 67.9%, 61.9%의 탈북자들이 북한소식을 접했으나 2011-2013년에 접촉 비율이 71.1%→79.3%→79.0%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82.5%로 높아졌다. 북한 내부 주민들과의 접촉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북한 내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비율은 여전히 높다. 중국 조선족 친인척들의 방북을 통한 접촉, 북한가족들의 중국방문, 탈북 브로커의 활동, 중국 휴대전화의 활용 등을 통해 북한 내의 소식을 듣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조중국경지대의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정보통제 및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보접촉은 위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에 응한 탈북자 가운데 남한에 친척이 있는 비율이 2008년 30.0%→2009년 40.0%→2011년 56.0%→2012년 62.3%→2013년 65.4%→2014년 69.1%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도 북한 내의 정보접촉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탈북 후 북한소식 경험의 정도 (2008~2014)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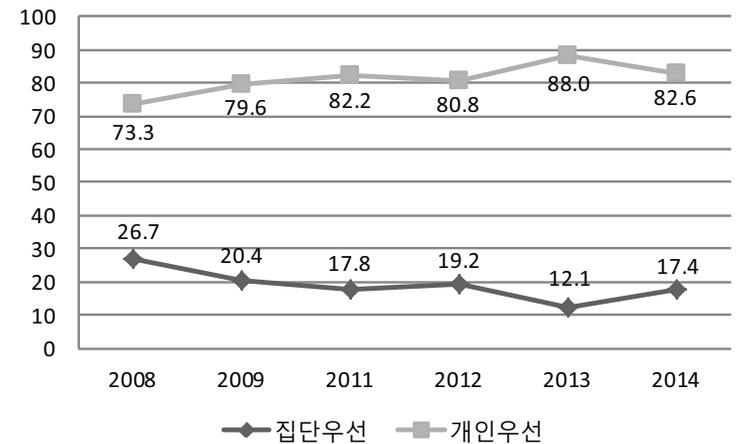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다	45(15.2)	46(12.4)	19(16.7)	27(20.8)	30(22.6)	37(24.8)
조금 접할 수 있다	156(52.7)	183(49.5)	62(54.4)	76(58.5)	75(56.4)	86(57.7)
거의 접할 수 없다	86(29.1)	122(33.0)	30(26.3)	27(20.8)	28(21.1)	26(17.4)
무응답	9(3.0)	19(5.1)	3(2.6)	-	-	-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130(100.0)	133(100.0)	149(100.0)

(2) 개인주의 가치 확대

<그림 4-7>이 보여주듯이 북한에서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의 가치는 개인주의의 지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 개인주의가 88.0%로 증가했으나 올해는 다시 82.6%로 낮아지고 대신 집단주의의 가치 선호가 12.1%→17.4%로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가 20:80으로 개인주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에서 개인주의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경제발전과 주민유동성 및 정보유통의 증대로 과거 사회주의 체제가 강조하던 집단주의의 가치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년 사이에는 집단주의의 가치가 조금 강화되었으나 큰 틀에서는 개인주의의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추세다.

<그림 4-7> 개인/집단 우선 가치 (2008~2014)

단위: %



북한은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집단주의를 주민들의 행동규범과 책무로 헌법에 명시하고 강조하고 있다.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헌법 제6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출범한 김정일 정권 시기에 집단주의 가치를 완화하는 헌법개정이 단행되었다. 1992년 헌법까지 명시되어 있던 집단주의 생활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1992년 헌법 제82조는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8년 개정헌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극심한 식량난을 거치면서 생존에 급급한 주민들에게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였을 것이다. 집단주의 원칙이 공식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8대 2로 개인주의가 압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 정치사상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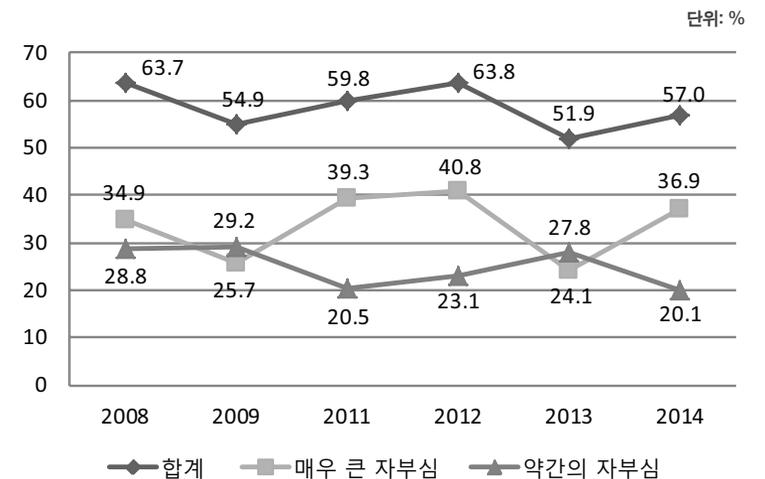
(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그림 4-8>은 주체사상 이념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주체사상을 자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57.0%로 ‘없다’는 응답률 43.0%에 비해 많

았다.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한 응답은 36.9%로 많았고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20.1%로 나타났다. 반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별로 없다’는 응답이 32.2%로 많은 반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10.7%로 매우 적었다. 즉 강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36.9%로 많은 반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은 10.7%로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사회에서 아직 주체사상 이데올로기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하면 51.9%→57.0%로 5%p 상승하였으나 2012년의 63.8%에 비하면 조금 낮아진 수치다. 작년에 11%p 가량 대폭 하락한 이후 올해 5%가 상승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주체사상의 자부심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인 사회 통제가 강화되고 생활총화 참석률이 높아지면서 주체사상 자부심도 약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2008~2014)



북한의 공식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대해 탈북자들의 평가가 이 정도로 나온다면 북한 내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어떤 의식을 형성하고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주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주체사상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51.0%,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14.0%, ‘자부심이 별로 없다’는 사람이 13.0%, ‘전혀 없다’는 사람은 22.0%로 나타났다.¹⁹⁾ 즉 북한내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북한주민 중 주체사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65.0%로 평가하여 탈북자의 평가(57.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마디로 북한 내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체사상 자부심이 탈북자의 평가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탈북자들은 북한주민들 중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10.7%로 낮은 반면, 북한 내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혀 없다’는 평가가 22.0%로 높았다. 즉 탈북자 조사와 비교할 때 북한내부 주민들은 주체사상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짐과 동시에 자부심이 ‘전혀 없다’는 평가도 탈북자의 평가보다 더 높았다. 탈북자보다 북한내부 주민의 평가가 더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중국방문이 가능한 성분이 좋은 중산층 이상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하층민보다 중상층 주민들 사이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확연히 갈라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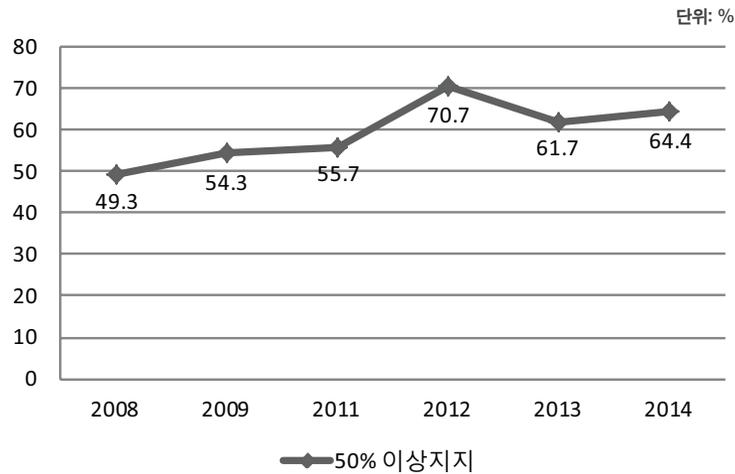
19) 「프리미엄조선(Premium Chosun)」, 2014.7.7;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7/2014070700194.html?cont01 (검색일: 2014.10.21.)

(2) 김정은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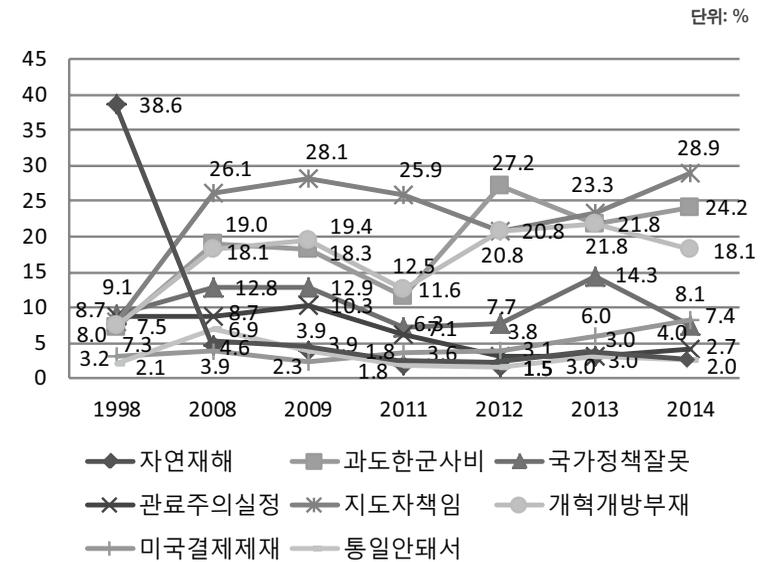
<그림 4-9>는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평가하는 질문으로 김정은의 지지도를 보여준다.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0%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64.4%로 작년의 61.7%에서 약간 상승한 결과가 나왔다. 김정일 생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를 ‘50%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2008년 49.3%→2009년 54.3%→2011년 55.7%→2012년 70.7%였던 것과 비교하면 2013년 61.7%와 2014년 64.4%는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이처럼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선전선동부의 활동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4월 김정은이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추대된 것을 필두로 당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의 직책을 수여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선전 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군사적으로 위협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섬지역과 최전방지역 현지시찰이라든가, 경제건설 현장을 수시로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보도함으로써 쾌기 있고 대범한 이미지, 생활밀착형 지도자,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4-9>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지지도 (2008~2014)



<그림 4-10> 경제침체의 원인



김정일 및 김정은에 대한 비판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북한에 거주 할 당시 북한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 라는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그림 4-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도자 때문’이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군사비 지출’(24.2%)과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18.1%)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도자 때문’이라는 이유가 줄어들다가 최근 2년 연속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 응답은 앞서 분석한 ‘김정은 지지도’와 상충하는 결과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지도는 높아졌는데 경제침체의 원인을 지도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비중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문항을 위에서 언급한 북한 내부거주 주민의 의식조사와 비교 하면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탈북자 조사에서는 북한 경제침체의 원인을 ‘지도자 때문’이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많았으나, 내부주민 조사에서는 ‘지도자를 포함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17.0%로 나왔다. 반면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이라는 응답이 28.0%로 가장 많았고,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이라는 응답이 22.0%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²⁰ 즉 내부주민들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과다한 군사비 때문’이라는 데 많은 공감을 표시하며 지도자(김정

20] 강동완·박정란,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의 변화: 북한주민 심층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세계 속의 북한학: 과거, 현재, 미래(제1회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세대학교 은명대강당, 2014.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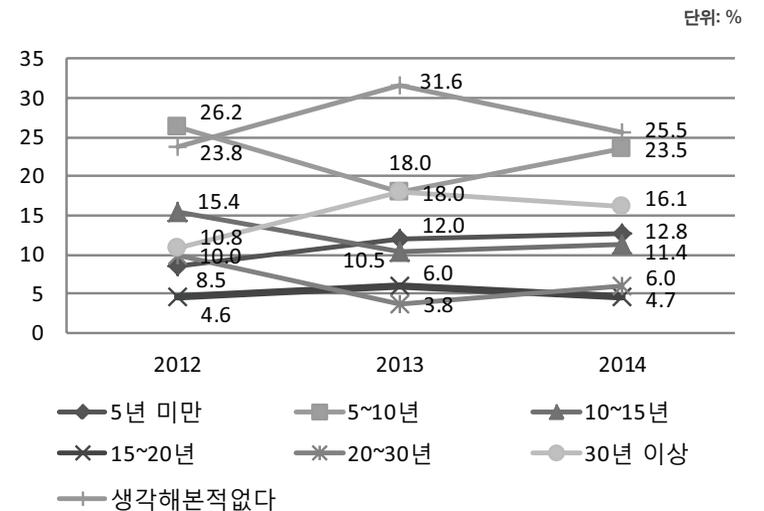
은 제1위원장)의 책임과 같은 정치적 문제를 지적하는 데 주저한 반면, 탈북자들은 지도자(김정은 제1위원장)의 책임을 더 높게 지적하였다. 탈북자 조사와 북한내부 거주주민 조사가 통일이식이나 주변국인식 등 대부분의 의식에서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반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남한발 안보불안과 같은 대남위협인식 등 몇 항목에서만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항목에 유의한다면 탈북자 조사의 신뢰도와 유용성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그림 4-10>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당국이 식량난을 미국의 경제제재와 봉쇄 때문으로 대외적으로 항변하고 있으나, 일반 주민들의 의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의 원인을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으로 보는 사람은 2008년 3.9%, 2009년 2.3%, 2011년 3.6%, 2012년 3.8%, 2013년 6.0%, 2014년 8.1%로 매우 낮다. 이는 북한내부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북한경제난의 원인을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라는 응답이 7.0%로 나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북한이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에게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북한당국이 북한주민들에게 미국의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경제를 지탱해 나갈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선전을 그만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의식세계에서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이 북한경제의 침체원인을 미국의 대북제재와 연관 지어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3) 북한 사회주의 정권 지속 여부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생각해본 적 없다’라는 응답이 2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10년’이 23.5%, ‘30년 이상’이 16.1%로 각각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생각해본 적 없다’거나 ‘30년 이상’ 등 장기유지론은 줄었고, ‘5-10년’의 단기붕괴론이 다소 높아졌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음을 말해준다. 지도자에 대한 지지여론은 조금 높아졌지만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약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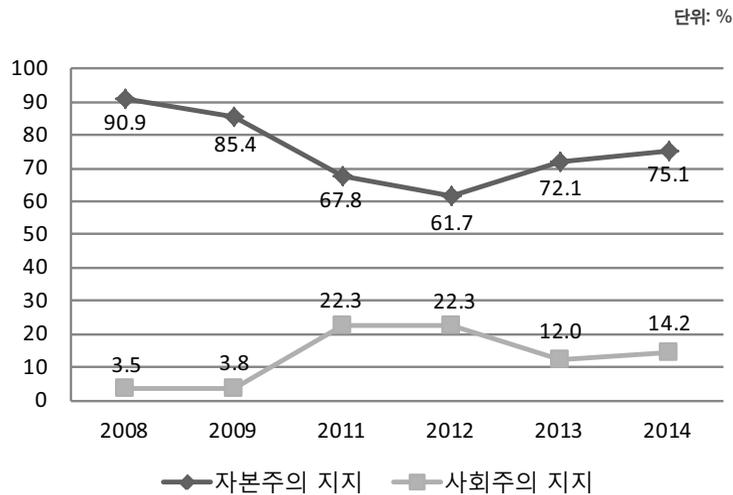
<그림 4-11> 북한 사회주의 정권 지속 여부 (2012~2014)



(4) 경제체제 선호도

주민들의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의 변화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문항으로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 결과 <그림 4-12>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했다는 응답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했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75:14로 자본주의 지지 의견이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사회주의 지지에 대한 응답이 12.0%→14.2%로 약간 상승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그림 4-12> 경제체제 선호도 (2008~2014)



북한주민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를 갈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 안에서 공산주의를 폐기한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북한은 2009년 개정 헌법에서 ‘공산주의’를 북한 이데올로기 목표에서 삭제하였다. 즉 기존 1998년 헌법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29조)라고 한 내용을 ‘공산주의’를 삭제하고 사회주의만을 살려 놓은 것이다. 문화혁명의 목표(40조)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고 한 부분을 “사회주의 건설자”로 수정하고, 교육의 목표(43조)에서도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육성한다는 표현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바꾸었다. 그동안 체제의 목표로 제시해 왔던 ‘공산주의’를 포기한 것은 그만큼 사회주의의 근본주의적인 가치와 원칙이 퇴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의 <그림 4-12>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소결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서 본 2014년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인플레이션과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를 기준으로 할 때 공식소득으로는 96.0%의 탈북자가 생존이 불가능하며 70%가량이 장사나 부업을 통해 생활비를 벌고 있는 상황이다. 장사나 부업을 못하여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도 22.9%나 되어 절대빈곤층의 생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여 생존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탈북자의 10%만이 적정 소득을 벌고 있고 탈북자의 76.4%는 적정 소득 수준 이하로 분류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60%로 일시 감소하였던 장사활동은 다시 80%로 회복되어 예년의 분위기를 되찾았다.

사회통제와 직장의 생산규율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직후 강화되었던 분위기는 다소 이완되고 느슨해지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생활총화 참여율이 소폭 개선되면서 지리적 이동과 한류접촉 경험은 주춤해졌고 정부에 대한 비판 낙사나 빼라 등의 정치적 비판행위는 66.2%→47.7%로 대폭 감소하였다. 개인과 가족을 중시하는 생활패턴은 작년에 비해 조금 약화되었으나 82.6%로 여전히 압도적이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도 역시 75.1%로 매우 높다. 북한 사회주의 정권 지속여부에 대해서도 장기유지론에서 단기붕괴론 쪽으로 이동하여 북한주민들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다. 집단주의 의식 약화와 개인주의 가치 확산, 사회주의 전망에 대한 회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선호는 지배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도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은 51.9%→57.0%로 약간 높아졌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지지도도 61.7%→64.4%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정치사상 의식은 한편으로는 생활총화와 각종 조직 활동 등 북한당국의 정치사회적 통제와 단속을 강화한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시대에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건설사업과 문화적 변화에 대한 지지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북한주민의 정치사상 의식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건설 붐과 생활수준의 향상, 체육 및 음악 활동을 통한 주민 결속력 증진, 그리고 정부의 통제와 단속이 어느 정도 작동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제5장 주변국 관계인식



1. 서론

북한의 정치 상황 및 남북관계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북한주민들에게 미국은 오랫동안 적(敵)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으며, 중국과의 혈맹관계도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따라 변동을 맞곤 하였다. 시대를 달리 하며 한반도의 주변국들은 열강의 지위를 누렸고,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자국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에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관련하여, 북한 정권은 대외적으로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대내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정권의 이러한 정책은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북한 사회가 분화되면서 주변국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식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 정권이 현재 대내적인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 정권이 국제사회의 다면적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후 경색된 대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스처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향적인 변화를 유도할 정도의 정책적 변화는 관찰하기 어렵다.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대내적으로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을 축으로 하는 병진전략을 고집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이 전향적 조치가 없다면 핵무기 개발의 중단과 관계개선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대외정책이 북한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사회의 집체적 성격은 여전히 강해 보이지만, 김정은 정권의 인식과 태도는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어느 정도 투영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가?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들이 주변국 혹은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북한주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북한주민들이 주변국가에 대하여 느꼈던 친밀감과 위협감,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희망 여부,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가장 친밀한 국가

우선 북한주민들이 주변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문항에서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중 한 나라를 선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한 나라에 대한 친밀감의 상승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친밀감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역사적,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민족주의의 관점에 선다면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주민들의 인식과 태도가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5-1>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가

단위: %

북한주민의 인식				남한주민의 인식				
국가명	조사년도			국가명	조사년도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미국	1.6	1.5	1.4	미국	68.8	65.0	76.2	74.5
일본	0.8	0.0	0.0	일본	9.1	6.8	5.1	4.5
한국	24.0	13.0	16.2	북한	16.0	20.6	11.0	9.6
중국	70.4	83.2	79.7	중국	5.3	5.8	7.3	10.4
러시아	3.2	2.3	2.7	러시아	0.8	0.9	0.5	1.0
합계(N)	125	131	148	합계(N)	1,197	1,199	1,200	1,194

<표 5-1>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2014년에는 10명 중 8명 정도가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주민들에게는 인식의 원형처럼 남아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심화되고 있는 북중 경협이라는 조건 역시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조사의 표본이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 국경지역 출신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중국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것이며, 정보의 증대는 중국의 국가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주민들은 중국의 다음으로 한국을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년도 응답보다 증가하여 16.2%를 기록하였다. 경색된 남북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한주민이 서로를 친밀하게 느낀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의 기저에 있는 민족주의적 동질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의 통일외식조사에서는 2013년까지 북한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친근한 나라였으며, 2014년에는 약간의 차이로 북한은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친근한 국가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발 행위와 남북 간 긴장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친근감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5-2> 성별 중국과 한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중국	한국	기타	합계(N)
2012	남성	62.5	26.8	10.7	56
	여성	76.8	21.7	1.5	69
2013	남성	79.0	14.0	7.0	57
	여성	86.5	12.1	1.4	74
2014	남성	79.6	12.2	8.2	49
	여성	79.8	18.2	2.0	99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5-2>의 결과와 같다. 세 차례의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 응답자들보다 중국을 친근하게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들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과 한국 중 한 나라를 가장 친근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들의 7.0~10.0%는 이외의 나라를 친근하게 느낀다고 응답을 하였다. 하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성별에 따른 친밀감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표 5-3〉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2012			2013			2014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교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교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 중학교
미국	0.0	0.0	1.2	0.0	0.0	2.1	0.0	0.0	2.2
일본	7.7	0.0	0.0	0.0	0.0	0.0	0.0	0.0	0.0
한국	46.2	30.4	18.5	23.8	13.3	10.6	10.0	9.4	19.8
중국	46.2	65.2	76.5	71.4	86.7	85.1	85.0	87.5	75.8
러시아	0.0	4.4	3.7	4.8	0.0	2.1	5.0	3.1	2.2
합계(N)	13	23	81	21	15	94	20	32	91

*주: 인민학교 및 무학 응답자들은 표에 보고되지 않았다.

2013년 조사까지는 재북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을 친밀하게 느낀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그와 반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중국을 가깝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다르고 주변국 관계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고학력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유지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표 5-4〉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단위: %

	2012		2013		2014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미국	5.6	0.9	0.0	1.8	0.0	1.6
일본	5.6	0.0	0.0	0.0	0.0	0.0
한국	22.2	24.5	11.1	13.3	10.0	17.3
중국	55.6	72.6	88.9	82.3	90.0	78.0
러시아	11.1	1.9	0.0	2.7	0.0	3.2
합계(N)	18	106	18	113	20	127

당원 여부에 따라라도 주변국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14년 조사에서 당원 20명 중 2명이 한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8명은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하였다. 비당원의 경우 78.0%가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하였다. 2012년의 결과와 비교한다면 2013년 및 2014년에 중국을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한 당원들의 비율은 높아졌다.

3. 가장 위협적인 국가

한반도 주변 정세는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변국가에 대한 친밀감과 위협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국가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북한주민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국가에 관해 조사하였다.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중 한 나라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 나라에 대한 위협 인식의 증가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위협 인식의 감소로 나타난다. 친밀감에 대한 조사와는 반대로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가장 높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단절과 긴장악화에 따라 한국에 대한 위협 인식도 미국 다음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5-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북한주민의 인식				남한주민의 인식				
조사년도	2012	2013	2014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미국	66.1	71.4	73.8	미국	8.6	9.5	4.4	5.5
일본	3.3	6.8	9.7	일본	11.6	12.3	16.0	25.1
한국	8.3	1.5	2.1	북한	46.0	47.3	56.9	49.4
중국	22.3	20.3	14.5	중국	33.6	30.5	21.3	17.7
러시아	0.0	0.0	0.0	러시아	0.3	0.4	1.3	2.3
합계(N)	121	133	145	합계(N)	1,197	1,199	1,200	1,199

북한주민의 10명 중 7명 이상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보고 있다. 북핵 실험 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제가 강화되고 북미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내적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북한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이해 역시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주민들 대다수는 중국을 친근하게 느낀다고 응답하였음에 불구하고, 동시에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라는 인식도 14.5%나 되었다. 이러한 응답 비율이 2012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흥미로운 현상이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주민들이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거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주민들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북한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만이 아니라, 국가안보 및 평화유지에 직접적이면서 물리적 위협이 되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1년 이후 중국을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및 문화협력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17.7%에 이르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갈등상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6〉 성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미국	중국	기타	합계(N)
2012	남성	62.5	26.8	10.7	56
	여성	76.8	21.7	1.5	69
2013	남성	79.0	14.0	7.0	57
	여성	86.5	12.1	1.4	74
2014	남성	79.6	12.2	8.2	49
	여성	79.8	18.2	2.0	99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높은 비율로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했었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차이가 없다. 10명 중 8명 정도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들이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앞 절에서 소개한 대로 북한주민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을 가장 친근하게 느끼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북한주민들도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표 5-7〉 친밀감과 위협인식 교차표

단위: 사례수/N

친밀감	위협인식	2012	2013	2014
한국	미국	7/27	9/17	8/24
	중국	14/27	6/17	8/24
중국	미국	67/85	82/109	92/114
	중국	11/85	18/109	13/114

<표 5-7>은 북한주민이 친근하게 느끼는 국가와 위협적으로 느끼는 국가에 대한 응답의 교차분석표이다. 2013년에는 한국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자 17명 중 9명이 미국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했으며, 6명은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하였다. 2014년에는 한국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자들 중 각 8명이 미국과 중국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 114명 중 92명이 미국을, 13명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중국이라고 하였다. 즉 중국을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도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유대감을 부인할 수 없지만, 북한주민들은 현실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8〉 학력별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2012			2013			2014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중학교	대학교	전문 학교	고등·중학교
미국	58.3	68.4	68.3	77.3	60.0	71.6	85.0	73.3	72.2
일본	8.3	5.3	2.4	9.1	6.7	6.3	5.0	10.0	11.1
한국	8.3	5.3	8.5	0.0	0.0	2.1	0.0	3.3	2.2
중국	25.0	21.1	20.7	13.6	33.3	20.0	10.0	13.3	14.4
합계(N)	12	19	82	22	15	95	20	30	90

*주: 인민학교 및 무학 응답자들은 표에 보고되지 않았다.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에 따라 미국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응답의 비율에 차이가 발견된다. 2012년에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학력의 응답자들보다 5% 정도 많게 중국이 위협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2013년 조사에서는 중국을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에서 대학 이상 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 전문학교 학력자의 비율이 33.0%로 가장 높았다. 2014년 조사에서도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5-9〉 당원 여부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2012		2013		2014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미국	70.6	64.7	68.4	71.9	75.0	73.4
일본	0.0	3.9	10.5	6.1	15.0	8.9
한국	0.0	9.8	0.0	1.8	0.0	2.4
중국	29.4	21.6	21.1	20.2	10.0	15.3
합계(N)	17	102	19	114	20	124

당원 출신 중 한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2014년 조사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는 당원 출신 응답자와 비당원 출신 응답자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당원 출신과 비당원 출신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중국이라는 응답은 세 차례 조사에서 각각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희망과 협조의 필요성

한반도 통일은 남북관계에 따른 민족적 과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사건이다.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주변국 또한 통일의 과정과 그 파급효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남북한은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고 공통적으로 통일을 위해 동북아시아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긍정적 통일환경 조성의 출발점은 남북한 주민들이 주변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서 시작할 수 있다. 남북한주민들이 가지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이해함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 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대외적인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주변국에 일방적 협조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시아에 불안정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변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시작일 수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남북한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은 남북한의 통일 희망에 대한 인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북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통일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을 앞서 통일인식 부문에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표 5-10〉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주변국	통일 희망정도	북한주민의 인식			남한주민의 인식			
		2012	2013	2014	2011	2012	2013	2014
미국	원함	31.8	19.6	23.7	38.1	39.9	40.6	39.8
	원하지 않음	68.3	80.5	77.3	62.0	60.1	59.4	60.2
	합계 (N)	126	131	147	1,201	1,200	1,200	1,196
중국	원함	15.0	16.7	15.4	10.2	11.9	18.3	18.8
	원하지 않음	85.0	83.3	84.6	89.7	88.1	81.7	81.2
	합계 (N)	127	132	148	1,200	1,200	1,200	1,198
일본	원함	10.5	6.8	6.9	13.5	10.5	14.4	12.4
	원하지 않음	89.5	93.2	93.1	86.5	89.5	85.6	87.6
	합계 (N)	124	131	146	1,201	1,200	1,200	1,196
러시아	원함	32.5	34.4	30.1	15.7	14.3	17.7	16.3
	원하지 않음	67.5	65.7	69.9	84.2	85.8	82.3	83.7
	합계 (N)	123	131	146	1,200	1,200	1,200	1,195

북한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는 중국이며,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미국이었다. 그런데 주변국들이 얼마나 통일을 바라는지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은 앞의 친밀감 및 위협인식과

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국이 남북한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은 23.7%, 중국 15.4%, 일본 6.9%였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인식하면서도, 미국이 중국과 일본보다 한반도의 통일을 더 원한다고 북한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과의 친근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가에 대해서 북한주민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러시아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약 30~34%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선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고려할 때 북한주민들이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2013년과 2014년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약 40%에 이르는 반면,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은 각각 약 18%와 12~14%로 상대적으로 낮다. 러시아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할 것이라는 비율도 중국과 일본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현상들의 원인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필요하지만, 중국과 일본과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꾀하는 일본의 태도 등도 이러한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국가이익과 한반도의 통일에 따른 남북한의 이익이 상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표 5-11〉 미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통일 희망 정도	2012			2013			2014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성별	남성	28.6	48.2	56	23.7	76.3	59	22.0	78.0	50
	여성	34.3	45.7	70	16.2	83.8	74	20.9	79.1	96
학력별	대학교	46.2	53.8	13	27.3	72.7	22	26.3	73.7	19
	전문학교	39.1	60.9	23	20.0	80.0	15	16.2	83.8	31
	고등중학교	26.8	73.2	82	16.9	83.2	95	21.8	78.2	92
당원	당원	38.9	61.1	18	31.6	68.4	19	19.0	81.0	21
	비당원	29.9	70.1	107	17.5	82.5	114	21.0	79.0	124

*주: 인민학교 및 무학 응답자들은 표에 보고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인식의 특성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여성 응답자가 2013년과 2014년에는 남성 응답자가 더 많은 비율로 북한주민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세 번의 조사 결과에서는 뚜렷한 성별 격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 대학교 이상의 재북 학력자들은 2012년 46.2%, 2013년 27.3%, 2014년 26.3%로 다른 학력의 응답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북한주민들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였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당원인 경우 북한주민들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였으나 2013년에는 비당원이 2.0%p 더 많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5-12〉 중국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통일 희망 정도		2012			2013			2014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성별	남성	14.3	85.7	56	8.6	91.4	59	10.0	90.0	50
	여성	15.5	84.5	71	23.0	77.0	74	17.3	82.7	98
학력별	대학교	38.5	30.8	13	9.5	61.9	22	20.0	80.0	20
	전문학교	4.4	95.6	23	6.7	93.3	15	3.1	97.9	32
	고등중학교	14.5	85.5	83	20.0	80.0	95	13.3	86.7	91
당원	당원	11.1	88.9	18	11.1	88.9	18	9.5	90.5	21
	비당원	15.0	85.1	107	17.5	82.5	114	15.1	84.9	126

*주: 인민학교 및 무학 응답자들은 표에 보고되지 않았다.

〈표 5-13〉 일본의 한반도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통일 희망 정도		2012			2013			2014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원함	원하지 않음	합계 (N)
성별	남성	9.1	90.9	55	10.3	89.7	59	4.1	95.9	49
	여성	11.6	88.4	69	4.1	96.0	74	8.3	91.7	97
학력별	대학교	30.8	69.2	13	9.5	90.5	22	5.0	95.0	20
	전문학교	13.1	87.0	23	13.3	86.7	15	3.3	96.7	30
	고등중학교	6.3	93.8	80	5.3	94.7	95	6.5	93.5	92
당원	당원	11.8	88.2	17	16.7	83.3	18	0.0	100.0	21
	비당원	10.4	89.6	106	5.3	94.7	114	7.2	92.8	124

*주1: 인민학교 및 무학 응답자들은 표에 보고되지 않았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2012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13년과 2014년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여성 북한주민들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하였다. 2012년과 2014년에는 대학교 이상의 재북학력자들이, 2013년에는 고등중학교 학력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세 번의 조사에서 북한주민들은 비당원의 경우 당원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주민들은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2012년에는 응답자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013년에는 남성이, 2014년에는 여성이 더 높은 비율로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대답을 하였다. 대학교 이상의 재북 학력자들은 2012년에는 평균(10.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30.8%)로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문학교 학력의 응답자들이 평균(6.8%)보다 높은 비율(13.3%)로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4년인 경우 학력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긍정적 응답은 10% 미만으로 적었다. 2013년 당원은 비당원보다 약 9.9%p 높게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2014년에는 당원 중에는 한 명도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북한주민에게 일본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보다 더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국가가 통일을 희망하는가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북한주민들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을 어떻게 기대하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 데 한반도 주변국가들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북한주민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 63.5%와 77.5%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앞의 문항에서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북한주민의 응답이 70%가 넘고 있지만, 동시에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그와 비슷한 비율로 높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노력 뿐 아니라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남북한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외교적 역량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표 5-14〉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협조에 대한 인식

단위: %

	2012	2013
필요함	63.5	77.5
필요하지 않음	36.5	22.6
합계 (N)	126	133

성별, 학력별, 당원 여부에 따라 주변국 협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012년 여성 북한주민들은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2013년에는 차이가 없었다. 2012년에는 전문학교와 대학

교 이상의 학력자들이 고등중학교 학력자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을 응답하였지만, 2013년에는 전문학교 학력자들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표 5-15〉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의 협조에 대한 인식: 인구학적 특성

단위: %

주변국 협조의 필요성		2012			2013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합계 (N)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합계 (N)
성별	남성	58.9	41.1	59	78.0	22.0	56
	여성	67.2	32.9	74	77.0	23.0	70
학력별	대학교	76.9	23.1	13	72.7	27.3	22
	전문학교	73.9	26.1	23	80.0	20.0	15
	고등중학교	58.5	41.5	82	77.9	22.1	95
당원	당원	38.9	61.1	18	89.5	10.5	19
	비당원	67.9	32.1	106	75.4	24.6	114

*주: 인민학교 및 무학 응답자들은 표에 보고되지 않았다.

2014년 조사에서는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가장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국은 어느 국가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국이라는 응답이 52.8%, 미국 20.8%, 일본 3.5%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들이 가진 중국에 대한 친밀감, 위협인식 등과 중첩되면서도 북한주민들이 통일 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반면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응답 역시 22.9%로 높은 편인데, 이는 북한주민들의 상당수가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인식하고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16〉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협조가 가장 필요한 국가 (2014)

협조가 가장 필요한 국가	빈도	%
중국	76	52.8
미국	30	20.8
일본	5	3.5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	33	22.9
합계	144	100.0

한국사회에는 천안함 사건의 발발과 남북의 경협이 중단 이후, 북중경협의 강화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외식조사」에 의하면 북중경협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76.1%, 72.5%, 60.2%, 67.9%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북한이탈주민들은 북중경협이 강화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5-17>의 결과에 의하며 북중경협이 강화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북한주민 응답자의 비율이 56.4%였고, 우려스럽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은 46.4%였다.

〈표 5-17〉 북중경협 강화에 대한 인식 (2014)

북중경협 강화	빈도	%
매우 바람직하다	50	33.6
바람직한 편이다	34	22.8
우려스러운 편이다	35	23.5
매우 우려스럽다	12	22.9
잘 모르겠다	18	8.1
합계	149	100.0

이는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과 위협인식 등에 대한 인식과 상관없이 북한주민들은 경제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북중경협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북경협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중경협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기에, 이를 고려한 전환적인 정책적 고려도 해볼직하다. 물론 이는 한 해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인식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항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요구된다.

5. 소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이 주변국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조사하였다. 북한주민들이 중국을 가장 친근하게 느끼고 미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 및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다음과 같다. 중국을 친근하게 여긴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 예상 외로 많은 응답자들은 중국이 위협적인 국가라고 응답하였다. 이점에서 중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은 이중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주민의 주변국 관계 인식은 개인의 학력 수준, 직업, 당원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북한주민의 의식이 집합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개인적 인식의 분화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경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들은 모두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지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통일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주변국 역할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에서는 학력과 직업, 당원 여부에 따라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주민들은 각국의 역할에 대한 비중을 서로 달리 평가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커져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태도는 남북 주민 모두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관한 개인의 인식이 정부 사이의 갈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우려와 달리, 북한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중경협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제6장 남한적응실태



제6장 남한적응실태



1. 서론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에 관해서는 여러 학문분과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실 남한에 입국 후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실태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작업이다. 장기간 분단 상황에서 이질적 사회화과정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 단위 공동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초기에 겪는 어려움은 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분단의 문화에 익숙한 남북한주민에게 남북한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라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초기의 사회적 부적응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지향적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 남한사회 정착 초기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는 남한사회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대한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남한사회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식조사’는 일차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남한사회 적응실태 부문의 질문을 통해서 정착 초기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는 기대감과 심리적 거리감 등을 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막연한 기대와 동경을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이 나고 자란 북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가질 수 있다. 이 조사는 정착초기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대해 가지는 기대와 그들이 직면한 현실 사이에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사회의 포용성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상호접촉은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재를 평가하게 한다. 이러한 상호인식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에 대하여 느끼는 친근감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2011년에는 91.3%가 남한출신 주민들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2012년에는 89.7%, 2013년에는 87.3%, 2014년에는 90.6%가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남한주민에 대한 강한 민족적 동질의식과 기대감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6-1〉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단위: %

	2011	2012	2013	2014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44.2	35.4	42.9	33.6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47.1	54.3	44.4	57.0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8.7	9.5	12.0	9.4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0.0	0.8	0.0	0.0
합계 (N)	104	127	133	149

북한이탈주민들 10명 중 9명이 남한주민들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대답한 반면, 남한주민들의 반응은 그것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4 통일외식조사」에 의하면 남한주민 응답자의 43.8%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한 반면 나머지 56.2%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대답이 다수이긴 하지만, 남한주민의 63.5%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남한주민의 51.1%는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남북한주민들 간 상호 기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사회에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노력과 남한주민들의 열린 시각이 전제되어야 서로에 대한 시각이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가졌던 기대와 달리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좌절을 겪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자신의 기대와 다른 남한사회의 현실을 대면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의 사회와 주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질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포용적인 자세는 더욱 요구된다. 이 점에 착안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였다.

<표 6-2>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4년 북한이탈주민의 76.6%가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포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2013년에는 79.7%였던 것과 비교하면 3.1%p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큰 변화는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감이 80%가 훨씬 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실감하는 남한주민들의 포용성은 그만큼 높은 편은 아니다.

〈표 6-2〉 남한사회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매우 포용적이다	27.9	20.6	24.8	24.2
약간 포용적이다	48.1	50.0	54.9	52.4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23.1	27.8	19.6	21.5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1.0	1.6	0.8	2.0
합계 (N)	104	126	133	147

아울러 재북 당시 학력과 직업, 당원여부에 따른 2014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학이상의 학력자들은 13.6%가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하였으며, 전문학교 학력자는 13.3%가, 고등중학교 학력자는 23.0%가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직업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았지만, 북한이탈주민 중 전문직 종사자 출신 및 장사를

주업으로 삼았던 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남한주민이 포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당원여부에 따른 차이도 크지는 않았지만 당원출신 중에서 남한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비중은 26.3%로, 비당원출신 18.4%보다 높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주민들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과 남한주민들의 포용적 태도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표 6-3>의 통계는 2013년 북한주민의 남한주민에 대한 친밀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이다. 남한주민에 대해 매우 친근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북한이탈주민 응답자 50명 중 2명(전체의 1.3%)은 남한주민이 별로 포용적이지 않다고 실망감을 드러냈으며, 다소 친근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응답자 85명 중 23명(전체의 15.4%)도 남한주민이 별로 포용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별로 친근하게 느끼지 않다고 응답한 17명 중 5명(전체의 3.4%)은 남한주민들은 포용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6-3>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 교차표 (2014)

단위: %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 이지 못함	전혀 포용적 이지 못함	합계(N)
매우 친근함	18.1	14.1	1.3	0.0	50
다소 친근함	5.4	35.6	15.4	0.7	85
별로 친근하지 않음	0.7	2.7	4.7	1.3	14
합계(N)	36	78	32	3	149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면,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응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근감과 포용성이라는 두 가지 지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위의 <표 6-3>에서도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북한이탈주민보다 친근감이 낮은 북한이탈주민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남한주민들이 포용적이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3. 자기정체성, 남한사회의 만족도, 취업형태

인간의 이주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 문명과 사회의 발전은 인간이 한 곳에 정주하고자 하는 속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정주와 관련된 속성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고향과 고국을 떠나 다른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이 자기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그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탈주민들도 남한 사회 정착 초기에는 북한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북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표 6-4〉 탈북자들의 자기정체성

단위: %

	2011	2012	2013	2014
나는 남한사람이다	74.3	64.3	63.9	67.8
나는 북한사람이다	21.0	31.0	31.6	26.2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4.8	4.8	4.5	6.0
합계 (N)	105	126	133	149

남한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기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6-4>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2014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26.2%가 스스로를 북한사람이라고 하였으며 67.8%가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라고 하였다. 자기 정체성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스스로가 남한 사람이라고 응답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다만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이미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 옴’을 준거로 하여 규범적 응답을 제시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이탈주민들 중 북한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들 중 67.6%, 북한 소식을 가끔 접할 수 있는 이들 중 68.7%, 북한소식을 거의 접할 수 없었던 이들 중 61.5%가 자신을 남한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남한주민에 대해 매우 친근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이들 중 82.0%, 다소 친근하게 느낀다고 응답한 이들 중 62.4%가 스스로를 남한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남한주민이 포용적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86.1%, 그리고 남한주민들이 다소 포용적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69.2%가 스스로

를 남한사람이라고 응답하였다.

정서적으로 남한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남한사회가 포용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남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민족적 동질성과 통일의 역사적 당위성만을 강조해서는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통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동안 유지해 온 자신의 정체성을 일거에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남북한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동화적 정체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기보다 서로의 차이 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롭게 정착하는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관계맺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에서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남한사회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질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관계 맺기를 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한사회에 갖는 기대감과 현실의 상실감을 조사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조사 결과 남한주민과 사회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과 별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조사에서 80.5%의 응답자들이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4.0%의 응답자만이 남한사회의 생활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정착 초기의 정착지원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만족감이 장기적으로도 나타날 것인지는 지속적인 관찰을 요구한다.

〈표 6-5〉 남한사회에서의 생활 만족도

단위: %

	2012	2013	2014
매우 만족한다	38.6	44.4	38.9
대체로 만족한다	33.9	34.6	41.6
보통이다	25.2	18.1	15.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4	2.3	2.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0	0.8	2.0
합계 (N)	127	133	149

북한이탈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활의 만족도와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6-6>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응답자의 87.9%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3.4%만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표 6-6〉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2012	2013	2014
매우 만족한다	43.3	55.6	56.8
대체로 만족한다	42.5	31.6	31.1
보통이다	11.0	11.3	8.8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2	0.8	2.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0	0.8	1.4
합계 (N)	127	133	148

하지만 <표 6-6>의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성과 실패를 논하기는 어렵다. 남한에서의 높은 생활 만족도와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정착기간이 1년을 넘어서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쉽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의 정부지원과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의 만족감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조속히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착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제활동 참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며, 인간 안보와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2013년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9.5%가 정규직 근로자였는데, 이는 2011년과 2012년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통계이다. 반면 조사 시점에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응답자가 64.2%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9.6%p의 증가하였다.

〈표 6-7〉 남한사회에서의 취업형태

단위: %

취업형태	2011	2012	2013	2014
정규직 근로자	24.5	33.1	9.0	9.5
계약직 근로자	4.3	1.7	3.8	6.8
일용직 근로자	11.7	5.0	9.0	4.7
고용자	1.1	0.0	0.0	0.0
자영업자	3.2	2.5	0.8	0.7
실업자	3.2	8.3	21.8	14.2
비경제활동인구	52.1	49.6	55.6	64.2
합계 (N)	94	121	148	148

북한이탈주민들의 학력별 취업형태를 살펴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어떠한 형태로든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다. 학력별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대학교 95.0%, 전문학교 75.1%, 고등중학교 74.7%이다. 남한사회의 고학력 실업문제를 고려하더라도,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높은 것은 향후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사회의 취업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취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단기적 정착지원과 더불어 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 재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사회적응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북한에서의 경제활동에도 시장경제 요소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장사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남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장사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이들의 비율보다 13.1%p가 높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사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역시 절반이 넘게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장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취업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장사경험은 본인의 직업활동 이외의 가계수입을 위한 생계 목적이었다면, 그 경험은 남한사회에서 취업을 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순한 장사경험을 넘어서 남한사회 내 다른 구성원들과 견주어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사회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4. 소결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주민을 친근하게 느꼈으며,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포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남한주민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의 정도만큼 남한사회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포용적이라고 느끼지는 않았다. 그리고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태도가 포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북한이탈주민일수록, 북한주민으로서의 자아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초기 정착과정에서 북한의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북한주민으로서의 자아의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남한사회에 정착을 시작한지 1년이 채 안된 응답자의 특성상 북한 이탈주민들은 대개 한국정부의 정착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초기 정착과정에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환경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경제활동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인 만족감이 장기적인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남한주민의 포용적 태도의 확산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 달려 있다.



제7장 결장



2014년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를 통해 남북한 주민 사이에 통일에 대한 뚜렷한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생각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 남북한 서로가 공유하는 부분을 강화하고, 변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며 서로 대립하거나 이질화된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사의 결과보다 앞서 발표한 「2014 통일의식조사」와 더불어 진지하게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북한주민 통일의식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남북한 통일의식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으로 결론의 장을 삼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압도적 다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한주민 조사에서 55.8%가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 비해 북한주민들은 95% 이상,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어릴 적부터 주입받은 공식적 대답을 단순하게 반복한 측면이 있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자신을 제외한 '북한주민일반'의 생각을 묻는 항목에서도 97% 수준으로 통일을 원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45.3%가 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통일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2011년에는 26.9%였는데,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당위적인 지향과 현실인식 사이의 편차가 의외로 크게 존재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이 격차가 현저하게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왜 통일을 원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 47.6%로 가장 높고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이 24.1%로 그 다음, 그리고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가 11.7%로 나타난다. 남한주민의 42.4%가 가장 우선적인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주민들의 태도가 보다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 가져다 줄 편익에 대한 북한주민의 기대감 역시 매우 높았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통일 후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고 남북한 주민들이 잘 어울려 살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통일에의 기대감 뒤에는 현 북한체제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짙게 깔려 있다. 어떤 방식으로 통일할 것인가에 대해 '북한의 현체제로 통일하자'는 의견은 불과 2.0%에 불과하였으며, '남한의 현체제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응답을 종합해서 본다면, 북한주민들은 현재의 북한체제가 보장해주지 못하는 생활의 어려움을 통일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정교한 판단력을 갖고 있기

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응답자들의 반응에 기초할 때, 전반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가져다 줄 장기적 효과보다 남북한 당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의 효과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 통일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개선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전환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통일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남한체제 주도의 통일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경향 및 통일 후에도 남한지역에 거주하겠다는 응답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 등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동기가 강한 만큼 남한의 현체제가 북한주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통일열망은 서로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조사는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년도에 비해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63.9%에서 55.7%로 줄어들고 ‘적대대상’으로 파악하는 비율은 12.8%에서 20.1%로 높아졌다. 아직 절대적 수치에서 50%이상이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이지만 남한사회를 보는 시각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발견된다. 2014년 남한주민들의 통일외식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계의식과 적대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정서가 악화되고 있는 경향은 분명하다. 또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남한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으리라는 북한주민의 불신감도 증대하고 있다. 남한 주민들에게서도 같은 불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남북한이 모두 상대의 군사적 도발가능성, 한반도의 긴장고조 가능성에 대

해 깊이 우려하고 있고, 이것이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신뢰의 철회 경향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북한사회는 부분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장화의 진전과 불평등의 증대현상이 뚜렷하다. 일상생활에서 ‘돈’의 중요성이 절대적이 되고 장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식월급에 기초해서는 생존할 수 없고 비공식적인 경제행위, 각종 시장관련 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다만 김정은 체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정치적 통제력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자주 오가는’ 사람의 비율은 27.8%에서 21.5%로 줄어들었고 정치적 비판행위나 일탈행위를 직접 보았다는 응답도 많이 줄었다. 김정은 체제의 억압적인 관리방식이 정치군사적 차원에서는 일정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경제부문의 시장화와 불평등화가 불가피하게 초래할 사회적 유동성 및 개인주의적 성향이 앞으로 북한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외식과 관련해 정책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남북한 주민은 모두 통일을 희망하지만 그 동기는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에 대한 공감감이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절대적 비중을 점하지 않는다. 보다 잘 살기 위해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남북한 주민들의 현실적인 이유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에게서 현실주의적인 지향이 강하다. 이념적 당위성에 집착하기보다는 도구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은 남북한의 통합, 통일로의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통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준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통일준비와 관련하여서는 북한사회가 시장화의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 주민들 내부에 기회의 차별성, 계층적 차이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어떤 유동성과 자발성의 여지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 등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아직 시장경제체제로의 공식적 이행이라 보기 어렵고 여전히 정치군사적 통제 및 당 지배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다. 하지만 초보적이지만 시장경제의 확산, 자율적인 경제활동의 보장, 정치로부터 경제영역의 분화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변화를 되돌리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핵개발과 김정은 유일체제의 강화라는 정치군사적 목표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북한이 처하고 있는 체제모순 및 내부의 딜레마를 어떻게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과정 이행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통일정책은 남북한을 포괄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와 통합, 상호연결의 망을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종합구상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또 하나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인식하는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것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조사는 변화의 방향이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

여준다. 남한주민들의 의식조사에서 대북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번 북한주민들의 의식에서도 유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서로를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 적대대상 또는 경계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통일의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변화다. 또 남북의 군사적 충돌가능성, 또는 상대의 도발가능성을 높게 보는 불신의 수준도 점점 커지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민족의 미래, 통일동력의 회복이라는 큰 목표는 물론이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도 국민 내부에 형성되는 상호불신, 부정적 상호이해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낮은 수준의 전략적 이해나 단기적 효과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경계 심리를 이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남한이 해결해야 하는 남남갈등의 문제 역시 이념적 대립 못지않게 남북한 상호불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다.

2014년 남한 국민들의 통일의식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 특징들을 남북한 주민 모두의 시각에서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²¹ 남북한 주민은 대체로 통일을 희망하며 통일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특히 북한주민들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며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통일대박론’은 한반도 차원에서 적합성을 갖는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 모두는 현실적으로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적지 않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이라는 현실주의적 인식을 갖고 있

21] 박명규 외, 「2014년 통일의식조사」(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p. 282-295 참조.

다. 앞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적 주저함 사이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일은 중요한 과제다. 또 안보불안의 증대가 가져오는 이념적 보수화의 경향이 북한주민들에게도 나타날 경우, 통일의 사회심리적 동력에 큰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긴장완화를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대북지원이나 교류확대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당국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조사의 한계 상 북한주민들 내부의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차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북한사회의 내부변화가 진행되면서 엘리트층과 주민들, 경제적 기회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하층민 사이의 편차도 커질 것은 분명하다. 또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가 확대될 것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와 동북아 지역차원의 연계성도 복합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런 모든 변화가 북한의 시장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한국의 종합적 체제구상 및 통합구상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부록

집계표 2014

설문지 2014

통일의 필요성

문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0% [0]	98.0% [146]	2.0% [3]	0% [0]	0% [0]	0% [0]
성별	남자	0.0	96.0	4.0	0.0	0.0	0.0
	여자	0.0	99.0	1.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0.0
	20대	0.0	93.3	6.7	0.0	0.0	0.0
	30대	0.0	100.0	0.0	0.0	0.0	0.0
	40대	0.0	100.0	0.0	0.0	0.0	0.0
	50대	0.0	100.0	0.0	0.0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95.0	5.0	0.0	0.0	0.0
	전문학교	0.0	96.9	3.1	0.0	0.0	0.0
	고등중학교	0.0	98.9	1.1	0.0	0.0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100.0	0.0	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97.6	2.4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99.0	1.0	0.0	0.0	0.0
	없다	0.0	95.6	4.4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97.3	2.7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7.7	2.3	0.0	0.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98.1	1.9	0.0	0.0	0.0
	없다	0.0	97.8	2.2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95.7	4.3	0.0	0.0	0.0
	결혼(동거 포함)	0.0	98.8	1.2	0.0	0.0	0.0
	이혼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주민 통일외지

문2)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원한다	약간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 [0]	94.0 % [140]	3.4 % [5]	2.7% [4]	0% [0]
성별	남자	0.0	88.0	6.0	6.0	0.0
	여자	0.0	97.0	2.0	1.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66.7	33.3	0.0	0.0
	20대	0.0	91.1	4.4	4.4	0.0
	30대	0.0	96.4	0.0	3.6	0.0
	40대	0.0	94.9	2.6	2.6	0.0
	50대	0.0	94.7	5.3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95.0	0.0	5.0	0.0
	전문학교	0.0	96.9	3.1	0.0	0.0
	고등중학교	0.0	92.4	4.3	3.3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90.0	5.0	5.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94.5	3.1	2.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95.2	2.9	1.9	0.0
	없다	0.0	91.1	4.4	4.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94.6	5.4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3.0	3.5	3.5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6.2	0.0	3.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92.2	3.9	3.9	0.0
	없다	0.0	97.8	2.2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93.5	4.3	2.2	0.0
	결혼(동거 포함)	0.0	92.7	3.7	3.7	0.0
	이혼	0.0	10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통일이유

문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2.7%(4)	23.5%(35)	7.4%(11)	11.4%(17)	46.3%(69)	8.1%(12)	0.7%(1)
성별	남자	2.0	28.0	8.0	12.0	48.0	2.0	0.0
	여자	3.0	21.2	7.1	11.1	45.5	11.1	1.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0.0	0.0	33.3	33.3	0.0
	20대	4.4	24.4	8.9	8.9	44.4	8.9	0.0
	30대	3.6	28.6	10.7	3.6	35.7	14.3	3.6
	40대	0.0	20.5	5.1	7.7	61.5	5.1	0.0
	50대	5.3	15.8	5.3	21.1	47.4	5.3	0.0
	60대	0.0	27.3	9.1	27.3	36.4	0.0	0.0
	70대	0.0	0.0	0.0	66.7	33.3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0.0	0.0
무응답	대학교	0.0	25.0	0.0	15.0	35.0	20.0	5.0
	전문학교	3.1	21.9	15.6	9.4	46.9	3.1	0.0
	고등중학교	3.3	20.7	6.5	12.0	50.0	7.6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0.0	0.0	5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5.0	5.0	10.0	30.0	10.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2.4	20.5	7.9	11.8	48.8	7.9	0.8
	무응답, 응답오류	100.0	0.0	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2.9	26.0	5.8	10.6	46.2	7.7	1.0
	없다	2.2	17.8	11.1	13.3	46.7	8.9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4	16.2	5.4	8.1	59.5	5.4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3	24.4	9.3	8.1	44.2	10.5	1.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0.8	3.8	26.9	34.6	3.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2.9	25.2	9.7	12.6	44.7	3.9	1.0
	없다	2.2	19.6	2.2	8.7	50.0	17.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4.3	21.7	8.7	8.7	41.3	15.2	0.0
	결혼(동거 포함)	1.2	23.2	7.3	12.2	50.0	4.9	1.2
	이혼	4.8	28.6	4.8	14.3	42.9	4.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통일시기

문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0.7%(1)	18.8%(28)	18.1%(27)	9.4%(14)	3.4%(5)	4.7%(7)	45.0%(67)
성별	남자	0.0	18.0	22.0	12.0	4.0	12.0	32.0
	여자	1.0	19.2	16.2	8.1	3.0	1.0	5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33.3	33.3	0.0	0.0	33.3
	20대	2.2	8.9	17.8	8.9	6.7	6.7	48.9
	30대	0.0	17.9	10.7	10.7	7.1	7.1	46.4
	40대	0.0	23.1	25.6	10.3	0.0	2.6	38.5
	50대	0.0	21.1	15.8	10.5	0.0	0.0	52.6
	60대	0.0	54.5	9.1	0.0	0.0	0.0	36.4
	70대	0.0	0.0	33.3	0.0	0.0	33.3	33.3
	80대	0.0	0.0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15.0	25.0	10.0	10.0	10.0	30.0
	전문학교	0.0	15.6	12.5	18.8	3.1	9.4	40.6
	고등중학교	1.1	19.6	18.5	6.5	2.2	2.2	50.0
	인민학교	0.0	33.3	33.3	0.0	0.0	0.0	33.3
	무학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0.0	0.0	0.0	0.0	50.0
당원여부	당원	0.0	25.0	35.0	10.0	0.0	5.0	25.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8	18.1	15.7	9.4	3.9	4.7	47.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100.0
장사여부	있다	1.0	18.3	15.4	8.7	3.8	3.8	49.0
	없다	0.0	20.0	24.4	11.1	2.2	6.7	35.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7	24.3	24.3	5.4	0.0	5.4	37.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7.4	15.1	11.6	3.5	2.3	5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5.4	19.2	7.7	7.7	11.5	38.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1.0	19.4	18.4	7.8	3.9	5.8	43.7
	없다	0.0	17.4	17.4	13.0	2.2	2.2	47.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0.9	17.4	10.9	6.5	8.7	45.7
	결혼(동거 포함)	0.0	24.4	18.3	7.3	2.4	3.7	43.9
	이혼	4.8	14.3	19.0	14.3	0.0	0.0	47.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통일개인의익

문5)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0)	81.9%(122)	16.1%(24)	0.7%(1)	1.3%(2)
성별	남자	0.0	80.0	18.0	0.0	2.0
	여자	0.0	82.8	15.2	1.0	1.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66.7	33.3	0.0	0.0
	20대	0.0	73.3	24.4	2.2	0.0
	30대	0.0	78.6	21.4	0.0	0.0
	40대	0.0	89.7	7.7	0.0	2.6
	50대	0.0	94.7	5.3	0.0	0.0
	60대	0.0	72.7	18.2	0.0	9.1
	70대	0.0	100.0	0.0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95.0	5.0	0.0	0.0
	전문학교	0.0	75.0	18.8	3.1	3.1
	고등학교	0.0	80.4	18.5	0.0	1.1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90.0	5.0	0.0	5.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81.1	17.3	0.8	0.8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81.7	17.3	0.0	1.0
	없다	0.0	82.2	13.3	2.2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1.1	18.9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81.4	16.3	1.2	1.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84.6	11.5	0.0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0.0	82.5	14.6	1.0	1.9
남한 친인척	있다	0.0	82.5	14.6	1.0	1.9
	없다	0.0	80.4	19.6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76.1	23.9	0.0	0.0
	결혼(동거 포함)	0.0	82.9	13.4	1.2	2.4
	이혼	0.0	90.5	9.5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통일집단의익

문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0%(0)	92.6%(138)	5.4%(8)	1.3%(2)	0.7%(1)
성별	남자	0.0	94.0	4.0	2.0	0.0
	여자	0.0	91.9	6.1	1.0	1.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20대	0.0	93.3	6.7	0.0	0.0
	30대	0.0	96.4	3.6	0.0	0.0
	40대	0.0	94.9	5.1	0.0	0.0
	50대	0.0	94.7	5.3	0.0	0.0
	60대	0.0	72.7	9.1	18.2	0.0
	70대	0.0	66.7	0.0	0.0	33.3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100.0	0.0	0.0	0.0
	전문학교	0.0	87.5	6.3	3.1	3.1
	고등학교	0.0	92.4	6.5	1.1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90.0	1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92.9	4.7	1.6	0.8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93.3	4.8	1.0	1.0
	없다	0.0	91.1	6.7	2.2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91.9	5.4	2.7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1.9	7.0	1.2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96.2	0.0	0.0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0.0	91.3	5.8	1.9	1.0
남한 친인척	있다	0.0	91.3	5.8	1.9	1.0
	없다	0.0	95.7	4.3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97.8	2.2	0.0	0.0
	결혼(동거 포함)	0.0	90.2	7.3	2.4	0.0
	이혼	0.0	90.5	4.8	0.0	4.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빈부격차

문7)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0]	61.1%[91]	24.2%[36]	4.7%[7]	2.7%[4]	7.4%[11]
성별	남자	0.0	56.0	20.0	10.0	2.0	12.0
	여자	0.0	63.6	26.3	2.0	3.0	5.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0.0	0.0	33.3
	20대	0.0	62.2	26.7	4.4	2.2	4.4
	30대	0.0	53.6	28.6	3.6	3.6	10.7
	40대	0.0	56.4	17.9	10.3	5.1	10.3
	50대	0.0	73.7	21.1	0.0	0.0	5.3
	60대	0.0	72.7	27.3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65.0	30.0	5.0	0.0	0.0
	전문학교	0.0	50.0	34.4	3.1	3.1	9.4
	고등중학교	0.0	62.0	20.7	5.4	3.3	8.7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70.0	15.0	5.0	0.0	1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59.1	26.0	4.7	3.1	7.1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60.6	24.0	4.8	3.8	6.7
	없다	0.0	62.2	24.4	4.4	0.0	8.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3.0	13.5	8.1	0.0	5.4
북한소식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8.1	26.7	4.7	2.3	8.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3.8	30.8	0.0	7.7	7.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60.2	25.2	3.9	3.9	6.8
남한 친인척	없다	0.0	63.0	21.7	6.5	0.0	8.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0.0	63.0	19.6	6.5	2.2	8.7
혼인	결혼(동거 포함)	0.0	59.8	25.6	4.9	1.2	8.5
	이혼	0.0	61.9	28.6	0.0	9.5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실업문제

문8)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0]	70.5%[105]	19.5%[29]	2.0%[3]	4.0%[6]	4.0%[6]
성별	남자	0.0	62.0	24.0	2.0	8.0	4.0
	여자	0.0	74.7	17.2	2.0	2.0	4.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0.0	73.3	13.3	2.2	4.4	6.7
	30대	0.0	78.6	14.3	0.0	7.1	0.0
	40대	0.0	66.7	17.9	2.6	5.1	7.7
	50대	0.0	68.4	31.6	0.0	0.0	0.0
	60대	0.0	72.7	18.2	9.1	0.0	0.0
	70대	0.0	66.7	33.3	0.0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75.0	15.0	5.0	5.0	0.0
	전문학교	0.0	62.5	21.9	3.1	6.3	6.3
	고등중학교	0.0	71.7	20.7	0.0	3.3	4.3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60.0	30.0	0.0	5.0	5.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72.4	17.3	2.4	3.9	3.9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74.0	16.3	1.0	4.8	3.8
	없다	0.0	62.2	26.7	4.4	2.2	4.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7.6	21.6	0.0	5.4	5.4
북한소식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74.4	18.6	2.3	1.2	3.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1.5	19.2	3.8	11.5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68.9	21.4	2.9	3.9	2.9
남한 친인척	없다	0.0	73.9	15.2	0.0	4.3	6.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0.0	71.7	17.4	0.0	4.3	6.5
혼인	결혼(동거 포함)	0.0	72.0	19.5	3.7	1.2	3.7
	이혼	0.0	61.9	23.8	0.0	14.3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지역갈등

문9)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0]	28.9%(43)	20.1%(30)	13.4%(20)	25.5(38)	12.1%(18)
성별	남자	0.0	26.0	18.0	18.0	28.0	10.0
	여자	0.0	30.3	21.2	11.1	24.2	13.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66.7	33.3	0.0
	20대	0.0	31.1	20.0	13.3	20.0	15.6
	30대	0.0	28.6	14.3	14.3	32.1	10.7
	40대	0.0	15.4	25.6	12.8	30.8	15.4
	50대	0.0	42.1	21.1	5.3	21.1	10.5
	60대	0.0	54.5	18.2	9.1	18.2	0.0
	70대	0.0	33.3	0.0	33.3	33.3	0.0
	80대	0.0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30.0	30.0	0.0	25.0	15.0
	전문학교	0.0	18.8	18.8	9.4	37.5	15.6
	고등중학교	0.0	31.5	18.5	17.4	21.7	10.9
	인민학교	0.0	33.3	33.3	33.3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0.0	0.0	5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0.0	5.0	15.0	30.0	2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29.1	22.0	13.4	24.4	11.0
무응답, 응답오류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있다	0.0	27.9	22.1	10.6	26.9	12.5
	없다	0.0	31.1	15.6	20.0	22.2	11.1
장사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0.5	2.7	5.4	29.7	21.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7.9	26.7	15.1	19.8	10.5
북한소식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5.4	23.1	19.2	38.5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29.1	23.3	11.7	25.2	10.7
남한 친인척	없다	0.0	28.3	13.0	17.4	26.1	15.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0.0	30.4	17.4	13.0	26.1	13.0
혼인	결혼(동거 포함)	0.0	30.5	20.7	13.4	22.0	13.4
	이혼	0.0	19.0	23.8	14.3	38.1	4.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이념갈등

문10)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0%[0]	43.0%(64)	14.8%(22)	8.7%(13)	20.1%(30)	13.4%(20)
성별	남자	0.0	36.0	18.0	6.0	22.0	18.0
	여자	0.0	46.5	13.1	10.1	19.2	1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66.7	0.0	33.3	0.0	0.0
	20대	0.0	44.4	17.8	6.7	20.0	11.1
	30대	0.0	35.7	10.7	14.3	28.6	10.7
	40대	0.0	38.5	15.4	7.7	17.9	20.5
	50대	0.0	52.6	15.8	0.0	10.5	21.1
	60대	0.0	54.5	9.1	9.1	27.3	0.0
	70대	0.0	33.3	0.0	33.3	33.3	0.0
	80대	0.0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40.0	10.0	5.0	30.0	15.0
	전문학교	0.0	43.8	9.4	15.6	25.0	6.3
	고등중학교	0.0	43.5	16.3	6.5	17.4	16.3
	인민학교	0.0	33.3	33.3	33.3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5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5.0	15.0	0.0	30.0	2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44.1	15.0	10.2	18.1	12.6
무응답, 응답오류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있다	0.0	40.4	16.3	9.6	18.3	15.4
	없다	0.0	48.9	11.1	6.7	24.4	8.9
장사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0.5	18.9	2.7	18.9	18.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6.5	15.1	8.1	18.6	11.6
북한소식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4.6	7.7	19.2	26.9	1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43.7	15.5	7.8	19.4	13.6
남한 친인척	없다	0.0	41.3	13.0	10.9	21.7	13.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0.0	43.5	17.4	8.7	21.7	8.7
혼인	결혼(동거 포함)	0.0	45.1	13.4	6.1	19.5	15.9
	이혼	0.0	33.3	14.3	19.0	19.0	14.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대북지원

문1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	55.0%(82)	12.1%(18)	20.1%(30)	12.8%(19)
성별	남자	0.0	34.0	14.0	34.0	18.0
	여자	0.0	65.7	11.1	13.1	10.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0.0	33.3	33.3
	20대	0.0	64.4	8.9	17.8	8.9
	30대	0.0	42.9	3.6	42.9	10.7
	40대	0.0	46.2	20.5	17.9	15.4
	50대	0.0	57.9	15.8	10.5	15.8
	60대	0.0	72.7	9.1	0.0	18.2
	70대	0.0	66.7	33.3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55.0	15.0	20.0	10.0
	전문학교	0.0	40.6	18.8	25.0	15.6
	고등중학교	0.0	57.6	9.8	19.6	13.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5.0	5.0	25.0	15.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54.3	13.4	19.7	12.6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56.7	12.5	18.3	12.5
	없다	0.0	51.1	11.1	24.4	1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6.8	13.5	16.2	13.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4.7	14.0	20.9	10.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3.8	3.8	23.1	19.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56.3	12.6	18.4	12.6
	없다	0.0	52.2	10.9	23.9	13.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60.9	2.2	21.7	15.2
	결혼(동거 포함)	0.0	53.7	18.3	17.1	11.0
	이혼	0.0	47.6	9.5	28.6	14.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사회문화교류

문1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	37.6%(56)	43.6%(65)	16.1%(24)	2.7%(4)
성별	남자	0.0	34.0	44.0	18.0	4.0
	여자	0.0	39.4	43.4	15.2	2.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33.3	33.3	0.0
	20대	0.0	44.4	35.6	17.8	2.2
	30대	0.0	28.6	50.0	21.4	0.0
	40대	0.0	28.2	56.4	10.3	5.1
	50대	0.0	47.4	42.1	10.5	0.0
	60대	0.0	45.5	27.3	27.3	0.0
	70대	0.0	33.3	33.3	0.0	33.3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60.0	40.0	0.0	0.0
	전문학교	0.0	21.9	56.3	18.8	3.1
	고등중학교	0.0	37.0	41.3	18.5	3.3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5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0.0	40.0	1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35.4	44.1	17.3	3.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38.5	45.2	13.5	2.9
	없다	0.0	35.6	40.0	22.2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3.2	43.2	13.5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9.5	45.3	12.8	2.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3.1	38.5	30.8	7.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33.0	47.6	16.5	2.9
	없다	0.0	47.8	34.8	15.2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50.0	34.8	15.2	0.0
	결혼(동거 포함)	0.0	37.8	42.7	17.1	2.4
	이혼	0.0	9.5	66.7	14.3	9.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경제협력

문1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	53.7%(80)	28.9%(43)	12.8%(19)	4.7%(7)
성별	남자	0.0	40.0	32.0	18.0	10.0
	여자	0.0	60.6	27.3	10.1	2.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33.3	0.0	33.3
	20대	0.0	66.7	22.2	4.4	6.7
	30대	0.0	42.9	39.3	14.3	3.6
	40대	0.0	43.6	33.3	20.5	2.6
	50대	0.0	63.2	26.3	10.5	0.0
	60대	0.0	54.5	27.3	18.2	0.0
	70대	0.0	33.3	0.0	33.3	33.3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65.0	20.0	15.0	0.0
	전문학교	0.0	40.6	43.8	9.4	6.3
	고등중학교	0.0	54.3	27.2	13.0	5.4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60.0	25.0	15.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52.0	29.9	12.6	5.5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시여부	있다	0.0	55.8	29.8	11.5	2.9
	없다	0.0	48.9	26.7	15.6	8.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6.8	35.1	5.4	2.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7.0	24.4	12.8	5.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8.5	34.6	23.1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48.5	32.0	14.6	4.9
	없다	0.0	65.2	21.7	8.7	4.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67.4	19.6	8.7	4.3
	결혼(동거 포함)	0.0	51.2	29.3	14.6	4.9
	이혼	0.0	33.3	47.6	14.3	4.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북회담

문1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	61.1%(91)	25.5%(38)	11.4%(17)	2.0%(3)
성별	남자	0.0	48.0	32.0	16.0	4.0
	여자	0.0	67.7	22.2	9.1	1.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33.3	33.3	0.0
	20대	0.0	66.7	24.4	8.9	0.0
	30대	0.0	60.7	28.6	7.1	3.6
	40대	0.0	56.4	28.2	12.8	2.6
	50대	0.0	63.2	21.1	15.8	0.0
	60대	0.0	54.5	27.3	18.2	0.0
	70대	0.0	66.7	0.0	0.0	33.3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80.0	15.0	5.0	0.0
	전문학교	0.0	43.8	40.6	12.5	3.1
	고등중학교	0.0	62.0	23.9	12.0	2.2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60.0	20.0	2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60.6	26.8	10.2	2.4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시여부	있다	0.0	64.4	24.0	9.6	1.9
	없다	0.0	53.3	28.9	15.6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9.5	29.7	10.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0.5	25.6	11.6	2.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5.4	19.2	11.5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62.1	24.3	10.7	2.9
	없다	0.0	58.7	28.3	13.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67.4	23.9	8.7	0.0
	결혼(동거 포함)	0.0	59.8	25.6	12.2	2.4
	이혼	0.0	52.4	28.6	14.3	4.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통일방식

문1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든 상관없다
		0.7%(1)	2.0%(3)	21.5%(32)	4.7%(7)	39.6%(59)	31.5%(47)
성별	남자	2.0	2.0	28.0	0.0	46.0	22.0
	여자	0.0	2.0	18.2	7.1	36.4	36.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100.0	0.0
	20대	2.2	2.2	11.1	0.0	35.6	48.9
	30대	0.0	3.6	28.6	0.0	42.9	25.0
	40대	0.0	2.6	28.2	7.7	38.5	23.1
	50대	0.0	0.0	21.1	10.5	42.1	26.3
	60대	0.0	0.0	36.4	9.1	36.4	18.2
	70대	0.0	0.0	0.0	33.3	33.3	33.3
	80대	0.0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0.0	30.0	5.0	35.0	30.0
	전문학교	0.0	3.1	18.8	0.0	43.8	34.4
	고등중학교	1.1	2.2	20.7	6.5	40.2	29.3
	인민학교	0.0	0.0	0.0	0.0	33.3	6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50.0	0.0	0.0	50.0
당원여부	당원	0.0	10.0	20.0	5.0	30.0	35.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8	0.8	22.0	3.9	40.9	3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1.0	1.0	23.1	4.8	38.5	31.7
	없다	0.0	4.4	17.8	4.4	42.2	3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1	16.2	0.0	45.9	29.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2	0.0	23.3	5.8	38.4	31.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23.1	7.7	34.6	34.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1.0	1.0	19.4	6.8	36.9	35.0
남한 친인척	없다	0.0	4.3	26.1	0.0	45.7	23.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2.2	2.2	21.7	2.2	37.0	34.8
혼인	결혼(동거 포함)	0.0	2.4	23.2	4.9	39.0	30.5
	이혼	0.0	0.0	14.3	9.5	47.6	28.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간의 유대감

문16) 주민과 북한출신 주민이 어떻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것이다	별로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전혀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0%(0)	33.6%(50)	45.4%(68)	19.5%(29)	1.3%(2)
성별	남자	0.0	26.0	46.0	24.0	4.0
	여자	0.0	37.4	45.5	17.2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33.3	0.0
	20대	0.0	22.2	51.1	26.7	0.0
	30대	0.0	28.6	46.4	21.4	3.6
	40대	0.0	38.5	43.6	15.4	2.6
	50대	0.0	42.1	36.8	21.1	0.0
	60대	0.0	72.7	27.3	0.0	0.0
	70대	0.0	33.3	66.7	0.0	0.0
	80대	0.0	0.0	100.0	0.0	0.0
학력	대학교	0.0	35.0	30.0	35.0	0.0
	전문학교	0.0	40.6	50.0	9.4	0.0
	고등중학교	0.0	29.3	48.9	19.6	2.2
	인민학교	0.0	33.3	33.3	33.3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0.0	30.0	15.0	5.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31.5	48.0	19.7	0.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31.7	46.2	21.2	1.0
	없다	0.0	37.8	44.4	15.6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0.5	37.8	21.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3.7	46.5	18.6	1.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3.1	53.8	19.2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35.0	45.6	17.5	1.9
	없다	0.0	30.4	45.7	23.9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21.7	50.0	28.3	0.0
	결혼(동거 포함)	0.0	42.7	37.8	17.1	2.4
	이혼	0.0	23.8	66.7	9.5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통일 후 거주

문17)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북한에서 살 것이다	남한에서 살 것이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0.7%(1)	30.2%(45)	39.6%(59)	28.2%(42)	0.7%(1)
성별	남자	2.0	42.0	28.0	28.0	0.0
	여자	1.0	24.2	45.5	28.3	1.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33.3	0.0
	20대	2.2	26.7	40.0	31.1	0.0
	30대	0.0	46.4	28.6	25.0	0.0
	40대	0.0	25.6	43.6	30.8	0.0
	50대	0.0	36.8	26.3	31.6	5.3
	60대	9.1	18.2	63.6	9.1	0.0
	70대	0.0	0.0	66.7	33.3	0.0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30.0	40.0	30.0	0.0
	전문학교	3.1	28.1	43.8	25.0	0.0
	고등학교	1.1	30.4	37.0	30.4	1.1
	인민학교	0.0	33.3	66.7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50.0	0.0	0.0
당원여부	당원	5.0	50.0	25.0	2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8	26.8	42.5	29.1	0.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장시여부	있다	0.0	31.7	36.5	30.8	1.0
	없다	4.4	26.7	46.7	22.2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3.2	29.7	24.3	2.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4	30.2	36.0	31.4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1.5	65.4	23.1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2.0	26.2	41.7	30.1	0.0
남한 친인척	없다	0.0	39.1	34.8	23.9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26.1	43.5	30.4	0.0
혼인	결혼(동거 포함)	2.4	34.1	36.6	25.6	1.2
	이혼	0.0	23.8	42.9	33.3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對 남한 인식

문18)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도외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선의를 경계할 하는 대상이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2.0%(3)	8.7%(13)	55.7%(83)	2.0%(3)	10.1%(15)	20.1%(30)
성별	남자	4.0	4.0	58.0	2.0	10.0	22.0
	여자	3.0	11.1	54.5	2.0	10.1	19.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0.0	0.0	33.3
	20대	2.2	4.4	55.6	2.2	11.1	24.4
	30대	3.6	3.6	57.1	3.6	7.1	25.0
	40대	0.0	15.4	53.8	0.0	15.4	15.4
	50대	10.6	10.5	57.9	0.0	5.3	15.8
	60대	9.1	18.2	54.5	0.0	0.0	18.2
	70대	0.0	0.0	66.7	33.3	0.0	0.0
	80대	0.0	0.0	0.0	0.0	100.0	0.0
학력	대학교	0.0	5.0	65.0	0.0	10.0	20.0
	전문학교	6.3	9.4	56.3	6.3	3.1	18.8
	고등학교	3.3	8.7	54.3	1.1	10.9	21.7
	인민학교	0.0	33.3	33.3	0.0	33.3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50.0	0.0	50.0	0.0
당원여부	당원	10.0	10.0	45.0	0.0	5.0	3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2.4	8.7	58.3	2.4	11.0	17.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장시여부	있다	2.9	8.7	56.7	1.9	9.6	20.2
	없다	4.4	8.9	53.3	2.2	11.1	2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4	13.5	51.4	2.7	2.7	24.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5	7.0	55.8	0.0	15.1	18.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7	61.5	7.7	3.8	19.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4.8	8.7	54.4	1.9	12.6	17.5
남한 친인척	없다	0.0	8.7	58.7	2.2	4.3	26.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2.2	6.5	56.5	2.2	8.7	23.9
혼인	결혼(동거 포함)	4.9	11.0	51.2	1.2	12.2	19.5
	이혼	0.0	4.8	71.4	4.8	4.8	14.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4.19 혁명

문19)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응답오류, 중복응답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0.7%(1)	12.8%(19)	30.9%(46)	21.5%(32)	34.2%(51)
성별	남자	2.0	14.0	36.0	20.0	28.0
	여자	0.0	12.1	28.3	22.2	37.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33.3	0.0
	20대	2.2	4.4	22.2	20.0	51.1
	30대	0.0	14.3	35.7	32.1	17.9
	40대	0.0	7.7	30.8	20.5	41.0
	50대	0.0	31.6	36.8	15.8	15.8
	60대	0.0	18.2	36.4	18.2	27.3
	70대	0.0	66.7	33.3	0.0	0.0
	80대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25.0	35.0	10.0	30.0
	전문학교	0.0	18.8	34.4	25.0	21.9
	고등중학교	1.1	8.7	30.4	21.7	38.0
	인민학교	0.0	0.0	0.0	33.3	66.7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50.0	50.0
당원여부	당원	0.0	20.0	35.0	25.0	2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0.8	11.8	30.7	20.5	36.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정시여부	있다	1.0	13.5	30.8	27.9	26.9
	없다	0.0	11.1	31.1	6.7	5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3.5	35.1	10.8	40.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2	11.6	30.2	24.4	32.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5.4	26.9	26.9	30.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1.0	15.5	30.1	24.3	29.1
	없다	0.0	6.5	32.6	15.2	45.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2.2	10.9	28.3	15.2	43.5
	결혼(동거 포함)	0.0	14.6	35.4	19.5	30.5
	이혼	0.0	9.5	19.0	42.9	28.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5.18 광주항쟁

문20)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0.7%(1)	29.5%(44)	33.6%(50)	18.8%(28)	17.4%(26)
성별	남자	2.0	38.0	34.0	14.0	12.0
	여자	0.0	25.3	33.3	21.2	20.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33.3	0.0	33.3
	20대	0.0	15.6	24.4	26.7	33.3
	30대	0.0	28.6	50.0	17.9	3.6
	40대	2.6	35.9	25.6	23.1	12.8
	50대	0.0	36.8	52.6	5.3	5.3
	60대	0.0	36.4	27.3	9.1	27.3
	70대	0.0	66.7	33.3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35.0	40.0	20.0	5.0
	전문학교	0.0	40.6	28.1	21.9	9.4
	고등중학교	1.1	25.0	34.8	18.5	20.7
	인민학교	0.0	33.3	33.3	0.0	33.3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당원여부	당원	0.0	45.0	35.0	15.0	5.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8	26.8	33.1	19.7	19.7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정시여부	있다	1.0	29.8	35.6	19.2	14.4
	없다	0.0	28.9	28.9	17.8	24.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4.3	35.1	24.3	16.2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2	31.4	31.4	16.3	19.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0.8	38.5	19.2	1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1.0	33.0	33.0	18.4	14.6
	없다	0.0	21.7	34.8	19.6	23.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23.9	30.4	15.2	30.4
	결혼(동거 포함)	1.2	35.4	37.8	15.9	9.8
	이혼	0.0	19.0	23.8	38.1	19.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88 서울올림픽

문21)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1.3%(2)	10.7%(16)	22.1%(33)	28.9%(43)	36.9%(55)
성별	남자	0.0	16.0	28.0	30.0	26.0
	여자	2.0	8.1	19.2	28.3	42.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33.3	0.0	33.3
	20대	0.0	6.7	13.3	33.3	46.7
	30대	0.0	3.6	17.9	39.3	39.3
	40대	2.6	15.4	28.2	25.6	28.2
	50대	5.3	21.1	42.1	21.1	10.5
	60대	0.0	0.0	18.2	27.3	54.5
	70대	0.0	33.3	0.0	0.0	66.7
	80대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15.0	25.0	35.0	25.0
	전문학교	0.0	9.4	21.9	28.1	40.6
	고등중학교	2.2	10.9	22.8	28.3	35.9
	인민학교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50.0	50.0
	당원	0.0	10.0	35.0	40.0	15.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비당원	1.6	11.0	20.5	26.8	40.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있다	1.9	11.5	24.0	29.8	32.7
당원여부	없다	0.0	8.9	17.8	26.7	46.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7	18.9	21.6	18.9	37.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2	8.1	24.4	33.7	32.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7	15.4	26.9	5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1.0	10.7	25.2	29.1	34.0
	없다	2.2	10.9	15.2	28.3	43.5
혼인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13.0	13.0	32.6	41.3
	결혼(동거 포함)	2.4	9.8	31.7	23.2	32.9
혼인	이혼	0.0	9.5	4.8	42.9	4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2002 월드컵

문22)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1.4%(2)	6.0%(9)	15.4%(23)	34.2%(51)	43.0%(64)
성별	남자	2.0	4.0	22.0	40.0	32.0
	여자	1.0	7.1	12.1	31.3	48.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0.0	33.3	33.3
	20대	2.2	4.4	15.6	24.4	53.3
	30대	0.0	0.0	10.7	60.7	28.6
	40대	0.0	7.7	12.8	30.8	48.7
	50대	5.3	10.5	26.3	36.8	21.1
	60대	0.0	0.0	27.3	27.3	45.5
	70대	0.0	33.3	0.0	0.0	66.7
	80대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10.0	15.0	50.0	25.0
	전문학교	0.0	0.0	15.6	34.4	50.0
	고등중학교	2.2	7.6	15.2	32.6	42.4
	인민학교	0.0	0.0	33.3	0.0	66.7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당원	0.0	5.0	10.0	55.0	3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비당원	1.6	6.3	16.5	30.7	44.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있다	2.0	5.8	16.3	36.5	39.4
당원여부	없다	0.0	6.7	13.3	28.9	5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7	2.7	21.6	35.1	37.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2	7.0	11.6	36.0	44.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7	19.2	26.9	46.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1.0	5.8	17.5	35.0	40.8
	없다	2.2	6.5	10.9	32.6	47.8
혼인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2.2	10.9	13.0	30.4	43.5
	결혼(동거 포함)	1.2	3.7	18.3	34.1	42.7
혼인	이혼	0.0	4.8	9.5	42.9	42.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문23)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0.7%(1)	13.4%(20)	20.1%(30)	22.1%(33)	43.6%(65)
성별	남자	0.0	20.0	30.0	26.0	24.0
	여자	1.0	10.1	15.2	20.2	53.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0.0	0.0	66.7
	20대	0.0	15.6	13.3	22.2	48.9
	30대	0.0	17.9	21.4	35.7	25.0
	40대	0.0	7.7	25.6	15.4	51.3
	50대	5.3	15.8	31.6	15.8	31.6
	60대	0.0	0.0	18.2	27.3	54.5
	70대	0.0	33.3	0.0	33.3	33.3
	80대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30.0	15.0	20.0	35.0
	전문학교	0.0	9.4	18.8	31.3	40.6
	고등중학교	1.1	12.0	21.7	20.7	44.6
	인민학교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50.0	0.0	50.0
	당원	0.0	15.0	25.0	40.0	2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0.8	13.4	19.7	19.7	46.5
장사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있다	1.0	12.5	21.2	22.1	43.3
	없다	0.0	15.6	17.8	22.2	44.4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7	18.9	21.6	10.8	45.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1.6	22.1	24.4	41.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1.5	11.5	30.8	46.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11.7	18.4	27.2	42.7
	없다	2.2	17.4	23.9	10.9	45.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23.9	17.4	15.2	43.5
	결혼(동거 포함)	1.2	11.0	24.4	28.0	35.4
	이혼	0.0	0.0	9.5	14.3	76.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문화 경험

문24)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자주 접해 봤다	한두번 접해 봤다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0%(0)	39.6%(59)	46.3%(69)	14.1%(21)
성별	남자	0.0	44.0	52.0	4.0
	여자	0.0	37.4	43.4	19.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20대	0.0	46.7	44.4	8.9
	30대	0.0	42.9	50.0	7.1
	40대	0.0	38.5	38.5	23.1
	50대	0.0	31.6	57.9	10.5
	60대	0.0	18.2	54.5	27.3
	70대	0.0	0.0	66.7	33.3
	80대	0.0	0.0	100.0	0.0
학력	대학교	0.0	45.0	50.0	5.0
	전문학교	0.0	40.6	46.9	12.5
	고등중학교	0.0	37.0	46.7	16.3
	인민학교	0.0	66.7	33.3	0.0
	무학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0.0	50.0
	당원	0.0	30.0	55.0	15.0
	후보당원	0.0	0.0	100.0	0.0
	비당원	0.0	41.7	44.9	13.4
장사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있다	0.0	38.5	49.0	12.5
	없다	0.0	42.2	40.0	17.8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5.9	43.2	10.8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1.9	46.5	1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3.1	50.0	26.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32.0	51.5	16.5
	없다	0.0	56.5	34.8	8.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50.0	37.0	13.0
	결혼(동거 포함)	0.0	30.5	57.3	12.2
	이혼	0.0	52.4	23.8	2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남한문화 친숙도

문25) 귀하는 남한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친숙했다	약간 친숙했다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1.3%(2)	47.7%(71)	32.2%(48)	4.7%(7)	14.1%(21)
성별	남자	0.0	50.0	45.8	4.2	0.0
	여자	2.5	58.8	32.5	6.3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66.7	0.0	0.0
	20대	2.4	65.9	29.3	2.4	0.0
	30대	3.8	46.2	46.2	3.8	0.0
	40대	0.0	46.7	46.7	6.7	0.0
	50대	0.0	64.7	29.4	5.9	0.0
	60대	0.0	50.0	25.0	25.0	0.0
	70대	0.0	50.0	50.0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52.6	36.8	10.5	0.0
	전문학교	3.6	57.1	32.1	7.1	0.0
	고등학교	1.3	54.5	40.3	3.9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5.3	47.1	17.6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1.8	59.1	35.5	3.6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정시여부	있다	1.1	56.0	37.4	5.5	0.0
	없다	2.7	54.1	37.8	5.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0.6	33.3	6.1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3	55.3	38.2	5.3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5.3	47.4	42.1	5.3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2.3	48.8	43.0	5.8	0.0
	없다	0.0	69.0	26.2	4.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2.5	62.5	30.0	5.0	0.0
	결혼(동거 포함)	1.4	48.6	44.4	5.6	0.0
	이혼	0.0	68.8	25.0	6.3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선거방식

문26)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	92.6%(138)	4.7%(7)	0.7%(1)	2.0%(3)
성별	남자	0.0	86.0	10.0	2.0	2.0
	여자	0.0	96.0	2.0	0.0	2.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20대	0.0	91.1	6.7	0.0	2.2
	30대	0.0	85.7	10.7	0.0	3.6
	40대	0.0	97.4	0.0	2.6	0.0
	50대	0.0	94.7	5.3	0.0	0.0
	60대	0.0	90.9	0.0	0.0	9.1
	70대	0.0	100.0	0.0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100.0	0.0	0.0	0.0
	전문학교	0.0	90.6	9.4	0.0	0.0
	고등학교	0.0	91.3	4.3	1.1	3.3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85.0	10.0	5.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93.7	3.9	0.0	2.4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정시여부	있다	0.0	94.2	4.8	0.0	1.0
	없다	0.0	88.9	4.4	2.2	4.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91.9	8.1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4.2	3.5	0.0	2.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88.5	3.8	3.8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92.2	3.9	1.0	2.9
	없다	0.0	93.5	6.5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91.3	6.5	0.0	2.2
	결혼(동거 포함)	0.0	92.7	3.7	1.2	2.4
	이혼	0.0	95.2	4.8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생활수준

문27)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	96.0%(143)	2.7%(4)	1.3%(2)	0%(0)
성별	남자	0.0	94.0	4.0	2.0	0.0
	여자	0.0	97.0	2.0	1.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100.0	0.0	0.0	0.0
	20대	0.0	95.6	2.2	2.2	0.0
	30대	0.0	92.9	3.6	3.6	0.0
	40대	0.0	97.4	2.6	0.0	0.0
	50대	0.0	100.0	0.0	0.0	0.0
	60대	0.0	100.0	0.0	0.0	0.0
	70대	0.0	66.7	33.3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100.0	0.0	0.0	0.0
	전문학교	0.0	93.8	6.3	0.0	0.0
	고등학교	0.0	95.7	2.2	2.2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95.0	5.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96.1	2.4	1.6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정시여부	있다	0.0	96.2	1.9	1.9	0.0
	없다	0.0	95.6	4.4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00.0	0.0	0.0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6.5	1.2	2.3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88.5	11.5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96.1	2.9	1.0	0.0
	없다	0.0	95.7	2.2	2.2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95.7	2.2	2.2	0.0
	결혼(동거 포함)	0.0	96.3	2.4	1.2	0.0
	이혼	0.0	95.2	4.8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역사인식

문28)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	70.5%(105)	24.8%(37)	4.0%(6)	0.7%(1)
성별	남자	0.0	64.0	32.0	2.0	2.0
	여자	0.0	73.7	21.2	5.1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66.7	0.0	0.0
	20대	0.0	71.1	22.2	6.7	0.0
	30대	0.0	64.3	35.7	0.0	0.0
	40대	0.0	69.2	25.6	5.1	0.0
	50대	0.0	78.9	10.5	5.3	5.3
	60대	0.0	81.8	18.2	0.0	0.0
	70대	0.0	66.7	33.3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75.0	25.0	0.0	0.0
	전문학교	0.0	68.8	28.1	0.0	3.1
	고등학교	0.0	69.6	25.0	5.4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0.0	50.0	0.0	
당원여부	당원	0.0	60.0	35.0	0.0	5.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72.4	22.8	4.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정시여부	있다	0.0	69.2	25.0	4.8	1.0
	없다	0.0	73.3	24.4	2.2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5.7	21.6	2.7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9.8	23.3	5.8	1.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5.4	34.6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71.8	24.3	2.9	1.0
	없다	0.0	67.4	26.1	6.5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63.0	28.3	8.7	0.0
	결혼(동거 포함)	0.0	72.0	24.4	2.4	1.2
	이혼	0.0	81.0	19.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언어사용

문29)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	67.1%(100)	28.2%(42)	2.7%(4)	2.0%(3)
성별	남자	0.0	64.0	30.0	2.0	4.0
	여자	0.0	68.7	27.3	3.0	1.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66.7	33.3	0.0	0.0
	20대	0.0	77.8	17.8	4.4	0.0
	30대	0.0	67.9	28.6	0.0	3.6
	40대	0.0	51.3	41.0	2.6	5.1
	50대	0.0	68.4	26.3	5.3	0.0
	60대	0.0	72.7	27.3	0.0	0.0
	70대	0.0	66.7	33.3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55.0	45.0	0.0	0.0
	전문학교	0.0	59.4	37.5	3.1	0.0
	고등학교	0.0	72.8	21.7	2.2	3.3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50.0	50.0	0.0
당원여부	당원	0.0	70.0	25.0	0.0	5.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67.7	27.6	3.1	1.6
정시여부	있다	0.0	61.5	33.7	2.9	1.9
	없다	0.0	80.0	15.6	2.2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7.6	27.0	5.4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8.6	29.1	2.3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1.5	26.9	0.0	1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68.9	27.2	2.9	1.0
	없다	0.0	63.0	30.4	2.2	4.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80.4	15.2	2.2	2.2
	결혼(동거 포함)	0.0	64.6	31.7	2.4	1.2
	이혼	0.0	47.6	42.9	4.8	4.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생활풍습

문30)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	55.0%(82)	36.9%(55)	7.4%(11)	0.7%(1)
성별	남자	0.0	50.0	42.0	8.0	0.0
	여자	0.0	57.6	34.3	7.1	1.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33.3	0.0
	20대	0.0	62.2	28.9	8.9	0.0
	30대	0.0	42.9	50.0	7.1	0.0
	40대	0.0	46.2	41.0	10.3	2.6
	50대	0.0	68.4	31.6	0.0	0.0
	60대	0.0	72.7	27.3	0.0	0.0
	70대	0.0	66.7	33.3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40.0	50.0	10.0	0.0
	전문학교	0.0	53.1	31.3	12.5	3.1
	고등학교	0.0	56.5	38.0	5.4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60.0	30.0	1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55.1	37.0	7.1	0.8
정시여부	있다	0.0	48.1	43.3	7.7	1.0
	없다	0.0	71.1	22.2	6.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4.9	21.6	10.8	2.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0.0	44.2	5.8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7.7	34.6	7.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54.4	38.8	5.8	1.0
	없다	0.0	56.5	32.6	10.9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56.5	32.6	10.9	0.0
	결혼(동거 포함)	0.0	57.3	39.0	3.7	0.0
	이혼	0.0	42.9	38.1	14.3	4.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가치관

문31)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	69.8%(104)	23.5%(35)	6.0%(9)	0.7%(1)
성별	남자	0.0	64.0	24.0	12.0	0.0
	여자	0.0	72.7	23.2	3.0	1.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66.7	33.3	0.0	0.0
	20대	0.0	71.1	17.8	11.1	0.0
	30대	0.0	57.1	32.1	10.7	0.0
	40대	0.0	74.4	25.6	0.0	0.0
	50대	0.0	73.7	21.1	0.0	5.3
	60대	0.0	72.7	18.2	9.1	0.0
	70대	0.0	66.7	33.3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75.0	25.0	0.0	0.0
	전문학교	0.0	62.5	21.9	15.6	0.0
	고등학교	0.0	69.6	25.0	4.3	1.1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65.0	25.0	1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70.9	22.8	5.5	0.8
정시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있다	0.0	67.3	27.9	3.8	1.0
	없다	0.0	75.6	13.3	11.1	0.0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5.7	13.5	10.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9.8	23.3	5.8	1.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1.5	38.5	0.0	0.0
남한 친인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68.0	25.2	5.8	1.0
	없다	0.0	73.9	19.6	6.5	0.0
혼인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71.7	21.7	6.5	0.0
	결혼(동거 포함)	0.0	70.7	22.0	6.1	1.2
	이혼	0.0	61.9	33.3	4.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의 무력도발

문32)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0%(0)	32.2%(48)	31.5%(47)	22.8%(34)	13.4%(20)
성별	남자	0.0	28.0	24.0	24.0	24.0
	여자	0.0	34.3	35.4	22.2	8.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0.0	33.3	33.3
	20대	0.0	33.3	33.3	26.7	6.7
	30대	0.0	32.1	28.6	21.4	17.9
	40대	0.0	20.5	41.0	23.1	15.4
	50대	0.0	36.8	26.3	31.6	5.3
	60대	0.0	45.5	27.3	0.0	27.3
	70대	0.0	66.7	0.0	0.0	33.3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20.0	35.0	20.0	25.0
	전문학교	0.0	25.0	31.3	25.0	18.8
	고등학교	0.0	37.0	31.5	22.8	8.7
	인민학교	0.0	66.7	0.0	0.0	33.3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50.0	5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0.0	20.0	30.0	2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31.5	33.9	22.0	12.6
정시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있다	0.0	31.7	31.7	24.0	12.5
	없다	0.0	33.3	31.1	20.0	15.6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7.0	29.7	21.6	21.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6.0	31.4	24.4	8.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6.9	34.6	19.2	19.2
남한 친인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32.0	30.1	23.3	14.6
	없다	0.0	32.6	34.8	21.7	10.9
혼인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39.1	30.4	17.4	13.0
	결혼(동거 포함)	0.0	29.3	34.1	24.4	12.2
	이혼	0.0	28.6	23.8	28.6	19.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핵위협

문33)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위협적이다	다소 위협적이다	별로 위협적 이지 않다	전혀 위협적 이지 않다
		0%(0)	71.1%(106)	15.4%(23)	13.4%(20)	0%(0)
성별	남자	0.0	84.0	12.0	4.0	0.0
	여자	0.0	64.6	17.2	18.2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66.7	33.3	0.0	0.0
	20대	0.0	60.0	20.0	20.0	0.0
	30대	0.0	60.7	17.9	21.4	0.0
	40대	0.0	76.9	15.4	7.7	0.0
	50대	0.0	94.7	5.3	0.0	0.0
	60대	0.0	72.7	9.1	18.2	0.0
	70대	0.0	100.0	0.0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75.0	5.0	20.0	0.0
	전문학교	0.0	71.9	21.9	6.3	0.0
	고등중학교	0.0	69.6	16.3	14.1	0.0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85.0	15.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68.5	15.7	15.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정사여부	있다	0.0	69.2	15.4	15.4	0.0
	없다	0.0	75.6	15.6	8.9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8.4	8.1	13.5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8.6	19.8	11.6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9.2	11.5	19.2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67.0	19.4	13.6	0.0
	없다	0.0	80.4	6.5	13.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60.9	19.6	19.6	0.0
	결혼(동거 포함)	0.0	80.5	14.6	4.9	0.0
	이혼	0.0	57.1	9.5	33.3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대북지원 인식

문34)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0%(0)	22.8%(34)	39.6%(59)	22.1%(33)	15.4%(23)
성별	남자	0.0	28.0	48.0	14.0	10.0
	여자	0.0	20.2	35.4	26.3	18.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33.3	0.0
	20대	0.0	13.3	44.4	20.0	22.2
	30대	0.0	17.9	53.6	21.4	7.1
	40대	0.0	35.9	28.2	25.6	10.3
	50대	0.0	31.6	31.6	31.6	5.3
	60대	0.0	27.3	36.4	9.1	27.3
	70대	0.0	0.0	33.3	0.0	66.7
	80대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30.0	55.0	15.0	0.0
	전문학교	0.0	15.6	37.5	25.0	21.9
	고등중학교	0.0	23.9	39.1	22.8	14.1
	인민학교	0.0	33.3	0.0	0.0	66.7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50.0	50.0
당원여부	당원	0.0	35.0	40.0	20.0	5.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20.5	40.2	22.0	17.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정사여부	있다	0.0	24.0	37.5	24.0	14.4
	없다	0.0	20.0	44.4	17.8	17.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9.7	35.1	21.6	13.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2.1	43.0	23.3	1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5.4	34.6	19.2	30.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22.3	36.9	26.2	14.6
	없다	0.0	23.9	45.7	13.0	17.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5.2	45.7	19.6	19.6
	결혼(동거 포함)	0.0	30.5	37.8	20.7	11.0
	이혼	0.0	9.5	33.3	33.3	2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대북지원 효용성

문35)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0.7%(1)	45.0%(67)	27.5%(41)	16.8%(25)	8.1%(12)	2.0%(3)
성별	남자	2.0	28.0	40.0	22.0	6.0	2.0
	여자	0.0	53.5	21.2	14.1	9.1	2.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33.3	66.7	0.0	0.0
	20대	0.0	37.8	35.6	20.0	4.4	2.2
	30대	3.6	32.1	28.6	28.6	7.1	0.0
	40대	0.0	61.5	20.5	7.7	7.7	2.6
	50대	0.0	47.4	21.1	15.8	15.8	0.0
	60대	0.0	36.4	36.4	0.0	18.2	9.1
	70대	0.0	100.0	0.0	0.0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40.0	25.0	20.0	15.0	0.0
	전문학교	3.1	37.5	34.4	9.4	9.4	6.3
	고등학교	0.0	47.8	26.1	18.5	6.5	1.1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5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5.0	55.0	5.0	5.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0.8	47.2	23.6	17.3	8.7	2.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1.0	44.2	26.9	16.3	8.7	2.9
	없다	0.0	46.7	28.9	17.8	6.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7	37.8	32.4	21.6	5.4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4.2	29.1	17.4	5.8	3.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7.7	15.4	7.7	19.2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1.0	45.6	27.2	15.5	7.8	2.9
	없다	0.0	43.5	28.3	19.6	8.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28.3	32.6	32.6	6.5	0.0
	결혼(동거 포함)	1.2	51.2	29.3	7.3	7.3	3.7
	이혼	0.0	57.1	9.5	19.0	14.3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대북지원 규모

문3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3)	45.0%(67)	21.5%(32)	3.4%(5)	7.4%(11)	20.8%(31)
성별	남자	2.0	38.0	22.0	4.0	12.0	22.0
	여자	2.0	48.5	21.2	3.0	5.1	20.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0.0	0.0	0.0	66.7
	20대	2.2	48.9	37.8	0.0	0.0	11.1
	30대	3.6	42.9	21.4	0.0	10.7	21.4
	40대	0.0	46.2	15.4	7.7	7.7	23.1
	50대	0.0	42.1	10.5	10.5	10.5	26.3
	60대	9.1	36.4	9.1	0.0	27.3	18.2
	70대	0.0	66.7	0.0	0.0	0.0	33.3
	80대	0.0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30.0	35.0	5.0	5.0	25.0
	전문학교	6.3	56.3	12.5	3.1	6.3	15.6
	고등학교	1.1	44.6	22.8	3.3	8.7	19.6
	인민학교	0.0	33.3	0.0	0.0	0.0	6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0.0	0.0	0.0	50.0
당원여부	당원	0.0	30.0	35.0	10.0	10.0	15.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2.4	46.5	19.7	2.4	7.1	22.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1.9	43.3	21.2	4.8	8.7	20.2
	없다	2.2	48.9	22.2	0.0	4.4	2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0.5	21.6	2.7	10.8	24.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3	46.5	22.1	4.7	5.8	18.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8	46.2	19.2	0.0	7.7	23.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1.9	40.8	23.3	3.9	7.8	22.3
	없다	2.2	54.3	17.4	2.2	6.5	17.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2.2	41.3	37.0	0.0	2.2	17.4
	결혼(동거 포함)	1.2	46.3	14.6	6.1	11.0	20.7
	이혼	4.8	47.6	14.3	0.0	4.8	28.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대북경제투자 효용성

문37) 귀하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 투자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0%[0]	68.5%(102)	16.8%(25)	9.4%(14)	2.7%(4)	2.7%(4)
성별	남자	0.0	76.0	12.0	8.0	2.0	2.0
	여자	0.0	64.6	19.2	10.1	3.0	3.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66.7	0.0	33.3	0.0	0.0
	20대	0.0	68.9	20.0	6.7	4.4	0.0
	30대	0.0	67.9	21.4	7.1	3.6	0.0
	40대	0.0	69.2	12.8	12.8	2.6	2.6
	50대	0.0	73.7	5.3	15.8	0.0	5.3
	60대	0.0	45.5	36.4	0.0	0.0	18.2
	70대	0.0	100.0	0.0	0.0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65.0	25.0	5.0	0.0	5.0
	전문학교	0.0	78.1	15.6	3.1	0.0	3.1
	고등학교	0.0	64.1	16.3	13.0	4.3	2.2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당원	0.0	75.0	15.0	10.0	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66.9	17.3	9.4	3.1	3.1
장사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있다	0.0	65.4	15.4	11.5	3.8	3.8
	없다	0.0	75.6	20.0	4.4	0.0	0.0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73.0	13.5	10.8	0.0	2.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5.1	17.4	10.5	3.5	3.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3.1	19.2	3.8	3.8	0.0
남한 친인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67.0	17.5	9.7	1.9	3.9
	없다	0.0	71.7	15.2	8.7	4.3	0.0
혼인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0.0	58.7	28.3	10.9	2.2	0.0
	결혼(동거 포함)	0.0	74.4	11.0	7.3	2.4	4.9
	이혼	0.0	66.7	14.3	14.3	4.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주체사상 자부심

문38)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0%[0]	36.9%(55)	20.1%(30)	32.2%(48)	10.7%(16)
성별	남자	0.0	34.0	20.0	30.0	16.0
	여자	0.0	38.4	20.2	33.3	8.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0.0	0.0	66.7
	20대	0.0	35.6	17.8	42.2	4.4
	30대	0.0	21.4	17.9	42.9	17.9
	40대	0.0	46.2	17.9	25.6	10.3
	50대	0.0	36.8	26.3	36.8	0.0
	60대	0.0	45.5	36.4	0.0	18.2
	70대	0.0	33.3	33.3	0.0	33.3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40.0	25.0	25.0	10.0
	전문학교	0.0	31.3	28.1	28.1	12.5
	고등학교	0.0	37.0	16.3	37.0	9.8
	인민학교	0.0	66.7	0.0	0.0	33.3
	무학	0.0	0.0	0.0	0.0	0.0
당원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50.0	0.0	0.0
	당원	0.0	50.0	25.0	20.0	5.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33.9	19.7	34.6	11.8
장사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있다	0.0	36.5	16.3	37.5	9.6
	없다	0.0	37.8	28.9	20.0	13.3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8.6	16.2	16.2	18.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4.9	20.9	38.4	5.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6.9	23.1	34.6	15.4
남한 친인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0.0	32.0	23.3	34.0	10.7
	없다	0.0	47.8	13.0	28.3	10.9
혼인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39.1	10.9	39.1	10.9
	결혼(동거 포함)	0.0	36.6	29.3	26.8	7.3
	이혼	0.0	33.3	4.8	38.1	2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김정은 지도도

문3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간의 지도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10%미만	20%	30%	40%	50%	60%	70%	80%	90%이상
		0.7%(1)	8.1%(12)	7.4%(11)	10.7%(16)	8.7%(13)	18.8%(28)	8.7%(13)	8.1%(12)	10.7%(16)	18.1%(27)
성별	남자	2.0	8.0	8.0	16.0	10.0	16.0	10.0	10.0	10.0	10.0
	여자	0.0	8.1	7.1	8.1	8.1	20.2	8.1	7.1	11.1	2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33.3	33.3	0.0	0.0	0.0	0.0	0.0	33.3
	20대	0.0	4.4	4.4	6.7	8.9	22.2	11.1	13.3	6.7	22.2
	30대	3.6	7.1	7.1	10.7	0.0	10.7	3.6	17.9	21.4	17.9
	40대	0.0	7.7	10.3	17.9	15.4	10.3	10.3	2.6	12.8	12.8
	50대	0.0	5.3	5.3	5.3	15.8	42.1	10.5	0.0	5.3	10.5
	60대	0.0	36.4	0.0	0.0	0.0	27.3	9.1	0.0	9.1	18.2
	70대	0.0	0.0	33.3	33.3	0.0	0.0	0.0	0.0	0.0	33.3
	80대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10.0	15.0	15.0	10.0	10.0	5.0	10.0	5.0	20.0
	전문학교	3.1	6.3	9.4	9.4	12.5	12.5	9.4	9.4	12.5	15.6
	고등중학교	0.0	7.6	5.4	9.8	7.6	23.9	9.8	7.6	12.0	16.3
	인민학교	0.0	33.3	0.0	0.0	0.0	0.0	0.0	0.0	0.0	66.7
	무학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50.0	0.0	0.0	0.0	0.0	0.0	50.0
당원 여부	당원	0.0	5.0	10.0	20.0	10.0	20.0	10.0	0.0	10.0	15.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8	8.7	7.1	9.4	8.7	18.1	7.9	9.4	11.0	18.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1.0	7.7	9.6	11.5	8.7	17.3	8.7	7.7	11.5	16.3
	없다	0.0	8.9	2.2	8.9	8.9	22.2	8.9	8.9	8.9	2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 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7	10.8	2.7	2.7	8.1	16.2	21.6	5.4	0.0	29.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7.0	8.1	10.5	9.3	23.3	5.8	10.5	12.8	12.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7	11.5	23.1	7.7	7.7	0.0	3.8	19.2	19.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1.0	10.7	6.8	12.6	11.7	15.5	6.8	8.7	13.6	12.6
	없다	0.0	2.2	8.7	6.5	2.2	26.1	13.0	6.5	4.3	30.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6.5	6.5	10.9	6.5	13.0	13.0	8.7	6.5	28.3
	결혼(동거 포함)	1.2	9.8	6.1	9.8	12.2	23.2	4.9	8.5	11.0	13.4
	이혼	0.0	4.8	14.3	14.3	0.0	14.3	14.3	4.8	19.0	14.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사회통제 유지도

문40)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공간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0%(0)	14.1%(21)	26.8%(40)	47.7%(71)	11.4%(17)
성별	남자	0.0	10.0	28.0	48.0	14.0
	여자	0.0	16.2	26.3	47.5	10.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33.3	33.3	0.0
	20대	0.0	20.0	17.8	51.1	11.1
	30대	0.0	7.1	32.1	46.4	14.3
	40대	0.0	7.7	30.8	56.4	5.1
	50대	0.0	5.3	21.1	52.6	21.1
	60대	0.0	18.2	45.5	18.2	18.2
	70대	0.0	66.7	33.3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5.0	40.0	45.0	10.0
	전문학교	0.0	9.4	31.3	43.8	15.6
	고등중학교	0.0	16.3	23.9	50.0	9.8
	인민학교	0.0	66.7	0.0	0.0	33.3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35.0	45.0	2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16.5	26.0	47.2	10.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장사여부	있다	0.0	14.4	23.1	51.0	11.5
	없다	0.0	13.3	35.6	40.0	1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0.8	27.0	48.6	13.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4.0	26.7	48.8	10.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9.2	26.9	42.3	1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15.5	27.2	47.6	9.7
	없다	0.0	10.9	26.1	47.8	15.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5.2	23.9	52.2	8.7
	결혼(동거 포함)	0.0	12.2	30.5	42.7	14.6
	이혼	0.0	19.0	19.0	57.1	4.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비판행위 정도

문41)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많다	약간 있다	대체로 없다	전혀 없다
		0%(0)	8.1%(12)	39.6%(59)	28.9%(43)	23.5%(35)
성별	남자	0.0	10.0	40.0	36.0	14.0
	여자	0.0	7.1	39.4	25.3	28.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33.3	66.7	0.0
	20대	0.0	8.9	33.3	35.6	22.2
	30대	0.0	10.7	39.3	32.1	17.9
	40대	0.0	0.0	38.5	25.6	35.9
	50대	0.0	10.5	57.9	15.8	15.8
	60대	0.0	27.3	36.4	18.2	18.2
	70대	0.0	0.0	66.7	33.3	0.0
	80대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5.0	40.0	30.0	25.0
	전문학교	0.0	6.3	34.4	34.4	25.0
	고등중학교	0.0	9.8	42.4	26.1	21.7
	인민학교	0.0	0.0	33.3	33.3	33.3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50.0	50.0
당원여부	당원	0.0	5.0	55.0	30.0	1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비당원	0.0	7.9	37.0	29.1	26.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정사여부	있다	0.0	4.8	45.2	28.8	21.2
	없다	0.0	15.6	26.7	28.9	28.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8.9	35.1	21.6	24.3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4.7	41.9	31.4	22.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8	38.5	30.8	26.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6.8	42.7	27.2	23.3
	없다	0.0	10.9	32.6	32.6	23.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0.9	39.1	32.6	17.4
	결혼(동거 포함)	0.0	8.5	40.2	28.0	23.2
	이혼	0.0	0.0	38.1	23.8	38.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

문42)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30년	30년 이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0%(0)	12.8%(19)	23.5%(35)	11.4%(17)	4.7%(7)	6.0%(9)	16.1%(24)	25.5%(38)
성별	남자	0.0	16.0	22.0	10.0	6.0	8.0	18.0	20.0
	여자	0.0	11.1	24.2	12.1	4.0	5.1	15.2	28.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33.3	0.0	0.0	33.3	33.3	0.0
	20대	0.0	4.4	20.0	11.1	13.3	2.2	13.3	35.6
	30대	0.0	14.3	17.9	7.1	0.0	14.3	25.0	21.4
	40대	0.0	12.8	28.2	12.8	2.6	5.1	10.3	28.2
	50대	0.0	21.1	31.6	26.3	0.0	5.3	10.5	5.3
	60대	0.0	36.4	18.2	0.0	0.0	0.0	27.3	18.2
	70대	0.0	0.0	33.3	0.0	0.0	0.0	33.3	33.3
	80대	0.0	0.0	0.0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15.0	30.0	20.0	5.0	10.0	5.0	15.0
	전문학교	0.0	3.1	25.0	15.6	6.3	9.4	21.9	18.8
	고등중학교	0.0	14.1	22.8	7.6	4.3	4.3	17.4	29.3
	인민학교	0.0	33.3	0.0	0.0	0.0	0.0	0.0	66.7
	무학	0.0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0.0	5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15.0	30.0	10.0	5.0	10.0	10.0	2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12.6	22.8	11.8	4.7	4.7	17.3	26.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100.0	0.0	0.0
정사여부	있다	0.0	11.5	24.0	11.5	4.8	7.7	14.4	26.0
	없다	0.0	15.6	22.2	11.1	4.4	2.2	20.0	24.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 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8.9	24.3	10.8	8.1	2.7	16.2	18.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2.8	22.1	12.8	3.5	7.0	17.4	24.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8	26.9	7.7	3.8	7.7	11.5	38.5
남한 친인척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있다	0.0	14.6	25.2	11.7	4.9	6.8	13.6	23.3
	없다	0.0	8.7	19.6	10.9	4.3	4.3	21.7	30.4
혼인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미혼	0.0	8.7	21.7	8.7	8.7	6.5	15.2	30.4
	결혼(동거 포함)	0.0	15.9	25.6	13.4	1.2	4.9	15.9	23.2
	이혼	0.0	9.5	19.0	9.5	9.5	9.5	19.0	2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핵무기 보유 견해

문4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찬성했다	다소 찬성했다	반반/ 그저 그랬다	다소 반대했다	매우 반대했다
		0%(0)	26.8%(40)	19.5%(29)	24.8%(37)	10.1%(15)	18.8%(28)
성별	남자	0.0	34.0	22.0	16.0	4.0	24.0
	여자	0.0	23.2	18.2	29.3	13.1	16.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33.3	33.3	33.3	0.0
	20대	0.0	33.3	22.2	24.4	8.9	11.1
	30대	0.0	25.0	21.4	32.1	7.1	14.3
	40대	0.0	25.6	20.5	23.1	12.8	17.9
	50대	0.0	21.1	21.1	26.3	5.3	26.3
	60대	0.0	36.4	0.0	9.1	18.2	36.4
	70대	0.0	0.0	0.0	33.3	0.0	66.7
	80대	0.0	0.0	0.0	0.0	0.0	100.0
	대학교	0.0	20.0	30.0	15.0	10.0	25.0
학력	전문학교	0.0	25.0	18.8	25.0	6.3	25.0
	고등중학교	0.0	28.3	18.5	28.3	10.9	14.1
	인민학교	0.0	33.3	0.0	0.0	0.0	6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0.0	0.0	50.0	0.0
	당원	0.0	40.0	20.0	20.0	5.0	15.0
당원여부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0	24.4	18.9	26.0	11.0	19.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7.0	16.2	16.2	13.5	27.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6.7	23.3	26.7	8.1	15.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6.9	11.5	30.8	11.5	19.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0.0	24.3	15.5	32.0	9.7	18.4
	없다	0.0	32.6	28.3	8.7	10.9	19.6
	무응답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30.4	26.1	21.7	10.9	10.9
	결혼(동거 포함)	0.0	28.0	15.9	24.4	9.8	22.0
	이혼	0.0	14.3	19.0	33.3	9.5	23.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경제 어려움의 이유

문44)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자연 재해로 식량생산이 안되어	과다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지도자(김정일, 김정은)때문에	개혁 개방을 하지 않아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아서
		4.7%(7)	2.0%(3)	24.2%(36)	7.4%(11)	4.0%(6)	28.9%(43)	18.1%(12)	8.1%(12)	2.7%(4)
성별	남자	2.0	2.0	22.0	12.0	0.0	36.0	10.0	12.0	4.0
	여자	6.1	2.0	25.3	5.1	6.1	25.3	22.2	6.1	2.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33.3	0.0	0.0	33.3	0.0	0.0	33.3
	20대	4.4	2.2	28.9	11.1	6.7	17.8	13.3	13.3	2.2
	30대	0.0	3.6	17.9	0.0	3.6	39.3	28.6	7.1	0.0
	40대	2.6	0.0	17.9	10.3	5.1	30.8	23.1	10.3	0.0
	50대	10.5	0.0	31.6	0.0	0.0	42.1	5.3	0.0	10.5
	60대	9.1	9.1	27.3	18.2	0.0	18.2	18.2	0.0	0.0
	70대	33.3	0.0	33.3	0.0	0.0	0.0	33.3	0.0	0.0
	80대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대학교	15.0	5.0	15.0	5.0	0.0	40.0	20.0	0.0	0.0
학력	전문학교	3.1	3.1	28.1	6.3	0.0	21.9	21.9	12.5	3.1
	고등중학교	3.3	1.1	26.1	7.6	5.4	28.3	16.3	8.7	3.3
	인민학교	0.0	0.0	0.0	33.3	33.3	33.3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원	10.0	0.0	15.0	5.0	0.0	35.0	15.0	20.0	0.0
당원여부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비당원	3.1	2.4	25.2	7.9	4.7	28.3	18.9	6.3	3.1
	무응답, 응답오류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4	2.7	8.1	10.8	0.0	37.8	16.2	16.2	2.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4.7	1.2	27.9	7.0	4.7	29.1	17.4	7.0	1.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8	3.8	34.6	3.8	7.7	15.4	23.1	0.0	7.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친척	있다	4.9	1.9	25.2	7.8	4.9	30.1	16.5	6.8	1.9
	없다	4.3	2.2	21.7	6.5	2.2	26.1	21.7	10.9	4.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6.5	4.3	30.4	8.7	6.5	23.9	6.5	10.9	2.2
	결혼(동거 포함)	3.7	1.2	22.0	7.3	2.4	34.1	20.7	6.1	2.4
	이혼	4.8	0.0	19.0	4.8	4.8	19.0	33.3	9.5	4.8
	무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개인사업 인구률

문45) 귀하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10% 미만	20%	30%	40%	50%	60%	70%	80%	90% 이상
		0%(0)	3.4%(5)	3.4%(5)	2.7%(4)	9.4%(14)	8.1%(12)	9.4%(14)	12.8%(19)	38.3%(57)	12.8%(19)
성별	남자	0.0	6.0	8.0	2.0	14.0	2.0	12.0	16.0	32.0	8.0
	여자	0.0	2.0	1.0	3.0	7.1	11.1	8.1	11.1	41.4	15.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66.7	0.0	0.0	33.3	0.0	0.0
	20대	0.0	4.4	0.0	4.4	13.3	8.9	4.4	6.7	46.7	11.1
	30대	0.0	0.0	3.6	3.6	7.1	7.1	10.7	21.4	28.6	17.9
	40대	0.0	2.6	5.1	2.6	5.1	7.7	7.7	17.9	35.9	15.4
	50대	0.0	10.5	5.3	0.0	5.3	10.5	15.8	5.3	36.8	10.5
	60대	0.0	0.0	9.1	0.0	9.1	0.0	9.1	0.0	54.5	9.1
	70대	0.0	0.0	0.0	0.0	0.0	33.3	33.3	0.0	33.3	0.0
	80대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학력	대학교	0.0	0.0	5.0	0.0	15.0	10.0	10.0	15.0	35.0	10.0
	전문학교	0.0	6.3	0.0	0.0	12.5	3.1	12.5	21.9	28.1	15.6
	고등중학교	0.0	3.3	4.3	4.3	6.5	9.8	7.6	9.8	42.4	12.0
	인민학교	0.0	0.0	0.0	0.0	33.3	0.0	33.3	0.0	0.0	33.3
	무학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당원 여부	당원	0.0	5.0	5.0	0.0	15.0	5.0	15.0	30.0	10.0	15.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3.1	3.1	3.1	8.7	8.7	7.9	10.2	42.5	12.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장사 여부	있다	0.0	2.9	3.8	3.8	8.7	8.7	10.6	10.6	37.5	13.5
	없다	0.0	4.4	2.2	0.0	11.1	6.7	6.7	17.8	40.0	11.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 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4	5.4	0.0	10.8	8.1	8.1	10.8	37.8	13.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5	3.5	4.7	7.0	5.8	10.5	12.8	39.5	12.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0.0	0.0	15.4	15.4	7.7	15.4	34.6	1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3.9	3.9	2.9	8.7	6.8	9.7	10.7	42.7	10.7
	없다	0.0	2.2	2.2	2.2	10.9	10.9	8.7	17.4	28.3	17.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4.3	2.2	2.2	17.4	6.5	4.3	10.9	39.1	13.0
	결혼(동거 포함)	0.0	3.7	4.9	2.4	6.1	6.1	11.0	14.6	39.0	12.2
	이혼	0.0	0.0	0.0	4.8	4.8	19.0	14.3	9.5	33.3	14.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생산규율 유지

문46)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3)	10.1%(15)	22.1%(33)	34.9%(52)	30.9%(46)
성별	남자	2.0	6.0	20.0	46.0	26.0
	여자	2.0	12.1	23.2	29.3	3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33.3	0.0	0.0	66.7	0.0
	20대	0.0	11.1	31.1	31.1	26.7
	30대	3.6	10.7	14.3	42.9	28.6
	40대	2.6	7.7	23.1	38.5	28.2
	50대	0.0	5.3	5.3	42.1	47.4
	60대	0.0	27.3	36.4	9.1	27.3
	70대	0.0	0.0	33.3	0.0	66.7
	80대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15.0	25.0	40.0	20.0
	전문학교	3.1	12.5	15.6	34.4	34.4
	고등중학교	1.1	8.7	23.9	34.8	31.5
	인민학교	0.0	0.0	33.3	0.0	66.7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50.0	0.0	0.0	50.0	0.0
당원 여부	당원	0.0	5.0	20.0	45.0	3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2.4	11.0	22.8	33.1	30.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장사 여부	있다	1.9	10.6	22.1	36.5	28.8
	없다	2.2	8.9	22.2	31.1	35.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 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7	13.5	13.5	29.7	40.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2.3	10.5	23.3	43.0	20.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8	30.8	15.4	5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2.9	7.8	23.3	32.0	34.0
	없다	0.0	15.2	19.6	41.3	23.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2.2	10.9	26.1	34.8	26.1
	결혼(동거 포함)	2.4	9.8	22.0	34.1	31.7
	이혼	0.0	9.5	14.3	38.1	38.1
	무응답	0.0	0.0	0.0	0.0	0.0

생활총화 출석률

문47)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30%미만	30~50%	50~70%	70~90%	90%이상
		0%(0)	10.7%(16)	9.4%(14)	26.2%(39)	34.2%(51)	19.5%(29)
성별	남자	0.0	10.0	6.0	16.0	48.0	20.0
	여자	0.0	11.1	11.1	31.3	27.3	19.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33.3	0.0	33.3	33.3
	20대	0.0	4.4	17.8	28.9	28.9	20.0
	30대	0.0	7.1	3.6	42.9	32.1	14.3
	40대	0.0	15.4	2.6	23.1	43.6	15.4
	50대	0.0	15.8	15.8	21.1	21.1	26.3
	60대	0.0	27.3	0.0	9.1	45.5	18.2
	70대	0.0	0.0	0.0	0.0	66.7	33.3
	80대	0.0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10.0	5.0	40.0	35.0	10.0
	전문학교	0.0	3.1	6.3	31.3	40.6	18.8
	고등중학교	0.0	10.9	12.0	22.8	33.7	20.7
	인민학교	0.0	33.3	0.0	0.0	0.0	6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0	5.0	15.0	55.0	2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11.8	10.2	28.3	29.9	19.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정시여부	있다	0.0	10.6	5.8	29.8	33.7	20.2
	없다	0.0	11.1	17.8	17.8	35.6	17.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1.6	10.8	18.9	29.7	18.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8	10.5	25.6	37.2	20.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1.5	3.8	38.5	30.8	15.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12.6	7.8	26.2	34.0	19.4
	없다	0.0	6.5	13.0	26.1	34.8	19.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6.5	10.9	34.8	26.1	21.7
	결혼(동거 포함)	0.0	13.4	8.5	17.1	42.7	18.3
	이혼	0.0	9.5	9.5	42.9	19.0	19.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북한 경제시스템 지지도

문48)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0%(0)	8.1%(12)	6.0%(9)	10.7%(16)	34.2%(51)	40.9%(61)
성별	남자	0.0	6.0	8.0	6.0	30.0	50.0
	여자	0.0	9.1	5.1	13.1	36.4	36.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33.3	0.0	0.0	66.7
	20대	0.0	15.6	8.9	6.7	33.3	35.6
	30대	0.0	7.1	0.0	17.9	25.0	50.0
	40대	0.0	0.0	7.7	7.7	43.6	41.0
	50대	0.0	5.3	0.0	5.3	47.4	42.1
	60대	0.0	18.2	9.1	27.3	9.1	36.4
	70대	0.0	0.0	0.0	33.3	66.7	0.0
	80대	0.0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5.0	15.0	15.0	30.0	35.0
	전문학교	0.0	6.3	6.3	15.6	40.6	31.3
	고등중학교	0.0	8.7	3.3	7.6	34.8	45.7
	인민학교	0.0	33.3	0.0	0.0	0.0	66.7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50.0	5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10.0	5.0	20.0	30.0	35.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7.9	6.3	9.4	34.6	41.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정시여부	있다	0.0	8.7	4.8	9.6	34.6	42.3
	없다	0.0	6.7	8.9	13.3	33.3	37.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3.5	5.4	5.4	27.0	48.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5.8	7.0	10.5	34.9	41.9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7	3.8	19.2	42.3	26.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6.8	4.9	13.6	40.8	34.0
	없다	0.0	10.9	8.7	4.3	19.6	56.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3.0	8.7	8.7	23.9	45.7
	결혼(동거 포함)	0.0	7.3	6.1	12.2	34.1	40.2
	이혼	0.0	0.0	0.0	9.5	57.1	3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다른 지역 방문

문49)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자주 가 보았다	가끔 가 보았다	거의 가보지 못했다
		0.7%(1)	21.5%(32)	41.6%(62)	36.2%(54)
성별	남자	2.0	34.0	38.0	26.0
	여자	0.0	15.2	43.4	41.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33.3	33.3
	20대	0.0	17.8	40.0	42.2
	30대	3.6	28.6	46.4	21.4
	40대	0.0	17.9	46.2	35.9
	50대	0.0	31.6	36.8	31.6
	60대	0.0	9.1	27.3	63.6
	70대	0.0	0.0	66.7	33.3
	80대	0.0	100.0	0.0	0.0
	대학	0.0	25.0	55.0	20.0
학력	전문학교	3.1	18.8	40.6	37.5
	고등중학교	0.0	21.7	40.2	38.0
	인민학교	0.0	33.3	0.0	66.7
	무학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50.0	50.0
당원여부	당원	0.0	40.0	30.0	3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비당원	0.8	18.1	44.1	37.0
정시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있다	1.0	22.1	43.3	33.7
	없다	0.0	20.0	37.8	42.2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7	37.8	40.5	18.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8.6	43.0	38.4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7	38.5	5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1.0	14.6	41.7	42.7
	없다	0.0	37.0	41.3	21.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23.9	45.7	30.4
	결혼(동거 포함)	1.2	19.5	37.8	41.5
	이혼	0.0	23.8	47.6	28.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집단과 개인 우선도

문50)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
		0%(0)	8.7%(13)	8.7%(13)	77.9%(116)	4.7%(7)
성별	남자	0.0	14.0	8.0	68.0	10.0
	여자	0.0	6.1	9.1	82.8	2.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20대	0.0	11.1	4.4	77.8	6.7
	30대	0.0	10.7	17.9	64.3	7.1
	40대	0.0	0.0	10.3	87.2	2.6
	50대	0.0	5.3	0.0	94.7	0.0
	60대	0.0	9.1	18.2	63.6	9.1
	70대	0.0	66.7	0.0	33.3	0.0
	80대	0.0	100.0	0.0	0.0	0.0
	대학	0.0	5.0	30.0	55.0	10.0
학력	전문학교	0.0	9.4	9.4	78.1	3.1
	고등중학교	0.0	8.7	4.3	82.6	4.3
	인민학교	0.0	33.3	0.0	66.7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당원여부	당원	0.0	15.0	10.0	60.0	15.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7.9	8.7	80.3	3.1
정시여부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100.0	0.0
	있다	0.0	6.7	9.6	79.8	3.8
	없다	0.0	13.3	6.7	73.3	6.7
북한소식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0.8	5.4	81.1	2.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7.0	10.5	79.1	3.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11.5	7.7	69.2	1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0.0	7.8	9.7	78.6	3.9
	없다	0.0	10.9	6.5	76.1	6.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5.2	0.0	80.4	4.3
	결혼(동거 포함)	0.0	7.3	15.9	73.2	3.7
	이혼	0.0	0.0	0.0	90.5	9.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주변국 친밀감

문5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0.7%(1)	1.3%(2)	0%(0)	16.1%(24)	79.2%(118)	2.7%(4)
성별	남자	2.0	4.0	0.0	12.0	78.0	4.0
	여자	0.0	0.0	0.0	18.2	79.8	2.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100.0	0.0
	20대	0.0	2.2	0.0	13.3	75.6	8.9
	30대	0.0	3.6	0.0	10.7	85.7	0.0
	40대	0.0	0.0	0.0	25.6	74.4	0.0
	50대	5.3	0.0	0.0	10.5	84.2	0.0
	60대	0.0	0.0	0.0	27.3	72.7	0.0
	70대	0.0	0.0	0.0	0.0	100.0	0.0
	80대	0.0	0.0	0.0	0.0	100.0	0.0
학력	대학교	0.0	0.0	0.0	10.0	85.0	5.0
	전문학교	0.0	0.0	0.0	9.4	87.5	3.1
	고등중학교	1.1	2.2	0.0	19.6	75.0	2.2
	인민학교	0.0	0.0	0.0	33.3	66.7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당원여부	당원	5.0	0.0	0.0	10.0	85.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1.6	0.0	17.3	78.0	3.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정사여부	있다	1.0	1.0	0.0	19.2	76.0	2.9
	없다	0.0	2.2	0.0	8.9	86.7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7	0.0	0.0	10.8	83.8	2.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3	0.0	19.8	75.6	2.3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0.0	0.0	11.5	84.6	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1.0	1.0	0.0	22.3	72.8	2.9
	없다	0.0	2.2	0.0	2.2	93.5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2.2	0.0	10.9	78.3	8.7
	결혼(동거 포함)	1.2	1.2	0.0	18.3	79.3	0.0
	이혼	0.0	0.0	0.0	19.0	81.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평화위협국가

문5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2.7%(4)	71.8%(107)	9.4%(14)	2.0%(3)	14.1%(21)	0%(0)
성별	남자	4.0	74.0	8.0	0.0	14.0	0.0
	여자	2.0	70.7	10.1	3.0	14.1	0.0
	응답오류, 중복응답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33.3	0.0	33.3	0.0
	20대	4.4	91.1	2.2	0.0	2.2	0.0
	30대	7.1	64.3	10.7	3.6	14.3	0.0
	40대	0.0	53.8	12.8	0.0	33.3	0.0
	50대	0.0	78.9	15.8	0.0	5.3	0.0
	60대	0.0	63.6	9.1	18.2	9.1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성별	대학교	0.0	85.0	5.0	0.0	10.0	0.0
	전문학교	6.3	68.8	9.4	3.1	12.5	0.0
	고등중학교	2.2	70.7	10.9	2.2	14.1	0.0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당원여부	당원	5.0	70.0	15.0	0.0	1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2.4	71.7	8.7	2.4	15.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정사여부	있다	1.9	70.2	9.6	2.9	15.4	0.0
	없다	4.4	75.6	8.9	0.0	11.1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5.4	59.5	8.1	5.4	21.6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2	72.1	11.6	1.2	14.0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3.8	88.5	3.8	0.0	3.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2.9	69.9	10.7	1.9	14.6	0.0
	없다	2.2	76.1	6.5	2.2	13.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4.3	82.6	4.3	0.0	8.7	0.0
	결혼(동거 포함)	2.4	68.3	11.0	2.4	15.9	0.0
	이혼	0.0	61.9	14.3	4.8	19.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국의 통일희망

문5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1.3%(2)	11.4%(17)	9.4%(14)	30.9%(46)	47.0%(70)
성별	남자	0.0	16.0	6.0	40.0	38.0
	여자	2.0	9.1	11.1	26.3	5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0.0	66.7	0.0
	20대	0.0	8.9	8.9	37.8	44.4
	30대	0.0	10.7	7.1	42.9	39.3
	40대	0.0	12.8	15.4	20.5	51.3
	50대	0.0	10.5	10.5	26.3	52.6
	60대	18.2	18.2	0.0	9.1	54.5
	70대	0.0	0.0	0.0	33.3	66.7
	80대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10.0	15.0	35.0	40.0
	전문학교	3.1	9.4	6.3	28.1	53.1
	고등중학교	0.0	12.0	9.8	32.6	45.7
	인민학교	33.3	0.0	0.0	0.0	66.7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0.0	0.0	50.0
당원여부	당원	0.0	10.0	10.0	25.0	55.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1.6	11.0	9.4	32.3	45.7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정사여부	있다	1.0	10.6	12.5	26.9	49.0
	없다	2.2	13.3	2.2	40.0	4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16.2	2.7	29.7	51.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9.3	12.8	33.7	44.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7.7	11.5	7.7	23.1	5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1.9	11.7	12.6	32.0	41.7
	없다	0.0	10.9	2.2	28.3	58.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13.0	6.5	37.0	43.5
	결혼(동거 포함)	2.4	12.2	9.8	28.0	47.6
	이혼	0.0	4.8	14.3	28.6	52.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중국의 통일희망

문5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0.7%(1)	6.0%(9)	8.7%(13)	37.4%(56)	47.0%(70)
성별	남자	0.0	6.0	4.0	44.0	46.0
	여자	1.0	6.1	11.1	34.3	47.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33.3	66.7
	20대	0.0	2.2	6.7	44.4	46.7
	30대	0.0	7.1	7.1	39.3	46.4
	40대	2.6	5.1	7.7	35.9	48.7
	50대	0.0	5.3	21.1	36.8	36.8
	60대	0.0	18.2	9.1	18.2	54.5
	70대	0.0	0.0	0.0	33.3	66.7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10.0	10.0	50.0	30.0
	전문학교	0.0	0.0	3.1	34.4	62.5
	고등중학교	1.1	4.3	9.8	38.0	46.7
	인민학교	0.0	33.3	33.3	0.0	33.3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0	5.0	45.0	45.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8	6.3	8.7	36.2	48.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정사여부	있다	1.0	4.8	8.7	37.5	48.1
	없다	0.0	8.9	8.9	37.8	44.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1	8.1	35.1	48.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2	5.8	8.1	36.0	48.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3.8	11.5	46.2	38.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친인척	있다	1.0	6.8	8.7	35.9	47.6
	없다	0.0	4.3	8.7	41.3	45.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4.3	8.7	37.0	50.0
	결혼(동거 포함)	1.2	8.5	6.1	36.6	47.6
	이혼	0.0	0.0	19.0	42.9	38.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일본의 통일희망

문5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2.0%(3)	2.0%(3)	4.7%(7)	37.6%(56)	53.7%(80)
성별	남자	2.0	0.0	4.0	44.0	50.0
	여자	2.0	3.0	5.1	34.3	55.6
	무응답,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20대	0.0	2.2	2.2	42.2	53.3
	30대	3.6	0.0	3.6	35.7	57.1
	40대	0.0	2.6	5.1	41.0	51.3
	50대	0.0	0.0	10.5	31.6	57.9
	60대	18.2	0.0	9.1	9.1	63.6
	70대	0.0	0.0	0.0	33.3	66.7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0.0	5.0	45.0	50.0
	전문학교	6.2	0.0	3.1	34.4	56.3
	고등중학교	0.0	1.1	5.4	39.1	54.3
	인민학교	33.3	33.3	0.0	0.0	33.3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응답오류	0.0	50.0	0.0	0.0	50.0
당원여부	당원	0.0	0.0	0.0	45.0	55.0
	후보당원	0.0	0.0	0.0	0.0	100.0
	비당원	2.4	2.4	4.7	37.0	53.5
	무응답,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정사여부	있다	2.0	1.9	4.8	37.5	53.8
	없다	2.2	2.2	4.4	37.8	53.3
	무응답,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7	0.0	5.4	27.0	64.9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3	3.5	43.0	51.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7.7	3.8	7.7	34.6	46.2
	무응답,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2.9	2.9	4.9	37.9	51.5
남한친인척	없다	0.0	0.0	4.3	37.0	58.7
	무응답,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2.2	4.3	39.1	54.3
혼인	결혼(동거 포함)	3.6	2.4	2.4	37.8	53.7
	이혼	0.0	0.0	14.3	33.3	52.4
	무응답,응답오류	0.0	0.0	0.0	0.0	0.0

러시아의 통일희망

문5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2.0%(3)	8.7%(113)	20.8%(31)	38.9%(58)	29.5%(44)
성별	남자	2.0	8.0	8.0	48.0	34.0
	여자	2.0	9.1	27.3	34.3	27.3
	무응답,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100.0	0.0
	20대	0.0	11.1	22.2	40.0	26.7
	30대	3.6	3.6	28.6	39.3	25.0
	40대	0.0	7.7	23.1	41.0	28.2
	50대	0.0	10.5	10.5	36.8	42.1
	60대	18.2	9.1	9.1	18.2	45.5
	70대	0.0	0.0	33.3	33.3	33.3
	80대	0.0	10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15.0	25.0	35.0	25.0
	전문학교	6.3	6.3	25.0	25.0	37.5
	고등중학교	0.0	6.5	18.5	45.7	29.3
	인민학교	33.3	33.3	0.0	33.3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응답오류	0.0	50.0	5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0.0	15.0	45.0	4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2.4	9.4	22.0	37.8	28.3
	무응답,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정사여부	있다	1.9	8.7	19.2	39.4	30.8
	없다	2.2	8.9	24.4	37.8	26.7
	무응답,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7	5.4	10.8	40.5	40.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0.5	23.3	36.0	30.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7.7	7.7	26.9	46.2	11.5
	무응답,응답오류	0.0	0.0	0.0	0.0	0.0
	있다	2.9	10.7	23.3	35.9	27.2
남한친인척	없다	0.0	4.3	15.2	45.7	34.8
	무응답,응답오류	0.0	0.0	0.0	0.0	0.0
	미혼	0.0	13.0	23.9	37.0	26.1
혼인	결혼(동거 포함)	3.7	7.3	17.1	39.0	32.9
	이혼	0.0	4.8	28.6	42.9	23.8
	무응답,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협조 필요 국가

문5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없다
		3.4%(5)	51.0%(76)	20.1%(30)	3.4%(5)	0%(0)	22.1%(33)
성별	남자	4.0	52.0	24.0	0.0	0.0	20.0
	여자	3.0	50.5	18.2	5.1	0.0	23.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66.7	33.3	0.0	0.0	0.0
	20대	2.2	42.2	33.3	8.9	0.0	13.3
	30대	0.0	50.0	14.3	0.0	0.0	35.7
	40대	2.6	59.0	10.3	0.0	0.0	28.2
	50대	10.5	52.6	15.8	5.3	0.0	15.8
	60대	0.0	54.5	27.3	0.0	0.0	18.2
	70대	33.3	33.3	0.0	0.0	0.0	33.3
	80대	0.0	10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5.0	45.0	20.0	0.0	0.0	30.0
	전문학교	0.0	43.8	28.1	0.0	0.0	28.1
	고등중학교	4.3	53.3	18.5	4.3	0.0	19.6
	인민학교	0.0	66.7	0.0	33.3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0.0	25.0	0.0	0.0	35.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3.9	52.8	18.9	3.9	0.0	20.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정사여부	있다	3.8	50.0	16.3	4.8	0.0	25.0
	없다	2.2	53.3	28.9	0.0	0.0	15.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5.9	18.9	5.4	0.0	29.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3.5	55.8	18.6	2.3	0.0	19.8
	거의 접할 수 없었다	7.7	42.3	26.9	3.8	0.0	19.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2.9	48.5	23.3	3.9	0.0	21.4
남한 친인척	없다	4.3	56.5	13.0	2.2	0.0	23.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0.0	52.2	28.3	6.5	0.0	13.0
혼인	결혼(동거 포함)	4.9	51.2	17.1	1.2	0.0	25.6
	이혼	4.8	47.6	14.3	4.8	0.0	28.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중협력

문58)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다방면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비협력적이다	비협력한 편이다	우려스러운 편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잘 모르겠다
		0%(0)	33.6%(50)	22.8%(34)	23.5%(35)	8.1%(12)	12.1%(18)
성별	남자	0.0	36.0	24.0	24.0	10.0	6.0
	여자	0.0	32.3	22.2	23.2	7.1	15.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0.0
	20대	0.0	40.0	22.2	20.0	6.7	11.1
	30대	0.0	35.7	28.6	17.9	7.1	10.7
	40대	0.0	30.8	17.9	23.1	15.4	12.8
	50대	0.0	31.6	10.5	52.6	5.3	0.0
	60대	0.0	18.2	27.3	18.2	0.0	36.4
	70대	0.0	33.3	33.3	0.0	0.0	33.3
	80대	0.0	10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40.0	30.0	25.0	0.0	5.0
	전문학교	0.0	28.1	28.1	28.1	3.1	12.5
	고등중학교	0.0	33.7	19.6	22.8	12.0	12.0
	인민학교	0.0	66.7	0.0	0.0	0.0	33.3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50.0	0.0	0.0	50.0
당원여부	당원	0.0	40.0	25.0	25.0	0.0	1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32.3	22.8	22.8	9.4	12.6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정사여부	있다	0.0	33.7	21.2	23.1	10.6	11.5
	없다	0.0	33.3	26.7	24.4	2.2	1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29.7	18.9	21.6	16.2	13.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0.2	24.4	27.9	5.8	11.6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0.0	23.1	11.5	3.8	11.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있다	0.0	29.1	20.4	28.2	8.7	13.6
남한 친인척	없다	0.0	43.5	28.3	13.0	6.5	8.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미혼	0.0	37.0	30.4	19.6	8.7	4.3
혼인	결혼(동거 포함)	0.0	31.7	18.3	28.0	8.5	13.4
	이혼	0.0	33.3	23.8	14.3	4.8	23.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주민 친근감

문59)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0%[0]	33.6%(50)	57.0%(85)	9.4%(14)	0%[0]
성별	남자	0.0	34.0	54.0	12.0	0.0
	여자	0.0	33.3	58.6	8.1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100.0	0.0	0.0
	20대	0.0	26.7	62.2	11.1	0.0
	30대	0.0	32.1	60.7	7.1	0.0
	40대	0.0	38.5	59.0	2.6	0.0
	50대	0.0	36.8	47.4	15.8	0.0
	60대	0.0	54.5	36.4	9.1	0.0
	70대	0.0	33.3	0.0	66.7	0.0
	80대	0.0	0.0	100.0	0.0	0.0
학력	대학교	0.0	25.0	60.0	15.0	0.0
	전문학교	0.0	25.0	59.4	15.6	0.0
	고등중학교	0.0	37.0	56.5	6.5	0.0
	인민학교	0.0	66.7	33.3	0.0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5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45.0	45.0	10.0	0.0
	후보당원	0.0	0.0	100.0	0.0	0.0
	비당원	0.0	31.5	59.1	9.4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31.7	61.5	6.7	0.0
	없다	0.0	37.8	46.7	15.6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7.8	51.4	10.8	0.0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29.1	65.1	5.8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42.3	38.5	19.2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33.0	57.3	9.7	0.0
	없다	0.0	34.8	56.5	8.7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34.8	56.5	8.7	0.0
	결혼(동거 포함)	0.0	31.7	57.3	11.0	0.0
	이혼	0.0	38.1	57.1	4.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주민 포용성

문60)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포용적이다	약간 포용적이다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0%[0]	24.2%(36)	52.3%(78)	21.5%(32)	2.0%(3)
성별	남자	0.0	18.0	54.0	26.0	2.0
	여자	0.0	27.3	51.5	19.2	2.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33.3	0.0
	20대	0.0	20.0	44.4	28.9	6.7
	30대	0.0	7.1	71.4	21.4	0.0
	40대	0.0	28.2	61.5	10.3	0.0
	50대	0.0	31.6	47.4	21.1	0.0
	60대	0.0	63.6	18.2	18.2	0.0
	70대	0.0	33.3	0.0	66.7	0.0
	80대	0.0	0.0	100.0	0.0	0.0
학력	대학교	0.0	20.0	50.0	30.0	0.0
	전문학교	0.0	15.6	53.1	28.1	3.1
	고등중학교	0.0	27.2	53.3	17.4	2.2
	인민학교	0.0	33.3	33.3	33.3	0.0
	무학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50.0	5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25.0	50.0	25.0	0.0
	후보당원	0.0	0.0	0.0	100.0	0.0
	비당원	0.0	24.4	52.8	20.5	2.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21.2	56.7	21.2	1.0
	없다	0.0	31.1	42.2	22.2	4.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40.5	37.8	18.9	2.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17.4	60.5	22.1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23.1	46.2	23.1	7.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20.4	55.3	22.3	1.9
	없다	0.0	32.6	45.7	19.6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21.7	45.7	26.1	6.5
	결혼(동거 포함)	0.0	23.2	56.1	20.7	0.0
	이혼	0.0	33.3	52.4	14.3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국민의식

문61)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	나는 남한사람이다	나는 북한사람이다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0%(0)	67.8%(101)	26.2%(39)	6.0%(9)
성별	남자	0.0	66.0	26.0	8.0
	여자	0.0	68.7	26.3	5.1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66.7	33.3	0.0
	20대	0.0	68.9	24.4	6.7
	30대	0.0	46.4	46.4	7.1
	40대	0.0	66.7	23.1	10.3
	50대	0.0	84.2	15.8	0.0
	60대	0.0	90.9	9.1	0.0
	70대	0.0	66.7	33.3	0.0
	80대	0.0	100.0	0.0	0.0
	무학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80.0	15.0	5.0
	전문학교	0.0	65.6	21.9	12.5
	고등학교	0.0	65.2	30.4	4.3
	인민학교	0.0	66.7	33.3	0.0
	무학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70.0	30.0	0.0
	후보당원	0.0	100.0	0.0	0.0
	비당원	0.0	66.9	26.0	7.1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65.4	26.9	7.7
	없다	0.0	73.3	24.4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67.6	27.0	5.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69.8	22.1	8.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1.5	38.5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있다	0.0	69.9	24.3	5.8
남한 친인척	없다	0.0	63.0	30.4	6.5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미혼	0.0	65.2	32.6	2.2
혼인	결혼(동거 포함)	0.0	68.3	22.0	9.8
	이혼	0.0	71.4	28.6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남한생활 만족도

문62)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0)	38.9%(58)	41.6%(62)	15.4%(23)	2.0%(3)	2.0%(3)
성별	남자	0.0	34.0	50.0	10.0	4.0	2.0
	여자	0.0	41.4	37.4	18.2	1.0	2.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66.7	33.3	0.0	0.0
	20대	0.0	26.7	46.7	20.0	2.2	4.4
	30대	0.0	32.1	53.6	14.3	0.0	0.0
	40대	0.0	38.5	38.5	17.9	5.1	0.0
	50대	0.0	52.6	31.6	10.5	0.0	5.3
	60대	0.0	72.7	27.3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40.0	55.0	5.0	0.0	0.0
	전문학교	0.0	34.4	34.4	25.0	6.3	0.0
	고등학교	0.0	37.0	43.5	15.2	1.1	3.3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35.0	45.0	15.0	5.0	0.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0	40.2	40.9	15.7	1.6	1.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100.0	0.0	0.0	0.0
장사여부	있다	0.0	35.6	48.1	13.5	1.9	1.0
	없다	0.0	46.7	26.7	20.0	2.2	4.4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32.4	40.5	16.2	2.7	8.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0.0	37.2	46.5	14.0	2.3	0.0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53.8	26.9	19.2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0.0	41.7	39.8	15.5	1.9	1.0
	없다	0.0	32.6	45.7	15.2	2.2	4.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30.4	47.8	19.6	0.0	2.2
	결혼(동거 포함)	0.0	42.7	37.8	13.4	3.7	2.4
	이혼	0.0	42.9	42.9	14.3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탈북자 지원정책 만족도

문63)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 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0.7%(1)	56.4%(84)	30.9%(46)	8.7%(13)	2.0%(3)	1.3%(2)
성별	남자	0.0	52.0	34.0	8.0	2.0	4.0
	여자	1.0	58.6	29.3	9.1	2.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33.3	33.3	33.3	0.0	0.0
	20대	2.2	57.8	26.7	8.9	2.2	2.2
	30대	0.0	39.3	57.1	0.0	0.0	3.6
	40대	0.0	59.0	25.6	15.4	0.0	0.0
	50대	0.0	57.9	21.1	10.5	10.5	0.0
	60대	0.0	72.7	27.3	0.0	0.0	0.0
	70대	0.0	100.0	0.0	0.0	0.0	0.0
	80대	0.0	100.0	0.0	0.0	0.0	0.0
학력	대학교	0.0	50.0	50.0	0.0	0.0	0.0
	전문학교	0.0	62.5	25.0	6.3	3.1	3.1
	고등중학교	1.1	53.3	30.4	12.0	2.2	1.1
	인민학교	0.0	100.0	0.0	0.0	0.0	0.0
	무학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100.0	0.0	0.0	0.0	0.0
당원여부	당원	0.0	55.0	35.0	5.0	0.0	5.0
	후보당원	0.0	100.0	0.0	0.0	0.0	0.0
	비당원	0.8	56.7	30.7	9.4	1.6	0.8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100.0	0.0
장사여부	있다	1.0	55.8	32.7	8.7	1.0	1.0
	없다	0.0	57.8	26.7	8.9	4.4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59.5	27.0	8.1	2.7	2.7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2	51.2	33.7	10.5	2.3	1.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69.2	26.9	3.8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1.0	55.3	32.0	8.7	1.9	1.0
	없다	0.0	58.7	28.3	8.7	2.2	2.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54.3	34.8	8.7	2.2	0.0
	결혼(동거 포함)	0.0	56.1	30.5	9.8	1.2	2.4
	이혼	4.8	61.9	23.8	4.8	4.8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취업형태

문64) 귀하는 현재 취업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무응답, 응답오류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고용자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0.7%(1)	9.4%(14)	6.7%(10)	4.7%(7)	0%(0)	0.7%(1)	14.1%(21)	63.8%(95)
성별	남자	0.0	10.0	6.0	4.0	0.0	0.0	18.0	62.0
	여자	1.0	9.1	7.1	5.1	0.0	1.0	12.1	64.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연령대	10대	0.0	0.0	0.0	0.0	0.0	0.0	0.0	100.0
	20대	0.0	4.4	8.9	4.4	0.0	0.0	8.9	73.3
	30대	0.0	17.9	0.0	7.1	0.0	0.0	14.3	60.7
	40대	2.6	5.1	12.8	7.7	0.0	2.6	23.1	46.2
	50대	0.0	21.1	0.0	0.0	0.0	0.0	15.8	63.2
	60대	0.0	9.1	9.1	0.0	0.0	0.0	9.1	72.7
	70대	0.0	0.0	0.0	0.0	0.0	0.0	0.0	100.0
	80대	0.0	0.0	0.0	0.0	0.0	0.0	0.0	100.0
학력	대학교	0.0	0.0	0.0	5.0	0.0	0.0	20.0	75.0
	전문학교	0.0	12.5	9.4	3.1	0.0	0.0	18.8	56.3
	고등중학교	1.1	10.9	7.6	5.4	0.0	1.1	10.9	63.0
	인민학교	0.0	0.0	0.0	0.0	0.0	0.0	0.0	100.0
	무학	0.0	0.0	0.0	0.0	0.0	0.0	0.0	0.0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50.0	50.0
당원여부	당원	0.0	5.0	15.0	5.0	0.0	0.0	20.0	55.0
	후보당원	0.0	0.0	0.0	0.0	0.0	0.0	0.0	100.0
	비당원	0.8	10.2	5.5	4.7	0.0	0.8	13.4	64.6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100.0
장사여부	있다	1.0	12.5	5.8	5.8	0.0	1.0	14.4	59.6
	없다	0.0	2.2	8.9	2.2	0.0	0.0	13.3	73.3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북한소식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0.0	8.1	8.1	2.7	0.0	0.0	13.5	67.6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1.2	10.5	7.0	5.8	0.0	1.2	14.0	60.5
	거의 접할 수 없었다	0.0	7.7	3.8	3.8	0.0	0.0	15.4	69.2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남한 친인척	있다	1.0	7.8	5.8	5.8	0.0	1.0	12.6	66.0
	없다	0.0	13.0	8.7	2.2	0.0	0.0	17.4	58.7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혼인	미혼	0.0	6.5	13.0	6.5	0.0	0.0	6.5	67.4
	결혼(동거 포함)	1.2	11.0	4.9	2.4	0.0	1.2	17.1	62.2
	이혼	0.0	9.5	0.0	9.5	0.0	0.0	19.0	61.9
	무응답, 응답오류	0.0	0.0	0.0	0.0	0.0	0.0	0.0	0.0

--	--	--

2014 북한이탈주민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2013년에 귀하께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 통일, 남한사회, 북한사회, 주변국가 등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는 2013년에 북한에서 살다가 나오신 분들 중 만18세 이상인 분들이 참여하게 되며, 약 15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마치는 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설문조사를 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귀하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 지시면 귀하는 언제든지 설문조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북한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가 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사회학과 박명규 교수이며,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어떤 개인 정보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은미 연구원(02-880-4052)에게 문의해주시시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듣고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동의함□에 √표기를 해주시시오.

또한 귀하께서는 나중에 언제든지 동의한 사실을 철회하실 수 있으며,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는 폐기 처리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 5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박명규

동의함 □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시면 □안에 √ 표기를 해 주십시오.)

통일인식

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약간 필요하다.
- ③ 반반/그저 그렇다.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원한다.
- ② 약간 원한다.
- ③ 별로 원하지 않는다.
-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같은 민족이니까
- ②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 ③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 ④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 ⑤ 북한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 ⑥ 기타(적을 것:)

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년 이내
- ② 10년 이내
- ③ 20년 이내
- ④ 30년 이내
- ⑤ 불가능하다

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5-1. 그럼 귀하는 통일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6. 귀하는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가 통일되기 이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㉓ 빈부격차	1	2	3	4	5
㉔ 실업문제	1	2	3	4	5
㉕ 지역갈등	1	2	3	4	5
㉖ 이념갈등	1	2	3	4	5

7.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번호에 동그라미로 표시)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㉗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㉘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	1	2	3	4
㉙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경제협력	1	2	3	4
㉚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 ②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 ③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 ④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 ⑤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9. 귀하는 통일이 되면 남한출신 주민과 북한출신 주민이 어떻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어울려 지낼 것이다.
- ② 그럭저럭 어울려 지낼 것이다.
- ③ 별로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 ④ 전혀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할 것이다.

10.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 ① 북한에서 살 것이다.
- ② 남한에서 살 것이다.
- ③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
- ④ 외국에 나가 살 것이다.

대남인식

1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① 남한은 북한이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 ② 남한은 북한이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③ 남한은 북한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 ④ 남한은 북한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 ⑤ 남한은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1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잘 알았다	조금 알았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몰랐다
㉠ 4.19 혁명	1	2	3	4
㉡ 5.18 광주항쟁	1	2	3	4
㉢ 88서울올림픽	1	2	3	4
㉣ 2002 월드컵	1	2	3	4
㉤ 쇄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1	2	3	4

1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접해봤다.
- ② 한두 번 접해봤다.
- ③ 전혀 접해보지 못했다.

13-1. (11번에서 ①과 ②번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만) 귀하는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 등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 ① 매우 친숙했다.
- ② 약간 친숙했다.
- ③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
- ④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

14. 귀하는 다음 측면에서 현재 남한과 북한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선거방식	1	2	3	4
㉧ 생활수준	1	2	3	4
㉨ 역사인식	1	2	3	4
㉩ 언어사용	1	2	3	4
㉪ 생활풍습	1	2	3	4
㉫ 가치관	1	2	3	4

1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이 있다.
- ② 약간 있다.
- ③ 별로 없다.
- ④ 전혀 없다.

1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위협적이다.
- ② 다소 위협적이다.
- ③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 ④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17.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18.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②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③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 ④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⑤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1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의 대북 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②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③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④ 대폭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⑤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 귀하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 투자를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 ②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 ③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 ④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 ⑤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북한실태 변화

21.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②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 ③ 별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 ④ 전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다.

2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 미만 ② 20%
- ③ 30% ④ 40%
- ⑤ 50% ⑥ 60%
- ⑦ 70% ⑧ 80%
- ⑨ 90% 이상

2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간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 ②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 ③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2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약간 있다.
- ③ 대체로 없다. ④ 전혀 없다.

2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년 미만 ② 5~10년
- ③ 10~15년 ④ 15~20년
- ⑤ 20~30년 ⑥ 30년 이상
- ⑦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했다
- ② 다소 찬성했다

- ③ 반반/그저 그랬다
- ④ 다소 반대했다
- ⑤ 매우 반대했다

2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연재해로 식량생산이 안되어
- ②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 ③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어
- ④ 간부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 ⑤ 지도자(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 ⑥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 ⑦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 ⑧ 통일이 되지 않아서
- ⑨ 기타 ()

28. 귀하는 북한주민들 가운데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① 10% 미만 ② 20%
- ③ 30% ④ 40%
- ⑤ 50% ⑥ 60%
- ⑦ 70% ⑧ 80%
- ⑨ 90% 이상

29.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 ① 거의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
- ②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 ③ 대체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④ 거의 대부분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0. 귀하가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① 30% 미만 ② 30~50%
- ③ 50~70% ④ 70~90%
- ⑤ 90% 이상

3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

- ① 사회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 ② 사회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 ③ 두 가지 모두를 비슷하게 지지했다.
- ④ 자본주의 경제를 약간 더 지지했다.
- ⑤ 자본주의 경제를 훨씬 더 지지했다.

32.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얼마나 자주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 ① 자주 가보았다.
- ② 가끔 가보았다.
- ③ 거의 가보지 못했다.

33.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생활에서 집단과 나(또는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집단이 훨씬 더 우선이다.
- ② 집단이 조금 더 우선이다.
- ③ 나(또는 가족)이 훨씬 더 우선이다.
- ④ 나(또는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다.

34.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월생활비(월소득)가 얼마 정도여야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돈 _____ 원)

주변국에 대한 인식

35.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가장 가깝게 느끼셨습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36.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 ③ 남한 ④ 중국
- ⑤ 러시아

37.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번호에 동그라미 또는 √로 표시)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3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 중 어느 나라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국 ② 미국
- ③ 러시아 ④ 일본
- ⑤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

39.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다방면으로 협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바람직하다.
- ② 바람직한 편이다.
- ③ 우려스러운 편이다.
- ④ 매우 우려스럽다.
- ⑤ 잘 모르겠다.

43.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4.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대체로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5. 귀하의 현재 취업 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정규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일하는 경우)
- ② 계약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③ 일용직 근로자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정한 사업장없이 이동하며 일한 댓가를 받는 경우)
- ④ 고용자 (유급 종업원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 ⑤ 자영업자 (자기 혼자나 무급 가족의 힘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 ⑥ 실업자 (일자리는 없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중인 사람)
- ⑦ 비경제활동인구 (일자리도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 예. 학생, 주부, 근로 무능력)

남한사회 적응실태

40. 귀하는 남한출신 주민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 ①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 ②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 ③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 ④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1.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탈북자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포용적이다.
- ② 약간 포용적이다.
- ③ 별로 포용적이지 못하다.
- ④ 전혀 포용적이지 못하다.

42.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나는 남한사람이다.
- ② 나는 북한사람이다.
- ③ 나는 남한사람도 북한사람도 아니다.

46. 남한에서 귀하는 월 평균 얼마를 버십니까?
_____만원

47. 귀하의 월 평균 근로일수와 하루의 평균 근로시간을 적어주십시오.

- ① 월 평균 근로 일수 _____ 일
- ② 하루 평균 근로 시간 _____ 시간

Q6.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대학교
- ② 전문학교
- ③ 고등중학교
- ④ 인민학교
- ⑤ 무학

Q7. 북한에서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노동자
- ② 농민
- ③ 사무원
- ④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등)
- ⑤ 학생
- ⑥ 군인
- ⑦ 외화벌이일군
- ⑧ 장사
- ⑨ 가정부인
- ⑩ 무직 및 기타

인구통계학적 정보

Q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Q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년)

Q3. 귀하는 언제 북한을 마지막으로 떠나셨습니까?
(년 월)

Q4. 귀하는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년 월)

Q5.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까지 살았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 ① 평양
- ② 남포
- ③ 개성
- ④ 평안남도
- ⑤ 평안북도
- ⑥ 함경남도
- ⑦ 함경북도
- ⑧ 자강도
- ⑨ 양강도
- ⑩ 황해남도
- ⑪ 황해북도
- ⑫ 강원도

Q8.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당원이었습니까?

- ① 당원
- ② 후보당원
- ③ 비당원

Q9.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식적인 월급(생활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원)

Q10.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비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월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원)

Q11.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장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Q12. 귀하는 북한을 떠난 후에도 북한 지역의 소식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었습니까?

- ①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 ②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 ③ 거의 접할 수 없었다.

Q13.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이전에 남쪽에
혈육이나 친척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Q1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
에 해당합니까?

- ① 미혼 ② 결혼 (동거 포함) ③ 이혼

Q15. 귀하의 현재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명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19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4

인쇄 2015. 03. 31
발행 2015. 03. 31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박명규
저자 정은미·김병로·박명규·송영훈 저
등록 119-82-67975(2006.7.7)
주소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전화 02) 880-4052-4, 874-7304
팩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주)다해미디어(02-722-7123)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4 / 저자: 정은미, 김병로, 박명규, 송영훈.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19)

권말부록: 집계표 2014 ; 설문지 2014

ISBN 979-11-955093-0-0 93340 : 비매품

통일 의식 조사[統一意識調査]

340.911-KDC6

320.9519-DDC23

CIP2015009806
